용인 근 · 현대사 증언 구술 생애 자료집 XII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용인 근 · 현대사 증언 구술 생애 자료집 XII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용인의 예술인 편

구 술	면 담
용인 국악 발전에 씨앗이 된 **김정숙** 선생	박숙현
용인의 문학 발전을 일궈낸 **김종경** 선생	박기정
전통적 방식으로 고려백자의 정신을 잇고 있는 **마순관(馬順官)** 공예명장	김정희
용인 미술 · 생활과학의 선도자(先導者) **이강수(李康壽)** 선생	남기주
용인시 향토문화재 지정에 고증과 연구로 기여한 전통 무용가이며 민속학자이신 **이병옥(李炳玉)** 선생	김도영
용인서정3세대의 산실 '카페 동인(同人)' **임준규** 대표	김지혜
연극배우 · 연출가 · 극작가로 용인을 넘어 경기도연극계를 이끄는 극단개벽 대표 **한원식(韓元植)** 연출가	이은성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발간사

용인문화원장 **심언택**

역사는 단지 기록으로만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되지 않은 과거 사실은 잊혀지면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뜻일 것입니다.

구술생애사는 생존해 계신 원로분들의 증언을 통해 역사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삶의 흔적을 인터뷰를 통해 증언을 채록하고 그 구술 증언에 의거하여 세부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 놓으면 훌륭한 근현대 역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의 체계적인 정립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 스스로를 역사 행위자, 즉 역사의 주체로서 그 중심에 놓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역사 서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사료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구술생애사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술생애사의 발간은 단순히 구술 자료를 채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역사 바로 쓰기 운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인문화원에서는 11차례에 걸친 구술생애사 편찬을 통해 용인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성 등 각계 분야의 원로나 일제 피해자, 6.25 참전하신 분, 독립운동가 후손, 무형문화재

보유자분 그리고 평생 공직에 근무하신 분 등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잊혀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역사 자료를 수집하여 축적해 왔습니다.

올해는 용인의 예술인을 주제로 구술 채록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용인의 예술환경이 척박한 시기에 후진을 양성하고 자신의 예술 분야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의 생애와 예술 활동 경험의 증언은 그동안 용인의 예술계의 발전을 더듬어 보고 한편으로는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22년 〈구술생애사〉 12집을 편찬을 위해 채록에 흔쾌히 응해주신 구술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구술사 집필을 위해 면담자로 참여하신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2년 12월

용인문화원장 **심 언 택**

축사

용인시장 **이상일**

인간의 역사는 문자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문명(文明)이란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문자가 밝힌 인간지혜의 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기억 전승을 담당했던 것은 구술(口述)이었습니다. 용인이 구술의 가치와 위력을 실천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대단하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입니다.

용인의 인물들이 전하는 구술을 기록하여 근현대 용인의 역사를 복원하고 미래의 기틀로 삼는 큰 프로젝트인 '용인의 구술생애사' 발간사업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에 의미있는 12집이 나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는 '용인 예술사를 이끈 예술계 인물'들의 구술이 실렸지요. 이 고장의 예술사를 이끈 인물들의 가치있는 삶과 추구의 증언들이 생생하게 담겼을 것입니다. 예술인들의 면면을 얼핏 살펴봐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춤의 전승과 관련해 '문화유산' 개념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창하신 이병옥 선생이나 용인 제1호 공예명장이자 분청사기의 대가인 도예가 마순관선생, 극단개벽의 설립자이며 600여회의 공연을 일궈낸 연출가이자 배우 한원식선생, 미술교사를 지내신 이강수선생,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이수자 김정숙선생, 임준규, 김종경 시인 등 빼어난 용인의 시맥(詩脈)을 이룬 분들의 구술을 만날 수 있는 감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정 비전인 '용인르네상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 속에 내재하는 가치들을 돋우고 키워 도시의 가치로 만들고 미래 삶의 융성으로 이끄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예술인들의 생생한 구술생애사는, 용인의 문화 저력의 현장과 역사를 채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12집이 널리 읽혀서, 용인 예술의 뿌리와 환경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중한 책을 발간할 수 있게 해주신 구술 예술인들과, 자료를 엮은 용인문화원과 용인학연구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융성의 최종 목표는 시민이 유쾌하고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추구해 가야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용인시장 **이 상 일**

축사

용인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 예술사를 이끈 예술계 인물'을 기록하게 될 "용인의 구술생애 자료집 12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방면으로 용인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용인학연구소 김태근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흘린 그 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인내, 경험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기억들은 잊히고 퇴색되기 마련이기에 공로와 공적을 되짚고 기록한다는 것은 더욱 그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고, 대대손손 자랑스러움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치열했던 노력과 열정을 늘 가슴 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인의 구술생애 자료집 12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용인시의회 의장 **윤 원 균**

일러두기

1. 본 책은 용인 근 · 현대사에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을 녹음하여 풀어서 발간한 것이다.

2. 본 책 「용인 근 · 현대사 증언 구술 생애 자료집 XII」은 용인 예술인 구술을 통해 예술 세계 및 용인의 예술사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3. 목차는 구술자의 가나다 순으로 구성하였다.

4. 구술 내용을 풀었기 때문에 문장은 구어체이며, 따라서 문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구술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하면 구술자의 어투를 살리도록 하였다.

5. 구술자의 간단한 약력과 사진을 실었으며, 채록 일시와 채록자는 각 구술자의 구술 내용 앞 부분에 기재하였다.

차례 | CONTENTS

발간사 4

축사 6

일러두기 9

근 · 현대사증언자료

용인 국악 발전에 씨앗이 된 **김정숙** 선생 13

용인의 문학 발전을 일궈낸 **김종경** 선생 43

전통적 방식으로 고려백자의 정신을 잇고 있는 **마순관(馬順官)** 공예명장 67

용인 미술 · 생활과학의 선도자(先導者) **이강수(李康壽)** 선생 91

용인시 향토문화재 지정에 고증과 연구로 기여한 전통 무용가이며 민속학자이신 **이병옥(李炳玉)** 선생 109

용인서정3세대의 산실 '카페 동인(同人)' **임준규** 대표 145

연극배우 · 연출가 · 극작가로 용인을 넘어 경기도연극계를 이끄는 극단개벽 대표 **한원식(韓元植)** 연출가 171

근 · 현대사
증언 자료

용인 국악 발전에 씨앗이 된,

김정숙 선생

1960년 4월	서울출생
1983년 2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1998년 2월	한양대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졸업
2006년 2월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국정관리학과 졸업
1987년 11월	국가중요무형문화재제23호가야금 산조 첫 이수자
1989년 ~	녹야김윤덕명인기념사업회이사장(녹야국악단, 녹야국악관현악단단장, 김윤덕향제줄풍류보존회대표, 녹야우리문화조찬모임대표, 녹야우리문화봉사단대표, 녹야청소년가야금영재단예술감독)
1998년 ~ 1999년	용인예술단초대단장
2000년 ~ 2001년	양동문가야금연주단창단(악장, 현자문위원)
2019년 ~	은성아그로파크주)문화기획단예술감독
2021년 ~	지묵당세계축제예술감독

개요

- 구술자 : 김정숙
- 면담자 : 박숙현
- 1차 인터뷰
  - 일시 : 2022 11월 8일
- 2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9일
- 3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3일

요약정리

김정숙 선생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녹야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창시자이자 보유자였던 김윤덕 명인의 막내딸로 태어나 어린시절부터 늘 아버지 곁에서 가야금과 거문고 연주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다. 어린시절 김정숙에게 가야금은 놀이와도 같이 친숙했다. 김정숙 집에는 고 황병기 선생을 비롯해 오늘날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활약하고 있는 제자들이 공부를 하러왔고 김정숙은 자연스럽게 가야금을 접할 수 있었다. 김정숙은 아버지가 매일 새벽 5시면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웅장하고 남성적이고 산천을 호령하는 소리였다. 김정숙은 그 때문인지 가야금보다는 거문고에 더욱 큰 매력을 느꼈고 거문고를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가야금을 하라고 권했다. 한 우물을 파다 보면 다른 악기도 다 잘하게 된다고 했다. 가야금을 먼저 배운 김정숙은 그 후 거문고도 배웠다.

중학교 시절에는 아버지가 종로에 차린 가야금 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가야금을 배웠다. 당시 국악중학교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국악중학교에 보낼만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으셨다. 김정숙 스스로가 좋아서 배우고 익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됐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목표로 하던 서울대 대신 한양대 국악과에 진학했다.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잘하고 가야금 잘하는 학생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교수가 진행하는 KBS라디오 국악방송의 리포터로 활약하다보니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KBS텔레비전에도 리포터로 줄연했고, 왕영은이 진행하던 뽀뽀뽀 진행까지 섭외가 들어왔으나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질 수 있는 방송유혹을 떨쳐내고 국악의 자리를 지켰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이영희 김윤덕류 가야금산조 보유자로부터 전수 장학금을 받고 이수자가 됐다. 보유자, 준보유자, 그리고 이수자인 김정숙은 한 무대에 서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했다. 잘나가는 강사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상승기류를 타던 중 결혼과 함께 활동이 둔해졌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음악 지도법 등을 습득했고 이후 대학교와 고등학교, 국악원 등의 강사 생활을 계속했다.

맏아들을 잃은 후 실의에 빠져 방황하던 김정숙은 문득 아버지를 잊고 있었음을 크게 깨달으면서 아버지 김윤덕을 기리기 위해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던 용인땅으로 내려왔다. 김윤덕을 널리 알리는 기념관을 짓고 본격적으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와 향제 줄풍류를 계승시키는 사업을 하기 위해 용인 백암에 자리를 잡았다. 용인에 오자마자 용인 전문예술단의 신호탄인 용인예술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예술의 황무지나 다름없던 용인에 국악의 씨앗을 뿌렸고, 이후 녹야국악단, 녹야국악관현악단, 영재단, 향제 줄풍류보존회 등을 만들어 이끌면서 국악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 녹야김윤덕명인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녹야전국예술제를 열어 전국에 녹야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김윤덕 기념관 부지를 기부받은 그녀는 앞으로 무형문화재가 돼 아버지 업적을 정리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것을 과제로 여기고 있다.

출생과 성장기

면담자 : 김정숙 선생님이 용인 지역 국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것과 아버님 녹야 김윤덕 명인으로부터 전승된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줄풍류를 계승하면서 국악계에 입문하는 과정 등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출생과 부모님의 성함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술자 :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아버님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김윤덕류를 만드신 녹야 김윤덕(1918~1978)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이자 경자 운자 이경운 여사입니다.

면담자 : 아버님의 무형문화재 보유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구술자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보유자세요.

면담자 : 어머님께서는 국악과는 무관하신가요?

구술자 : 네, 살림만 하셔서 국악은 전혀 모르세요.

면담자 : 본관은 어디고 형제분은 몇 분이신가요?

구술자 : 김해 김가이고 6남매인데 아들 하나에 딸 다섯이에요. 제가 막내고요.

면담자 : 다른 형제 중에 국악을 하시거나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구술자 : 언니 둘이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는 않아요.

면담자 : 국악에 대한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국악의 길을 걷게 되신 건지요. 타고난 재능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구술자 :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황병기 선생님이나 지금 국가문화재로 계신 선생님들이 아버님한테 공부를 하러 집으로 오셨죠. 제가 한 8, 9살 때에요. 집으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가야금을 접하게 됐고요.

면담자 : 태어나신 곳은 어디셨나요.

구술자 : 서울 중구 만리동.

면담자 : 아버님은 원래 중구 만리동에 사셨던 건가요.
구술자 : 예 만리동에 계시다 그 후 아현동으로 이사했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서 종로에 가야금 연구소를 만드셨죠.

면담자 : 아버님은 다른 악기는 안하시고 가야금만 하셨나요?
구술자 : 아니죠. 아버님은 거문고부터 시작하셨어요. 거문고를 옛날에 보통학교, 아버님 태생이 정읍이세요. 정읍 농고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김용근 선생님한테 거문고 풍류와 산조를 그때 사사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거문고를 시작하시고 양금. 그때는 집이 농사를 많이 지으셨대요. 호남 지방이니까 가을에 풍악 같은 거 많이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악적인 어떤 재질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생기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도 하고 그래서 설장구를 엄청 잘하신다고. 그 얘기는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설장고를 내놓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버님이 하시는 북가락이나 장고가락 등 김윤덕류의 기반을 잡을 수 있는 맥락이 거기에 있던 것 같아요. 가야금을 우연히, 그때 일제 징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징용에 안 끌려가려고 내장산 그쪽 산으로 들어가셨다가 그 산에서 이제 가야금, 그때 가야금 병창도 이미 조금 다 두루두루, 가야금도 풍류도 좀 다 배우시고 들어가신 상태였어요. 그때 우연히 옛날에 축음기에서 정남희 선생님 연주를 들었대요. 그 음악에 매료가 돼 가지고 혼자 마스터하고 20대 중반 정도에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정남희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서울에서 국악계 활동이 시작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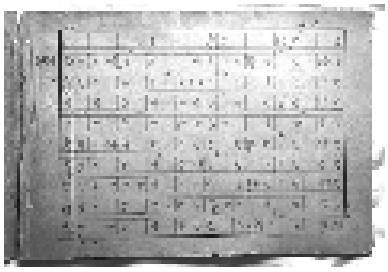
면담자 : 축음기 소리를 듣고 정남희 선생님에게 사사를 하신거군요.
구술자 : 음악에 대한 굉장한 학구열이죠. 지금 보면 열의가 대단했던 거죠.

면담자 : 김정숙 선생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구술자 : 저는 60년도 생이라서 아버님께서 국악원 활동하실 때는 안 태어났고요. 그때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 금우회를 조직해 회장을 맡으셨어요. 금우회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명인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아버지 자료를 보고 알았죠. 거기에서 산조와 풍류를 연주했더라고요.

아버지 김윤덕 명인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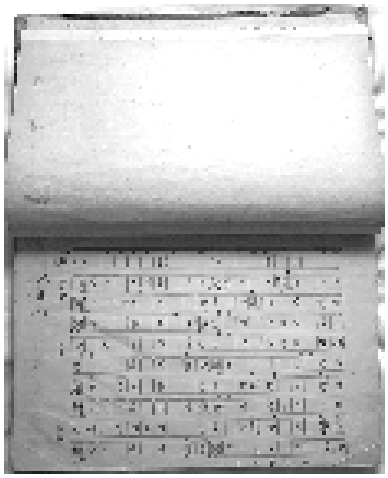
면담자 : 아버님의 업적, 의의라면요?

구술자 : 최초의 가야금 산조 보유자가 된 거죠. 정남희 산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전심수로만 그전까지 내려왔잖아요.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악보를 다 체계화해서 정남희 선생 가락에다가 이제 박자 같은 거 모자란 박자가 있어요. 이제 모자른 장단을 맞추고 그다음에 좋은 가락도 넣고 그래서 이제 김윤덕류를 정립을 해서 1968년도에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가 되시죠.



면담자 : 악보로 기록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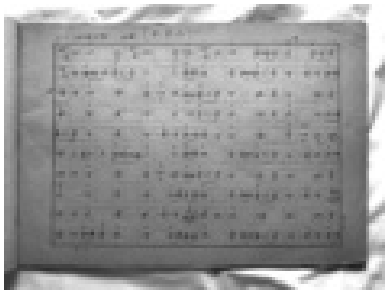
구술자 : 지금은 다 악보를 보고 하잖아요. 그때는 악보가 없어서 다 구전 심수를 했는데 그것을 당신이 배운 악보와 당신이 만든 악보, 만든 가락으로 김윤덕류라는 곡을 만들어 낸 거잖아요.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와 풍류를 정관보(한자보), 국문신보, 그다음에 구음보, 오선보 이렇게 네 가지로 다 악보화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발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집에만 있죠.



구음보

면담자 : 그런 거를 빨리 발표를 하셔야겠네요.

구술자 : 제가 책을 2002년도에 냈는데 거기에 발표는 해놨어요. 아버님이 이런 책을 만들어 놓은 걸 좀 볼 수 있게 아버님 친필 악보를 몇 장은 수록은 해놨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아버님 탄신 100주년 해가지고 용인문화원에서 한 달 동안 저희 아버님 유물 전시를 했었죠. 특히 향제 풍류, 산조 같은 거는 악보화를 다 해놨기 때문



한자보

에 변질이 될 수가 없죠. 문화재청에 기록돼 있는 아버님 연주도 있고 악보도 있으니까 김윤덕류가 정리가 됐죠.

면담자 : 아버님께서 국악 발전에 업적이 크시네요.

구술자 : 저희 아버님이 70년대에 집에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 오셨어요. 워낙 바쁘셨어요. 그때 대한민국 국가예술단을 공보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때 성금연, 지영희, 김소희, 그리고 김윤덕 등 네 분과 이제 북 반주 등 해서 모두 14분이 유럽 27개국 공연을 하셨어요. 네 분은 우리 국악계에서는 굉장히 시조와 같은 분이세요. 지영희 선생님은 해금과 피리를 잘 하셨고, 평택에 지영희 홀도 있잖아요. 그 부인 성금연 선생님은 가야금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만정 김소희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진짜 판소리의 최고봉이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가야금, 거문고를 다 하셨고. 그리고 김소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살풀이도 잘하셨어요. 성금연 선생님이 병창도 하시고. 네 분이면 무대가 꽉 차게 시나위도 하시고 모든 악기가 부럽지 않게 한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유럽 쪽에, 특히 독일 같은 데서는 인기가 엄청 좋았대요. 그 후 72년에 미국에서 또 초청을 했어요. 아버님 수첩에 옛날에 적어놓은 거에 보면 카네기홀에서 10번을 앙코르를 받았더라고요. 역시 대단하시다. 기립박수 받으면서.

면담자 : 대단하셨네요. 김윤덕만의 것을 만드셨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구술자 : 김윤덕의 특징은 가락 자체가 구성미가 뛰어나죠. 아버지가 장단을 하셨기 때문에, 가야금 산조 연주는 가야금과 장고가 전부예요. 장고가 가야금을 엄청 잘 받쳐줘야 되는데 장고 가락을 아시기 때문에 가야금 가락이 구성미가 아주 뛰어나고 짜임새가 좋다고 정평이 나 있죠. 남성적이고 박력 있고 굉장히 파워풀해요. 산조가 여러 유파가 있어요. 성금연류는 여성스럽죠. 70년도에 가장 유명한 분이 그 두 분이었기 때문에 김윤덕하고 성금연류밖에 거의 없었어요. 여성 산조는 성금연류, 남성산조 하면은 김윤덕류 이렇게.

면담자 : 그러면 김정숙 선생님 어린 시절에요. 가야금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진 거예요.

구술자 : 그냥 놀이였죠. 요즘으로 치면 피아노 체험은 즐겁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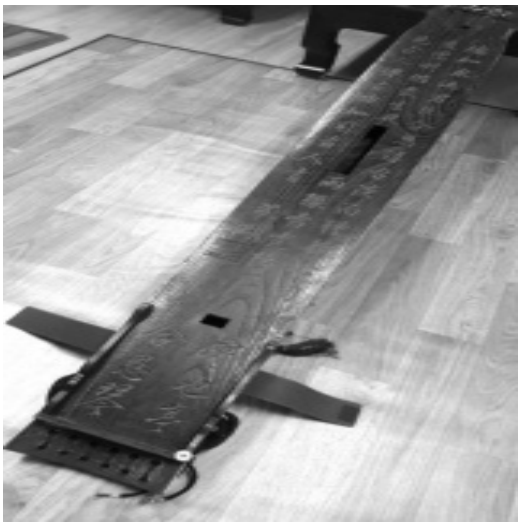
면담자 :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던 건가요?

구술자 : 저희 아버님이 앞에서 막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언니들이 기억하면서 얘기를 해주기를 제가 아버님이 방에 계시면 다른 방에서 막 연습을 하잖아요. 아버님이 방에서 그러신대요. 누가 연주하냐고. 제법이네. 저 녀석 성음이 좋구만.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면담자 : 아버님이 가야금 연주를 가르켜주신 거예요?
구술자 : 관심을 보이니까 아버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셨어요.

면담자 : 가야금도 집에 많았을 것 같네요.
구술자 : 지금도 엄청 많아요. 지금도 한 30대 정도 있어요. 거문고도 있고 다 있어요.



면담자 : 오래됐을 텐데 제작자는요?
구술자 : 아버님 거문고는 5대가량 있는데 4대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악기에요. 그중 합은금은 국악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문화재급. 그러니까 보통 악기가 이름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악기 뒤에다가 합은금이라고 써 있어요.

면담자 : 합은금이란 무슨 뜻이에요?
구술자 : 합할 때 합. 은혜 은자. 그다음에 금. 합은금이라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한자로 쫙 써 있어요. 설명이 쓰여 있는데 제가 설명은 잘 모르겠고. 그게 문화재청의 민속자료로 지정돼 있어요.

면담자 : 그러면 그거는 지금 집에는 없고 문화재청에?
구술자 : 집에 있죠.

면담자 : 지정된 걸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정된 악기들도 있는지요?
구술자 : 지정은 안 됐지만 그만한 가치에 준하는 악기들이 다 있어요.

면담자 : 그럼 몇 대?
구술자 : 그게 네 다섯 대. 양금까지 하면 대여섯 대 되지요. 조선 후기에 제작된 거문고.

면담자 : 그리고 나머지는요?
구술자 :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가야금은 김광주 선생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악기장이셨죠. 그분이 만들어 주신 악기. 그거는 이름이 행복이에요.

면담자 : 대단한 악기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어린 시절에 배우기 시작을 했고,
구술자 : 아버님이 직접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고 공부할 때 이제 하잖아요. 근데 아버님한테 배워도 아버지 같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들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가야금 잘 하냐고 그랬더니 계속 타라고, 계속 연습하라고. 계속해라. 한 우물만 파라. 제가 처음에 거문고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가야금보다 거문고를 먼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문고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많이 안 했어요. 그게 좀 남성 악기로 분류돼 있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가야금을 하라고.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도 다 잘 할 수 있다. 하나를 뚫어라. 그러니까 하나를 파서 그거를 뚫어라 하는 얘기였죠.

면담자 : 그게 몇 살 정도 때 얘기인가요.
구술자 : 제가 가야금은 일찍 시작을 했지만 한 중학교 정도에 그랬죠.

면담자 : 거문고에 왜 끌리셨어요.
구술자 : 개인적인 성향인데 아버지 거문고 산조 엄청 좋아요. 들어보시면. 거문고 산조 가락도 기가 막히지만 웅장하고 남성적이고 아주 그냥 산천을 호령하는 그런 거문고 특징이에요. 새벽마다 5시면 항상 거문고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곤 했어요.

중학교 시절, 본격적으로 국악을 배우다

면담자 : 아버님께서 후계를 시키려고 지목을 해서 가르치신 건가요?

구술자 :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배우던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자손들한테 막 가르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굉장히 좋죠. 대우 받지만 그때는 많이 고생했던 어른들 세대라 이거를 가르치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면담자 : 당시에 국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직업으로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구술자 : 그때는 국악계가 황무지 같은 시대였죠. 물론 그것도 아버님의 생각이셨죠. 왜냐하면 성금연, 지영희(부부) 선생님의 집안은 자손들을 다 가르쳤어요. 그때 같이 활동하시던 유명한 선생님은 다 가르쳤는데 저희 아버님은 좀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그때 사회적인 어려운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 진학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국악과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고, 그때 아버지가 서울대학에 강의 나가고 그럴 때였거든요.

면담자 :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버님께서 그동안에 집에서 하다가 아까 종로에 학원을 차리셨다고 그랬나요?

구술자 : 네. 김윤덕 가야금 연구소.

면담자 : 어디에다 차리신 거예요.

구술자 : 비원 앞에, 거기 아주 유명해요. 그쪽 종로 거리는 국악인들 거리잖아요.

면담자 : 아버님께서 왜 차리셨고 이제 거기를 그러면 김정숙 선생님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건가요?

구술자 : 그렇죠. 원래 50년도에는 운현궁에서 맨 처음에 가르치셨어요. 운현궁 마지막 왕의 비가 아버지한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현궁에 들어가서 수업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운현궁에서 방을 주셔 가지고 황병기 선생님 연배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곳으로 공부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비원 옆에 대한정악원을 만들었죠. 그것도 국가에서 만든 건 아니고 동호인 같은 거죠. 국악 동호인들이 모여서 음악을 연습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이쪽에 연구소를 차리신 거죠.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문화재가 되신 거죠. 68년도에.

면담자 : 선생님도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배우게 되는 건가요?

구술자 : 아버님이 학원에 거의 주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학원에 가서 살았어요.

면담자 : 거기에서만 배우고 중학교에는 가야금반이나 요즘처럼 그런 거는 없었던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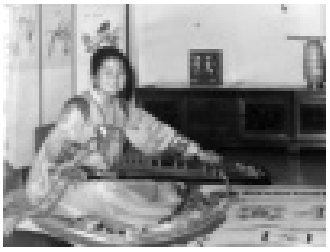
구술자 : 옛날에 국악 중학교도 있었는데 거기를 안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서만 배웠어요. 홍익여고를 갔는데 음악 선생님이 아버님 제자예요. 나중에 이대 교수가 됐지만. 1학년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정숙아, 나와서 줄 맞춰놓고 애들 연습시켜라. 3년을 그러고 지냈어요. 제가 계속 애들 줄 맞춰주고. 저는 집에서 배웠기 때문에 할 줄 아니까.

면담자 : 그렇군요. 전공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언제죠?

구술자 : 중학교 2학년 그 정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면담자 : 고등학교 때 학교 가야금반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구술자 : 제가 가야금 할 때니까 가야금반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고. 그냥 연습하는 거죠. 홍익 여고가 가야금 반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기본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시절의 김정숙 선생과 김윤덕 명인

면담자 : 일부러 홍익여고가 그런 학교여서 거기를 진학을 한 건가요?

구술자 :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보통 말하는 뺑뺑이라고 하죠.

한양대학교 국악과에 진학하다

면담자 : 그러면 이제 대학 진학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 제가 사실은 서울대학교를 준비 했거든요. 서울대학교는 그때 준비할 게 5가지

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정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피아노, 이론, 산조, 정악, 화성학 그런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경제 풍류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향제 풍류에 대한 음악적인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버님은 향제 풍류를 고집하시는 분이라 제가 경제 풍류하는 걸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죠. 저는 경제 풍류를 해야 되고. 시험 곡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피아노도 소나타 정도까지 쳐야 돼요. 그런데 양악기라고 그것도 안 좋아하셨고. 왜 양악을 배우냐고. 엄마가 몰래몰래. 저는 바이올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몰래 엄마가 다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아무래도 몰래 배운 거니까 얼마나 많이 충실하겠어요. 또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정악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래 연습해야 되고 시험 곡도 그런 과정에서 그때는 서울대가 1차고 이제 한양대가 2차였어요. 1차에서 이제 미비해 떨어졌죠. 그리고 산조 시험도 있잖아요. 제가 전공한 거는 김윤덕류인데 아버님이 제가 고3 때 암으로 병석에 계셨어요. 고 2 때까지는 제가 수업을 계속 받았는데 고3 때 병원을 계속 전전하시고 수업을 못하니까 성금연류로 연습을 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5가지 시험이 다 조금조금 부족한 거죠. 홍익여고에서는 김정숙은 서울대 보내라 지원했던 건데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됐고 2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대가 1차였어요. 그런데 황병기 선생님이 그때 이대 계셨잖아요. 4년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안갔어요. 내가 서울대 해서 안 되면 학교에서도 또 밀어주니까 한양대 가서 닭의 머리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양대에 갔죠.

면담자 : 이대에서 오라는 거는 왜 안 간 거예요?

구술자 : 그때 당시만 해도 시집 가기 위해서 이대 간다. 그런 평판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걸 잘 계승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선택한 게 서울대 아니면 한양대.

면담자 : 그러면 한양대는 수월하게 입학을 하시게 된 건가요.

구술자 : 시험을 봤는데 4년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또 처음 시험봤는데 성적 장학금까지 같이 나왔어요.

면담자 : 한양대는 입학할 때 실기나 이런 거는 어떤 걸 가지고 하셨던 건가요?

구술자 : 한양대는 서울대만큼은 시험이 많지 않았어요. 김윤덕류 산조로. 대학교 때는 제

가 고3 때 아버님 돌아가셨죠. 대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실기도 잘하고 아주 유명했죠. 거기다 아버님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 대내외적인 과 대표 하고, 교수님들이 각 대학의 전달 사항 그런 거는 다 저를 시켜서 제가 다 뛰어다니면서 했죠.

면담자 : 경연대회에도 나갔나요?

구술자 : 대학에서는 어쨌든 예술이라는 거는 경연보다는 연주자 개인의 어떤 예술성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경연대회 같은 거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남과 겨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관심이 없어서.

면담자 : 아버님의 뒤를 잇겠다는 생각을 하신건가요?

구술자 : 뒤를 잇는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계속 했어요. 아버님 산조며 풍류며 다 아버님 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 먹으면서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나중에 이제 결정하게 되죠.

면담자 : 그전에는 대학에서 김윤덕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나라에 산조는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구술자 : 산조가 거의 10개 정도 될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4가지 산조를 뗐죠. 김윤덕류를 우선 했죠. 그 다음에 성금연류, 김죽파류, 함동정월류 이렇게 네 가지 산조를 했어요. 음악적인 조성이 확 달라요. 그리고 조성과 선율에 따라서 음악 색깔이 확 달라지죠.

대학 졸업 후 가야금연구소 차리다

면담자 : 졸업 할 때 진로를 어찌 정하셨나요?

구술자 : 졸업하고 학교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결혼하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에 갔죠. 그 이유는 이거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 거죠. 80년도 들어오면서 국악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많이 좋아졌죠.

면담자 : 여론이 좋아진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구술자 : 그동안 고생한 선생님들이 많이 바탕을 깔으신 거죠. 교수님들이 문교부 그쪽에 많이 들어가시면서 양악 50%, 국악 50% 이렇게 비율을 많이넣게 되죠.

면담자 : 80년대는 TV나 방송 매체 이런 데서도 국악 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술자 : 저 어렸을 때 사극 있잖아요. 사극 효과음 거의 저희 아버님이 연주를 다 하셨죠. 국악 교육도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국악방송도 없었고 어르신들이 활동을 한 결과로 서울대학교 국악과가 생겼어요. 저희 아버님이 60년도에 강사셨죠. 국악원에 국악사로 계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간호전문대 숙명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나가신 거죠. 이론보다는 연주로.

면담자 :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어찌 활동하셨는지요?
구술자 : 졸업하면서 서초동에 가야금 연구소를 차렸어요.

면담자 : 졸업함과 동시에요? 그때가 몇 살 때였는데요?
구술자 : 졸업하고 나서 스물다섯 살. 예술의 전당 바로 밑에 가야금 연구소를 차렸죠.

면담자 : 가야금 연구소 이름이 뭐예요?
구술자 : 옛날에 아버님 가야금 연구소 간판을 걸었어요. 워낙 학교에 강의 나가고 여기저기 하는데 학생이 너무 많아서 개인 수업을 하다가 연구소를 차렸죠. 방송 생활도 조금 했고.

면담자 : 방송생활도 하셨나요?
구술자 : 대학교 4학년 때 교수님이 국악의 향연이라는 KBS 라디오 국악 방송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리포터로 활동을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명인을 찾아가서 대담을 한다든가 현장 중계를 하다 보니 작가들이 피디한테 소개를 해서 텔레비전도 나가게 됐고.

면담자 : 텔레비전은 어디요?
구술자 : KBS예요. 텔레비전에 처음 나가니까 무슨 맛집 찾아가는 거 아니면은 어디 명소 소개하는거. 또 소개를 받아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리포터 활동을 하게 된거에요. 뽀뽀뽀에서도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왕영은이 그때 결혼하면서 새로운 MC

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방송은 정말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그때 딱 정신을 딱 차렸죠. 국악을 전공한 사람이 국악을 더 열심히 해서 이 계통으로 나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때 이제 한 번 딱 그게 갈등을 한 번 했었죠.

면담자 : 포기하기도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강의는?
구술자 : 4학년 때 리포터는 했던 거고, 하다가 졸업하고서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었죠. 강의하면서 방송국하고 같이 병행했었죠. 특별활동 강사 그런거에요.

면담자 : 그러면 그런 학교 강의가 많이 있었어요?
구술자 : 청주 국악원 같은데. 선배가 국악원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강사로 좀 가달래서 여기저기 몇 군데 나갔어요.

면담자 :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강사 활동을 하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국립국악원이나 아니면 어딘가에 입단은요?
구술자 : 단체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해요. 단체에서 원하는 음악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로 활동하겠다. 저의 길을 그냥 쭉 온 거예요. 그래서 가야금 연구소를 차린거에요.

면담자 :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생?
구술자 : 네, 여기저기 가야금반 특활반 몇 군데 나갔는데 전공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 레슨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생겼어요.

면담자 : 강사로 유명해지셨겠네요.
구술자 :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 합격률이 저는 100%였죠.

면담자 : 당시에 국악의 붐이 일었기 때문에 이학교 저학교에 가야금반이 생긴 건가요?
구술자 : 그게 1985년도 그때 5, 6, 7, 8년. 하여튼 간 90년대 초까지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너무 학생이 많아서 쓰러져가지고 병원까지 실려가고 그랬어요. 한 2년 정도 하다가 87년에 결혼을 했는데 시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국악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에요.

면담자 : 남편은 국악하시는 분이 아니셨나요?
구술자 : 공대 출신인데 결혼할 때 나는 국악을 하는 걸 평생을 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싫어하는 거예요.

면담자 :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요?
구술자 : 그렇죠. 옛날 노인이니까 국악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좀 순종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집안 분란을 일으키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연구소를 접고 자꾸 축소를 했죠. 이제 집에서 몇 명 가르치다 따로 나왔죠. 분가를 해서 다시 또 차렸죠.

면담자 : 연구소를요? 어디에다가.
구술자 : 방배동에요.

면담자 : 그때 수입도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구술자 : 너무 잘 돼서 쓰러졌죠.

면담자 : 아니 그 정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고 예쁜 며느리를.
구술자 :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사고, 그런 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면담자 : 아기들은 누가 봐주셔야 활동을 하셨을텐데.
구술자 : 나중에 분가를 한 후 출산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못 봐주신다고 하셨던터였는데, 저희 집이야 워낙 예체능에서 어머니가 아버님을 보필을 잘하고 평생을 사셨으니까. 또 제가 아버지 거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얼른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더라고요.

면담자 : 마음은 일단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연구소도 되게 잘 되고 또 외부 강의도 나가시고.
구술자 : 이제 그랬지만 97년에 용인에 내려오기 전까지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은 거죠. 모든 걸 다 끊고 그 사이에 아기도 낳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연구소 차리고 막 그대로 갔으면 계속 활동했을 텐데 다 꺾인 거죠. 아기 병원도 다니느라 힘도 들었구요.

면담자 : 그 사이에 연구소도 경쟁적으로 많이 생기기도 했을 것 같고요.
구술자 :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거의 뭐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면담자 : 그렇게 됐구나. 그때 만약에 안 그랬으면은?
구술자 : 그때 KBS국악관현악단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쯤 생겼을 거에요. 교수님이 거기 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이 대학원까지 나와야 강사를 할 수 있다고 빨리 대학원 석사를 따라고 해서 93년서부터 교육대학원을 가서 98년에 졸업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느라고 늦어졌죠.

면담자 : 전공은요?
구술자 : 한양대 음악교육과. 교육대학원을 가서 지도법을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실기는 잘하지만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싶었죠.

면담자 : 교수로 안 가신 거예요?
구술자 : 대학 강사 강의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었으면 내가 그쪽으로 또 향해서 또 갔겠죠. 근데 묶이는 게 싫어요. 어디 악단에도 안 들어가고 대학 교수도 싫어했어요.

면담자 : 그러면 강사만 하려고?
구술자 : 네. 나는 대학 강사가 좀 편하고 프리랜서로서 굉장히 시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강사를 원했어요.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국악전통예술학교 등 계속 다니기 시작했죠. 강사로 한 15년 정도 계속 그렇게 다녔죠.

면담자 : 그거 안 해도 솔직히 강의도 많고 개인적으로 연구소도 운영하고 그게 다 잘 되고 하니까 굳이 대학교 교수를 할 타이를 가질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요.
구술자 : 네. 그러니까 간절함이 별로 크지는 않았던 거고요.

면담자 : 어떻게 용인으로는 인연을 맺어서 내려오게 되셨나요?
구술자 : 97년도에 제가 아들을 하나 잃었어요. 3남매 중 큰 아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지금 남매. 그런데 그 사이에 장남. 너무 힘들어서 다 버리고 용인으로 왔죠.

면담자 : 왜 용인을 선택했죠?
구술자 : 용인을 선택한 거는 시골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잃으면서 내가 아버지 거를 찾아야 되겠다, 아버지 거를 이제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됐어요.

면담자 : 용인 쪽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서울에서 별다른 일은 없었나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첫 이수자 되다

구술자 : 대학 졸업하고 84년도부터 87년도까지 제가 가야금 산조 이수를 했어요. 가야금 첫 이수자죠. 이영희 선생님 첫 이수자가 됐고.

면담자 : 가야금 이수자가 되신 거라구요?
구술자 : 84년도에 졸업하면서 이영희 선생님이 저를 전수 장학생으로 뽑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막 문화재가 됐어요. 그래서 전수 장학생으로 84년도에서 87년도까지 제가 이수 기간을 거쳐서 첫 제자가 됐죠. 이수 끝나면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빨리 대학원을 나와라. 학교 강의 좀 나오라 그 얘기였거든요

면담자 : 그러면 이수자가 김정숙 선생님 한 분.
구술자 : 이제 전수 장학생은 한 명이고 제가 이수 끝나고 난 뒤로 이제 이수자들이 쭉 들어온 것 같아요.

면담자 :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무형문화재 될 자격이 이제 생기게 또 되신 거네요.
구술자 : 지금은 그렇죠. 근데 원래 이수자하고 또 무형문화재 사이에 전수 조교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수 조교를 뽑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전수 조교가 그냥 문화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가 법이 바뀌어서 전수 조교나 이수자나 다 시험을 같이 봐서 뽑아요. 상관이 없게 된 거죠.

면담자 : 그러면 전수 조교도 하셨나요?
구술자 : 저는 안 했죠. 저는 그 사이에 결혼 생활을 했죠.

면담자 : 이수자가 되셨던거잖아요. 그 활동은 없었나요?
구술자 : 87년도에 이수할 때 국가무형문화재들과 이수자들을 공연을 시켜줬어요. 문화재청에서 그때는 문화재 관리국이었거든요. 첫 이수 할 때 이영희 선생님이 문화재고 이제 원한기 선생님이 준 보유자가 되셨어요. 셋이서 공연을 했죠. 해마다 열어주는 거예요. 한국의 집에서 몇 년 했죠. 그때 딱 3명이었으니까 선생님이 진양조 하시면 원한기 선생님이 중모리, 제가 중중모리, 다시 또 이영희 선생님이 자진모리, 그다음에 원한기 선생님이 휘모리, 제가 단모리 해서 이제 곡이 끝나게 되죠.

면담자 : 세 분이서 나눠서 연주를 하셨던 거군요.
구술자 : 요즘에도 이영희 선생님이 독주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합주로 하죠. 지금은 이수자가 많아져서. 원한기 선생님은 몇 년 전에 작고하셨죠.

면담자 : 요새도 해마다 공연은 계속 해오셨던 거군요.
구술자 : 저는 그거는 안 해요. 초창기에만 했고.

용인 백암으로 내려오다

면담자 : 그럼 다시 용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죠. 애석하게도 장남을 잃고서 서울을 떠나게 되셨는데 왜 용인을 택하셨나요?
구술자 : 이제 어떻게 하면 땅으로 갈까. 시골로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녀봤어요. 아버지 유산과 아버지의 업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유산과 업적들을 세상에 내놓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내놓으려면 김윤덕기념관 같은 걸 해야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고향 정읍이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60년대 말에 아버님이 용인에 한국민속촌 막 지어질 때 자문위원으로 정권진 선생님하고 자주 다니셨어요. 용인을 다녀오시면 용인이라는 데가 좋더라. 용인

에 가서 살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던 기억이 나서 용인에 와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면담자 : 정권진 선생님, 그분은 뭐하시는 분인데요.
구술자 : 그분은 보성재 판소리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예술학교에 선생님으로 같이 계셨죠.

면담자 : 그럼 용인으로 어디로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구술자 : 백암으로 왔죠. 97년도에.

면담자 : 왜 백암으로 내려오셨어요.
구술자 : 제가 도시를 떠나서 왔기 때문에 가장 시골로 가려고.

면담자 : 이제 백암에서 터를 잡고 아버님 기념관이나 이거를 예상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구술자 : 네 이제 아버님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온 거니까.

용인예술단 초대 단장을 맡다

면담자 : 내려와서 백암에서 아버님 일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 건가요?
구술자 :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한양대교 김용진 지도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이 저를 추천을 하셔가지고 용인대를 가봐라 하더라고요. 갔더니 김정수 교수님하고 이오규 교수님이 용인예술단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만들자. 저보고 단장을 하고 이오규 선생님이 예술 감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용인에 전문단체를 하나 만들자. 보통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시립으로. 그래야지 애들이 졸업을 하면 시립으로 일자리까지 연계가 되잖아요. 그때 제가 초대에, 창단할 때 단장으로 오게 되죠. 용인이 당시만 해도 완전히 황무지였죠. 전문가들은 없었죠. 전문가들은 대학교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전체였어요.

면담자 :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전문가가 없었군요.
구술자 : 네. 다 중앙에 있었어요. 국악하는 전문가들은 다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예술단을 만들 때 공연자들 자체가 전공자들이 없잖아요. 이때는 용인대학교 졸업자가 아직 안 나온 시기였기 때문에 전공한 학생들을 많이 단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조금 객원으로 해서.

면담자 : 그러면 용인대 학부생들로 창단이 된 거네요. 졸업생으로 창단 한 게 아니라.
구술자 : 네. 처음에 창단할 때.

면담자 : 언제 창단하신 거예요?
구술자 : 98년 12월에 했죠.

면담자 : 그때 당시에 이 학생들도 부족해서 객원을 쓰셨다는 건가요. 단원이 한 몇 명으로 창단하셨나요?
구술자 : 한 15명.

면담자 : 그것밖에 안 돼요? 되게 많지 않나요?
구술자 : 많아도 1~2학년 애들을 데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졸업할 4학년 애들로 구성이 됐던 거예요. 보통 3, 4학년 고학년은 돼야지 무슨 연주를 할 거 아니에요.

면담자 : 그럼 3, 4학년 애들도 다 한 게 아니네요.
구술자 : 거기서 몇 명 뽑고.

면담자 : 뽑은 거예요?
구술자 : 오디션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한테 너희 이런 예술단을 만들 건데. 희망자겠죠. 연주가 가능한 친구들로 해서 이제 학교에서 뽑아서 보냈죠.

면담자 : 뽑아서 15명이 모여서 용인예술단을 창단을 하신 거군요.
구술자 : 창단 연주회도 하고, 창단 연주회를 12월에 했죠. 용인문예회관에서요.

면담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초로 있는 일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겠네요.
구술자 : 예. 당시 공연장 자체가 너무 낙후돼 있었어요. 음향 시설도 없고 무대도 엄청 높

고, 의자는 그냥 일자로 쫙 돼 있고 이거는 공연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나중에 왜 공연장이 이런가 하고 물어봤어요. 지위 높은 사람들한테요. 그랬더니 거기가 원래 민방위 교육하던 장소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인예술단 연습장면

면담자 : 하긴 그때 당시에 다른 장르들도 공연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구술자 :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지더라구요.

면담자 : 용인예술단이 이제 공연을 하니까 국악계의 반응이라든가 용인 지역사회 문화예술계 반응은 어땠나요?
구술자 : 진짜 굉장했죠. 또 일단은 제가 맡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니까 전문단체로 급부상하면서 사회의 이슈거리가 됐죠.

면담자 :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 하나 때문에 거기가 전문 단체로 빛을 본 건가요?
구술자 : 일단은 그 당시에 전문단체라는 단어가 지역에 쓰여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단체가 생겼다는 거에 대한 것만으로도 굉장했고 또 제가 열심히 뛰었고.

면담자 : 어떻게 뛰신 건데요?
구술자 : 공연도 열심히 계속했지만 단체장을 맡다 보니 갑자기 제가 여기 지역 사람들을 잘 모른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역 언론과 고위급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교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급부상한 거죠. 갑자기 유명해졌죠.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용인에서 이제 관심이 많아진 거죠.

면담자 : 그렇게 해서 용인 예술단을 몇 년을 이끌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술자 : 용인예술단인데 개인 민간단체잖아요.

면담자 : 단장님이 그거 자비로 하신 건가요?
구술자 : 아니에요. 이제 공연 같은 거는 다 자발적으로. 학생들이니까 특별히 공연비 안 줘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거의 이게 자비로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 유명해졌나 봐요. 저는 그렇게 유명해졌다고는 몰랐는데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었는데 주변에서 좀 말이 있어서 그만뒀죠. 저는 미련없다, 욕심 없다. 맡겨진 거기 때문에 한 거다.

녹야국악관현악단 등 녹야 단체 창단 시작

면담자 :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구술자 : 해수로 2년하고 그만뒀죠. 난 누구하고 트러블 그런 게 싫어요. 저는 그리고 99년도에 한양대, 그때 전국적으로 대학교 국악과가, 가야금 졸업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악 동문 가야금 연주단들이 붐처럼 일어났었어요. 한양대학교도 가야금 전공자들이 많이 나와서 한양대 동문 가야금 연주단을 만들었죠. 제가 살림을 했죠. 후배 모으고 제가 악장을 맡아서.

면담자 :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한 거겠군요.
구술자 : 그렇지 않죠. 동문들은 전국이 다 가 있으니 이제 여러 곳에서 공연이 주어지는 대로 하고. 보통 단체라는 게 지원금 신청해서 하고 하니까. 초청 연주도 있고.

면담자 : 그러면 이제 용인에서는 예술단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구술자 : 용인예술단은 그후 관여 안 했죠.

면담자 : 이오규 선생님 다음에 한진 교수님이 잠깐 하셨죠?
구술자 : 얼마간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것 같더라고요.

면담자 : 그러게요. 그때 예술단이 딱 생겼을 때 지역에서는 기대하는 바나 국악계의 위상이 좀 높아졌다든가.

구술자 : 그렇죠. 국악계에서는 기대가 엄청 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대학에서 졸업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졸업자들을 어디가 수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학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면담자 : 주목을 받았다는 게 용인 지역사회에서 일단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구술자 :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악계에서는 용인에 용인예술단이 생기니까 이걸 이제 시립으로 시작을 하려는 것으로 다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대학에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시립화하는 과정이거든요.

면담자 : 당시가 그런 붐이 일던 때였었죠. 시립단체 많이 만들어지던 때였잖아요.

구술자 :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국악과는 전국에 이르고 있어요. 국립은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남원에 있고 그러는데 나머지 시립이 얼마나 돼요.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지? 여기 와서도 또 예술단 하느라 몇 년 가고. 일단 저는 한양동문가야금연주단을 대표님한테 주고 녹야국악단을 2002년도에 만들었어요.

면담자 : 드디어 녹야국악단을 만든 거군요.

구술자 : 네. 녹야 선생님을 기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2001년도부터 한양대, 중앙대, 예술학교 막 여러 군데 전국으로 대학 강의를 계속 다녔죠. 연주를 해도 내가 정작 전문가로서 지역에 어떤 공을 세우는 게 없잖아요. 내 밥벌이만 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녹야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을 특화시켜야 되겠다. 지역에 내놔야 되겠다.

면담자 : 녹야국악단은 어떻게 조직했나요?

구술자 : 국악단이라는 거는 악가무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가무를 전부 넣어서 창단을 하죠. 근데 녹야니까 녹야 선생님이 주로 하셨던 음악을 위주로, 향제 줄풍류, 그다음에 산조, 풍물. 아버님이 설장고를 잘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해서 악가무를 골고루 넣어가지고 창단을 하죠. 2회 때 용인시에서 지원금이 나왔었어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10년 넘게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정

기 연주를 했어요. 2003년도에는 시립관현악단을 만들려면 관현악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관현악단 아니어도 됐는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시립관현악단이 붐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국에 다 있는 거잖아요. 전국 단위 오디션을 했어요. 시립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단원들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시립이라고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냥 녹야관현악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양대 출신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용인에 터를 잡고 용인예술단도 창단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 전국에서 들어오긴 해도 한양대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군요.

구술자 : 관현악단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 전국 대학교와 각 단체에 공문을 띄워서 단원 모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원 오디션을 봐가지고 실력대로 뽑은 거죠. 2회 때는 지원석 지휘자를 썼죠.

면담자 : 2회 때서부터는 전국에 공문을 본 오디션으로?

구술자 : 80명 규모로 관현학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면담자 : 운영하기 힘들지 않았나요?

구술자 : 1년 정기 공연하고 나머지는 동문들이 다 대학 강사들이고 먹고 사니까. 녹야 선생님을 기리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국악계에서는 녹야 선생님에 대한 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일이니까 동참을 한 거예요. 가야금 전공자들 한 30명 만든 이유는 제가 1980년 후반부터 녹야회를 꾸려왔던 단원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옛날에 아버님 서류에 금우회가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50년대 국악계의 거장들이 다 모여 있는 금우회를 만드셨거든요. 아버님이 회장하시고. 이제는 아버님 유업을 받들어 내가 새로 조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똑같이 금우회로 할까 하다가 명칭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호를 넣어서 녹야회로 해서 80년대 후반부터 쭉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 모임이 아버님의 가야금 산조라든가 줄풍류 계속해 왔죠.

면담자 : 그러면 녹야회는 한 몇 명이나 됐었는데요.

구술자 : 거기가 한 30명 정도 됐어요.

면담자 : 녹야회가 녹야관현악단에 들어왔던 거군요.
구술자 : 녹야관현악단, 국악단 만들 때, 녹야회 회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을 많이 키우니까 한양대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녹야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동문연주단 들어오면서 자기네도 이 음악을 하니까 녹야회로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죠.

면담자 : 그러면은 지금도 녹야 국악관현악단에 그분들이 주축 멤버이시겠네요.
구술자 : 그렇죠. 지금은 김윤덕 향제 줄풍류 보존회도.

면담자 : 지금까지 계속 지원금이 나오는지요?
구술자 : 우리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단체가 생기면 시에서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때는 전문 단체도 없으니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넘게 가다 보니까 단체가 계속 많이 생기는데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저기 초청 공연이나 기획 공연, 국가에 신청하는 지원금 그런 게 많아요.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에도 신청하는 거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연을 계속 꾸려가고 있어요.

면담자 : 녹야국악관현악단 하고 영재단 등 여러개 있으시지 않으세요.
구술자 : 국악협회에도 계속 있었죠.

면담자 : 내려오셔서 국악협회에 들어가신 거군요.
구술자 : 그렇죠. 예술단 만들 때 예총 안에서 만든 거니까 국악협회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이사를 쭉 하다가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그쪽에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저를 처음부터 많이. 마침 김장호 문화원장님 계실 때 이사 추천을 하셔서 제가 문화원 이사로 가게 됐죠.

면담자 : 녹야 이름을 걸고 하는 게 그밖에 무엇이 있는거죠.
구술자 : 영재단이 있잖아요. 저희 딸도 가야금 전공을 했어요. 한예종 석사까지 했는데 제일 초등학교 가야금부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13년도에 새싹 가야금 연주단을 만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전공자들이 생기잖아요. 전공으로 잘하는 아이들을 영재단이라고 해야 되겠다. 10살 된 애들이 엄청 연주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녹야청소년가야금영재단을 창단하죠. 경기도 박물관에서 창단 공연을 했고,

면담자 : 그밖에 또 다른 것은 더 있는지요.
구술자 : 2013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국악을 보급하고 좀 많이 알리고 활성화 될 수 있게 할까.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기관 단체장들이 국악에 대한 인식을 깨우쳐야 할 것 아니에요. 좀 많이 봐야 되는데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찬 모임을 해서 아침에 세미나랑 국악 공연을 해서 그들의 인식을 좀 바꿔 주고.

면담자 : 제목이 무엇인가요?
구술자 : 녹야우리문화 조찬모임. 2013년 그때 한 것 같아요.

면담자 : 그럼 지금까지도 하시나요? 목적 달성은 되시는 거예요.
구술자 :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좋게 하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듣고 가면 국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거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속하는 거죠.

녹야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녹야전국예술제 등 다양한 녹야 사업 추진

면담자 : 기념사업회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구술자 : 기념사업회는 아주 오래됐죠. 녹야회 80년대 후반 그때 만들고 나서 그게 기념사업회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줄풍류 보존회를 만들어요.

면담자 : 산조보존회는 있는 건가요?
구술자 : 산조보존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영희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선생님 산조 보유자니까 선생님이 만드셨으니까 그건 내가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래서 김윤덕 향제 줄풍류 보존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독주회 할 때 제가 산조하고 줄 풍류는 꾸준히 하고 있죠.

면담자 : 그러면 줄풍류 보존회를 직접 만들어서 하시고 서울의 산조보존회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구술자 : 초반기에는 했죠.

면담자 : 그러면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서 이사장을 하시고 계시면서 활동 내용은요.

구술자 : 이제 녹야 기리는 일을 하는데 용인에 역할을 자꾸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용인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고 용인에 녹야를 많이 알려야 되고. 녹야로 인해서 용인에 사람이 많이 오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대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용인에 녹야라는 이름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야전국예술제를 국악, 서화, 사진 이런 걸로 해서 시작을 했죠. 올해 6회째 했죠.

면담자 :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술자 : 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낫죠. 전국에 고등학교 1등은 고등학교에장학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고 가야금 한 대 주고, 장르별로 상을 주고 상금 주고 상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작은 축제처럼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술제 형태로요.

면담자 : 녹야기념사업회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지금 무형문화재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구술자 : 전수관을 짓는 목적으로 저희가 내려왔잖아요. 장소를 만들어야지 후대에 물려주는 거잖아요. 저희 후원회장님이 땅을 기증하는 협약식을 맺었어요. 전수관 짓는 목적으로 기증을 하셨는데 땅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형문화재가 되면 땅이 있으면 거기에 전수관을 국가에서 지어주거든요.

면담자 : 부지가 한 몇 평 정도?
구술자 : 만 평 기증을 하셨는데.

면담자 : 엄청나네요.
구술자 : 사실 원삼 땅이거든요. 계획은 원삼에 사라져 가는 것들 많잖아요. 농촌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SK 들어서고 도시화 돼 가는 과정이니까. 용인 지역 것들로 민속 박물관 하면서 녹야전시관 같이 짓고 거기다 녹야 선생님이 공연자시니까 공연장도 짓고 하다 보면 사람들도 공부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죠.

면담자 :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용인 지역에 내려와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회랄까요,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 당시 문화가 너무 소외된 용인에 와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제 능력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용인에서 활용을 못한 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있죠.

면담자 : 녹야는 잘 진행됐나요?
구술자 : 아니죠. 녹야라는 이름을 여기 상품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혼자 이걸로 상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에요.

면담자 : 아버님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구술자 : 제가 아버님 탄생 100주년 기념식 때 문화재청 주최로 명인 오마주 해갖고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존회에서 초청받아 가서 공연하고 왔잖아요.

면담자 : 전주에서 하신 건가요?
구술자 : 네. 문화재청에서 명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릴 정도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기념 우표도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전국에 명인들 하고 서울대학교, 한예종 교수 하고 전국 교수들 해갖고 한 50여 분을 초청을 해서 용인에서 세미나까지 열었어요.

면담자 : 녹야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거죠.
구술자 : 우리나라 명인 1%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김윤덕류를 창조해낸 창조자잖아요. 국악계에서는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면담자 : 악보집은 내셨어요?
구술자 : 2001년도에 악보 한 번 냈죠.

면담자 : 녹야기념사업회에서 악보라든가 하시고 싶었던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구술자 :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악보 만드는 게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전수관을 지어 놓으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지 않겠어요.

면담자 : 연구원들이 있어서 그렇다는거죠?
구술자 : 그럼요. 그거는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악보를 하나 만들어냈죠. 대학에 강의를 2001년도부터 나가니까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김윤덕류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풍류를 하는 사람이니까 김윤덕 향제 줄풍류와 김윤덕 가야금 산조를 책 한 권을 냈고 대학 교재로 썼죠.

면담자 : 아버님이 악보 정리해 놓으신 거를 만들어낸 거군요.
구술자 :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 쓰는데 그게 이제 다 품절이 돼 갖고 복사해서 쓰나 봐요. 악보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악보 나온 게 없으니까. 김윤덕 악보 나온 게 없잖아요.

면담자 : 가야금 산조에 문외한이어서 외람된데 이게 어떤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는지요.
구술자 : 아니에요. 김윤덕류라는 것 자체는 그냥 백남준 이것처럼 그냥 고유 명사에요. 2001년도에 낸 건 짧은 산조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긴 산조 친필 악보를 내려고 다 정리를 해놨어요.

면담자 : 빠른 시간에 악보집이 빛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용인의 문학 발전을 일궈낸,

김종경 선생

1967년	용인출생
2020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박사)
1989년	서정 3세대 동인
1990년	용인문예운동협의회 창립(대표)
1994년 ~	성산신문사(현 용인신문사 전신/편집국장)
1995년	사진으로 보는 용인 근대화 100년 총괄 진행
1996년	용인문학회 창립(초대 회장)
1996년 ~	용인문학 발행인
1998년 ~	용인신문 발행인
2008년	계간 '불교문예' 시 등단
2011년 ~	용인신문사 대표이사
2011년	사진시집 '용인 오일장 사람들'(북앤스토리)/ 한국미술관초대 첫 개인전 '용인 오일장 사람들'
2016년	포토에세이 '독수리의 꿈'(북앤스토리)/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강화도 더리미 미술관, 하이원리조트 등 전국초청순회독수리전(2년)
2016년 ~	한국작가회의 회원/ 한국환경사진협회 초대작가
2017년	첫 창작시집 '기우뚱, 날다'(실천문학사)
2021년 ~	(사)한국환경사진협회 용인지회장

개요

- 구술자 : 김종경
- 면담자 : 박기정
- 1차 인터뷰
  - 일시 : 2022 11월 11일
  - 장소 : 용인신문사
- 2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4일
  - 장소 : 용인신문사
- 3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21일
  - 장소 : 용인신문사

요약정리

용인토박이 김종경 선생은 용인 지역의 문학을 일군 주역으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40여년을 변함없이 용인 향토문학의 맥을 굳건하게 지키는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황무지나 다름없던 1980년대의 용인군 시절, 문화예술 태동기 때인 20대 초반의 김종경 선생은 동인 카페를 중심으로 하는 시 동인 서정 3세대에 합류해 용인 시문학 원류에 함께 하면서 동인 시집 2집과 마지막 3집을 함께 했다.

직장 등의 이유로 서정 3세대가 해체된 1990년대 초, 용인 최초이자 유일한 문예운동 단체인 용인문예운동협의회를 새롭게 조직해 이끌면서 사회참여적 시작(詩作) 활동과 함께 진보적 문화예술 단체 활동으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깨어있는 청년들의 문예단체 용인문예운동협의회는 기관지 '늘 푸른 소리'를 3호까지 발행했고, 소시집 등으로 족적을 남겼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용인에 내려와 활동하고 있던 박범신 등 중앙문단 작가들을 수소문해 접하면서 이들을 지역문학 현장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하게 된다. 용인 지역 토박이로서 지역 문학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치열한 실천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종경 선생은 서정 3세대와 용인문예운동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용인문학회를 창립하게 된다. 김종경 대표는 당시 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 창립 건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의 격론의 장을 마련해 마침내 순수한 향토문학단체로 활동하자는 데 대의가 모여 독립적 자생 향토문학 단체인 '용인문학회'를 창립,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김종경 선생은 동인지 '용인문학' 발행인으로 문예지 발간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겼다. 현재 '용인문학'은 1997년 창간호 이후 2009년부터는 1년에 2차례 상하반기로 책을 내는 반연간지 형태로 하여 통권 제 39호를 발행하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26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결간이 없으며 인터넷서점을 통해 전국에 판매할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종합문예지로서 용인의 대표적 문학지이자 자랑으로 자리하고 있다.

김종경 선생은 불교문예로 등단한 시인이며 (사)환경사진협회 초대작가 및 환경사진협회 용인지회장을 맡고 있다. 김종경 선생은 언론인으로, 문학인으로, 사진작가로 지역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출생과 어린시절

면담자 : 용인지역 현대 문학의 뿌리로 용인에 문학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가꿔 오늘에 이르게 한 중심에 서 있는 김종경 용인문학 발행인을 통해 용인지역의 문학 태동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용인의 지역 문학이 성장 발전해오는 과정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용인신문사 대표를 맡고 있는 언론인이면서 시인, 사진작가 등으로 활동하는 개인적인 창작 활동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 출생하셨는지요?

구술자 : 1967년에 용인 운학리에서 출생했습니다.

면담자 : 용인 토박이시군요.

구술자 : 네, 탯줄을 자른 태어나고 자란 고향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면담자 : 시인의 고향 마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 어릴 땐 농촌 마을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완전한 두메산골이었어요. 어렸을 때 동네 길이 작은 손수레 하나가 다닐 수 있는 비포장 시골길이었죠. 자동차가 수없이 드나드는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죠. 어린 저로서는 신작로까지 나가는 동네 소로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면담자 : 비포장, 신작로라는 이야기가 선생님의 연세에는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리네요.

구술자 : 잘 믿어지지 않을 테지만 저는 등잔불 밑에서 한글을 배웠어요. 전깃불이 저희 동네에는 엄청 늦게 들어왔거든요. 아마 새마을운동이 한참 지난 후에야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야말로 무공해 청정지역이었지요. 김해김씨 집성촌이어서 농사일이 바쁠 땐 서로 도와 공동으로 일하고 설과 추석 명절이나 각종 제사를 함께 지내는 4촌, 8촌에 이르는 혈족 관계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같은 경험이 제 시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담자 : 자연환경이 시인을 잉태한 것 같네요. 들어보니 정말 산속 마을이었네요. 지금이야 각광 받는 전원주택지이지만 당시는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보입니다.

구술자 : 까까머리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을 잡고 20리 길을 걸어서 난생 처음 오일장에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산속 마을에서는 동네 어른들과 몇몇 친구들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오일장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놀랬었죠. 저한테는 온갖 풍물과 재밌고 신기한 구경거리가 펼쳐지던 신세계였어요.

면담자 : 어린시절부터 시적 감수성이 뛰어나셨던 건 아닌가요. 무덤덤한 아이들은 신세계를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시의 소재라고 할까요. 오일장은 유년의 추억이 서린 곳이겠네요.

구술자 : 유년만이 아니고 요즘도 오일장은 제가 자주 찾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화가 후배나 건설하는 죽마고우하고 막걸리 한잔하러 일부러 장터에 가서 장꾼들하고 어울려 술잔을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단골로 들리던 국수집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올 때도 있구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잡곡을 팔아요. 잡곡 한 봉지를 사들고 올 때도 있죠. 용인 토박이니 제가 용인에 살아온 세월만큼 오일장은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셈이죠. 소설가 고 송영 선생님은 제가 모시고 오일장에서 순대와 막걸리 한잔을 대접했던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면담자 : 말씀이 모두 한 편의 문학작품 같네요. 그런 내용들이 작품으로 많이 남았나요.

구술자 : 아버지가 오일장에 가서 공책이랑 과자를 사다 주시던 기억을 담은 '오일장' 시도 있고 연정이네 포장마차에서 추억과 상념을 떠올리며 쓴 '장날 풍경' 같은 시도 있어요. 시뿐만 아니라 제가 사진도 찍는데, 오일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용인 오일장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와 사진을 엮어 사진시집을 내기도 했어요.

면담자 : '용인 오일장 사람들'은 오일장을 다룬 용인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무이한 작품집 같은데요.

구술자 : 그때가 2011년이었으니 벌써 10년 세월이 넘었네요. 꽤 오래전 일인데 그때 오일장 사진을 중심으로 짧은 단상과 시 몇 편을 함께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어요. 당

시 구성 마북동에 위치한 한국미술관 김윤순 관장님이 생존해 계셨을 땐데, 사진전을 열어주시겠다고 제안해 해주셔서 '용인 오일장 사람들 초대전'을 한국미술관에서 개최했었죠. 그것이 저의 첫 개인 사진전이었어요.

면담자 : 오일장 풍경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소중한 기록이자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작업은 토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마찬가지로 지역 문학도 지역 토박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는 언제부터 쓰신 건가요?

구술자 : 창작시는 고등학교 때부터 습작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당시 문예반을 맡았던 국어 교사 송상욱 시인의 칭찬에 들뜨기도 했었죠. 원래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태성중학교 시절에 이강수 선생님이 지도하는 미술반에서 그림을 그렸었죠. 그런데 어느날 저희 아버지가 이강수 선생님을 몰래 만나서 제가 미술하는 것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누군가가 미술을 가르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엄포를 놓았던 모양이에요. 그 후로 저는 미술에 대한 꿈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돈이 안들어가는 문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면담자 : 지금 들어보니 예술적 재능을 다방면으로 타고나신 것 같으세요. 문학만이 아니라 사진이나 미술까지 말이죠. 계속 미술을 하셨다면 지금쯤 유명한 화가가 돼 계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림도 잘 그리셨을 것 같은데 대회 같은데 나가서 상을 타신 적도 있나요?

구술자 : 학창 시절에 흔히 있던 미술대회죠. 별로 대단한 대회는 아니에요. 저는 산업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해서 당시 서울대 미대를 꿈꿨죠.

면담자 : 미술 재능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으시던 중에 그만두게 돼 아쉬움도 크셨을 것 같아요. 서예도 하시고,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다고 들었는데.
구술자 : 학창 시절에 길을 찾아가는 과정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겪을 수 있는 숱한 방황 같은 거겠죠.

면담자 :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죠. 그러면 지금은 문학과 사진 쪽 활동만 하고 계신 건가요?
구술자 : 요새 동화와 동시도 쓰고 있습니다.

서정 3세대 동인 활동 및 용인 최초의 문예단체 '용인문예운동협의회' 조직

면담자 : 시인이자 문예반 선생님이 칭찬을 하셨으면 꽤 잘 쓰셨을텐데, 학창 시절에 썼던 시를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구술자 : 당시 저는 참여적인 시를 썼어요. 지금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보다 직설적이고 강한 면이 있었다고 봐요. 당시 80년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국 정치사가 쓰여지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컸었으니까요.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탄생한 제5공화국 시절에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지금은 전설같은 이야기지만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학내시위를 주동하다가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학교 측에서 보면 문제 학생이었죠.
그때 용인지역에 진보적 정치운동 단체가 있었고, 나 역시 짧은 시간이나마 그들과 함께 한 적이 있어요. 그러던 중 별도의 조직에서 전국노동자문예조직 건설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노동자 문예운동보다 '지역문예운동'의 필요성에 갈급했기 때문에 고향인 용인에서 대중 속에 뿌리내리는 진보문예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중심이 돼 '용인문예운동협의회'라는 용인지역 최초의 문예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면담자 : 용인문예운동협의회가 용인 지역 최초의 문예단체인가요?
구술자 : 조직을 갖춘 최초의 문예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전에 서정 3세대라는

시동인이 결성돼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주로 서정시를 쓰는 동인이었는데 임준규씨가 하는 동인카페에 모여서 활동을 했어요. 지역 사회 선후배 관계였던 동인 멤버들과의 활동이 저에게는 진보적 단체 외에 용인이라는 지역사회 속에서 본격적 시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네트워크를 확장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앞서 용인문화원에서 용구문화라는 잡지가 용인지역 예술가들의 발표 창구 역할을 했어요. 그때는 용인지역이 문화예술의 황무지나 다름 없었어요. 교지 외에는 문예 발표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용구문화는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면담자 :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 전에 용인의 근대 시대나, 앞선 시대의 문인이나 문학 활동은 없었던 것인가요?

구술자 : 근대 이전에 고려시대에 '도원가'를 남긴 진화, '단심가'의 정몽주, 절명시를 남긴 조광조, '홍길동전'을 쓴 허균, 동창이 밝았느냐 시조를 남긴 남구만, 읍취헌 박은, 서파 유희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 무용가 최승희의 남편인 안막이 원삼면 문촌리 출신인데 지금은 안성으로 편입됐죠. 노작 홍사용도 기흥구 농서리 용수골 출신이죠. 그밖에도 용인문학 기획특집에 실린 묘소 및 시비가 있는 분들까지 다 언급하기 어려운 많은 작가들이 용인과 인연이 있습니다. 용인지역 최초의 문학단체로는 일제강점기부터 용인시와 안성시 문인들이 함께 결성했던 백구시단이 알려져 있어요. 향토사학자였던 박용익 선생이나 용인의 원로들로부터 들었던 얘기죠. 백구시단은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 사거리에 있던 삼일당 한약방이 근거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곳에 모여서 시를 짓거나 노래와 창을 했다고 하지만 작가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면담자 : 그러면 용구문화가 나오기 전에는 문예 지망생들은 어떻게 활동을 한건가요? 아예 활동을 하지 못한건가요?

구술자 : 용구문화가 나온게 1984년도였어요. 그 전에는 지역에서 문예 지망생들이 작품을 발표할 책자조차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문예 지망생은 중앙문단에 들어가 활동을 해야 했는데 쉽지가 않았겠죠. 모두가 목말라 하던 때에 계간지 용구문화가 나왔으니 가뭄에 단비처럼 당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지면에 작품을 발표하게 됐어요.

당시는 출판이 대중화되기 전이었고, 그러던 차에 용구문화는 문화예술 활동의

구심점이 됐던 것이죠. 용구문단, 꽃꽂이 등의 코너가 운영되면서 그렇게 몇 회 진행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동호인들이 분야별로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그림전, 사진전, 서예전, 꽃꽂이전을 하게 됐어요. 서정 3세대도 용구문화 지면에 시를 발표하던 문학 동호인들이 모인 거에요.
1989년도 말에 '서정 3세대'라는 타이틀로 결성된 거죠. 서정 3세대는 박상돈, 임준규, 이종대, 옥빈(장영옥), 노영미가 원년 멤버로 첫 동인시집 '옷을 벗는 슬픔'을 발간했고, 그 후 저(김종경)와 박경화, 박수자가 합류해 동인 소시집과 2시집을 발간했어요. 일부 회원들이 직장을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바람에 3시집까지 낸 후 자연스럽게 활동이 중단 됐어요. 다행스럽게 제가 주축이 돼 1980년대 후반에 당시 신세대로 불리는 용인문예운동협의회(용문협)라는 단체가 조직됐지요.

면담자 : 용인문예운동협의회는 협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나요?
구술자 : 김량장동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제가 주도를 하면서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무실 임대료를 책임졌죠. 용인문예운동협의회 활동이 청년들의 지역문화운동으로 소문이 나면서 당시 지역신문인 경기일보에도 게재가 됐어요. 그런 움직임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자극이 돼 용인지역에도 문화예술 움직임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담자 : 용인문예운동협의회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구술자 : 용문협이 기관지를 겸한 문예지 '늘푸른 소리'를 발간했어요. 용문협 문학분과 회원들이 민중문학, 사회 비판적인 참여시를 썼어요. 그리고 저희가 93년에 통권 3호를 발행하면서 특집으로 '용인지역 문화예술인식을 듣는다'를 실었어요. 그때 문학 부문은 박상돈 선배가 '용인지역 문화에 대한 소고'를 실었어요. 미술분야에서는 '미술은 삶의 표현이다'(양혜영)를, 음악은 '지역문화와 음악발전을 위한 제언'(이제억), 극 분야는 '용인의 극예술 발전을 위하 제언'(황인환)을, 언론은 '대중문화의 비판의식과 지방정치 및 지역신문의 책임'(김용석)을 실었어요. 당시는 지역의 예술에 대한 인식을 깨우기 위한 활동을 하던 시절이었다고 봐요.

면담자 : 그러면 용인문예운동협의회는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구술자 : 처음에는 침체된 지역문화예술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활동으로 기대를 모았어요. 그러나 점차 재정난과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학

분과 회원들은 '글패이물'이라는 시동인까지 만들어 소시집을 발간했어요. '늘푸른 소리' 3호에는 당시 태성고교 금병윤 국어교사가 소시집에 실린 작품을 강평하기도 했었죠. 시동인 '서정 3세대'와 '글패이물'이 바로 용인문학회의 전신이 된 셈이죠.

면담자 : 열악한 환경에서도 문예지나 동인 소시집을 만드는 등 활동이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용인의 현대 문학의 뿌리를 만들어낸 인물이시네요.

구술자 : 아니에요. 저만의 노력이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서정 3세대'와 '글패이물'의 활동 성과물이래야 시집 몇 권과 마스터 인쇄 수준의 어설픈 소시집이 전부였지만 회원들의 열정은 엄청났죠. 그것도 지역 내 카페나 서점, 혹은 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 만든 것들이에요. 지금처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문학 활동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야말로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용문협은 수년 동안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320-4번지 일원 옥탑방과 김량장리 일대 지하사무실을 전전하면서 무상 임대 또는 월세를 내며 유지했어요. 그때는 시 승격하기 전이라 용인군 시절이었어요. 재정 부분이 문제였고, 개인적으로는 난생 처음 건물 보증금 명목의 금융권 부채를 떠안아야 했지만 아름답던 청춘의 시절이었죠. 그렇게 수년이 흘러가면서 용문협은 자연스럽게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어요.

용인문학회 창립

면담자 : 젊은 시절에 치열하게 문학운동을 펼치셨네요. 그런 치열함과 열정이 오늘날 용인 지역 문학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인문학회가 창립하게 되나요?

구술자 : 그렇게 되는 거죠. 용문협은 자연스럽게 해체의 길로 들어섰고, 이에 대해 저는 책임 의식과 아쉬움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용문협 문학분과 멤버들을 중심으로 대중문학단체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행히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문학인들을 수소문해

서 첫 만남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때가 95년 말에서 96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면담자 :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용인을 대표하는 자생적 향토문학단체인 용인문학회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구술자 : 현 김량장동 롯데시네마 건물 건너편 지하에 '사랑방'이라는, 제법 깨끗한 다방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김종성 소설가, 조선희 시인, 그리고 나를 비롯한 7~8명의 문청들이 모였어요. 저는 이때 처음 지역 문학단체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무 탈 없이 진행될 것 같았던 것이 첫 만남부터 의견 충돌을 빚었어요.

기성 작가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중앙단위의 문학단체 가입을 선호했고, 거기서부터 의견충돌이 생겨났던 것이죠. 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 소설분과 간사를 지냈던 김종성 소설가는 한국문인협회 소속이었던 조선희 시인에게 "문인협회 쪽을 보고는 오줌도 안눈다"는, 지금 생각해도 다소 무례(?)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첫 모임부터 깨지고 말았죠.(하하하)

김종성 선생은 고려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현재도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며 용인문학회 고문을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문인협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처음부터 문인협회 인사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조선희 시인은 합류하지 않았어요. 이후 문학단체를 만들자는 저의 제안에 동의한 시동인 '서정3세대'와 '글패이물'을 중심으로 '용인문학회' 창립을 결의하게 됐습니다. 첫 모임 탓인지 용인문학회는 중앙의 어느 문학단체에도 소속되지 않는 순수 향토문학단체를 표방하며 1996년에 창립하게 됐던 거에요.

면담자 : 용인 예총도 비슷한 시기에 창립하지 않았나요?

구술자 : 용인문학회가 창립된 1996년은 용인시 승격의 해이기도 합니다. 예총은 2년후에 창립됐죠. 95년부터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한편으로는 용인 서부지역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를 축으로 급속한 난개발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죠. 택지개발은 대규모 인구 유입을 뜻합니다. 이때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산재해 살던 기성 문인들이 대거 용인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은 용인시 역사에 있어 여러모로 중차대한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인구 110만여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한 지금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지만 당시 인구 30

만 명을 돌파하면서 외형적으로 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신 문화를 이끌어 갈 문화예술 분야 인프라가 너무 낙후돼 있었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문 문화예술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당시 분위기에서 문화예술계와 정치권 인사들이 중심이 돼 한국예술인총연합 용인지부(이하 용인예총)를 만들게 됐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당시 윤병희 시장과 같은 여당 인사였던 경기도의회 홍영기 의원이 출마했어요. 선출되지는 못했지만 예총 회장이 도의원이 되면 예총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사실 저 역시도 당시에 다양한 문학단체 형태를 모색 하면서 (사)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 준비모임을 꾸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참가자들의 격론 끝에 순수 지역문학단체인 '용인문학회' 창립에 뜻을 모아 용인문학회를 창립하게 된거죠. 용인예총은 용인문학회 출범 2년 후 창립됐고, 용인예총이 창립되면서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도 탄생했죠.

면담자 : 그렇다면 용인문학회의 정체성이라면?

구술자 : 지금은 향토문학이라는 말이 다소 촌스럽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순수한 대중문학운동단체를 표방했지요. 용인 고유의 지역문학단체 활동을 표방한 것이죠. 당시 용인문학회 일부 회원이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가 창립되면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면담자 : 그때가 90년대 중반인데도 용인지역은 여전히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네요. 그런 곳에 용인문학회는 용인지역 문학 움직임이 있던 초창기에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지역 문예운동가들이 모여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엿한 단체를 창립을 하게 된거군요.

구술자 : 그때 서정 3세대에서 활동했던 박상돈, 임준규, 옥빈 등이 함께 참여했으나 서로 바쁘고 직장 관계로 이사를 가게 되는 등 변동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문학회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죠.

저는 창립 제안자로 초대 회장을 맡게 됐어요. 부회장에 수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영숙씨를, 그리고 용문협 출신의 젊은 친구들을 사무국장에 앉혔어요. 이듬해에 용인문학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상임고문에 소설가 김종성, 고문에는 당시 명지대 교수였던 박범신 작가와 강남대 홍순석 교수를 추대했어요. 박범신

작가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문예창작과 교수로 용인에 10년을 거주하면서 지역 내 문인들과 교류했었죠. 용인문학회에서는 특강을, 용인문학회 창립 전에는 성산신문사(현 용인신문사)에서 주관했던 학생백일장 심사위원을 맡아 봉사하는 등 당시 가깝게 지냈죠.

면담자 : 중앙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소설가들이 함께 하는 단체의 면모를 갖추게 된건가요?

구술자 : 저는 지역문학 단체이지만 지역에만 국한하는 좁은 틀에 매이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용인문학회를 이끌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보적 문예단체도 이끌어봤고, 서정적 동호인 단체에서도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단체보다는 양쪽을 다 포용하는 단체야말로 생명력이 있고 막힘없는 창작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용인에 거주하던 중앙 작가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면담자 : 아무리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해도 유명 소설가들을 영입해서 함께 활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이 그 일을 하신 거겠죠?

구술자 : 당시 지역신문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 인사들의 만남이 보다 자유로왔다고 할 수 있죠.

면담자 :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에 영입하는 일은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용인문학회는 언제 어디에서 창립했나요?

구술자 : 1996년에 창립했어요. 창립 기념일을 5월 18일로 정했어요.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한 의미도 있었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을 잊지 말자는 의도도 있었죠. 용인문학회 이름으로 창립과 함께 마련 한 첫 번째 사무실은 구 용인시청(현 처인구청) 인근 김량장동 일원 3~4층 건물 중 1층이었는데 조촐한 창립식과 현판식을 가졌어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새로운 공간을 물색하게 됐죠.

면담자 : 새로운 공간은 어디에 얻게 된건가요. 초창기에 정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컸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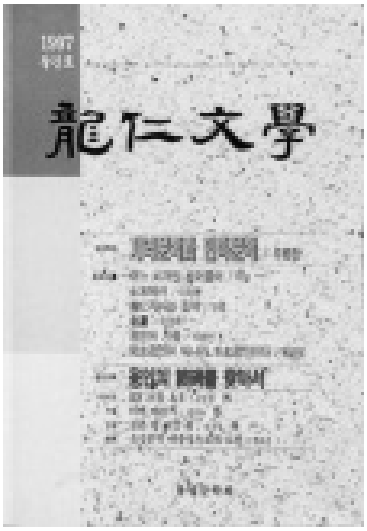
구술자 : 당시 저의 활동을 늘 지켜보고 있던 양승학 전 시의장의 도움으로 현 용인문학회가 입주해 있는 처인구 김량장동 335-7번지 성문빌딩 지하 1층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양승학 의원이 제가 문학회 공간 문제로 상의 하자 가교 역할을 해주신 거였어요. 당시 독서실이 있었던 성문빌딩의 건물주인 허원행 선배는 창고처

럼 비어있던 현재의 문학회 사무실을 조건 없이 선뜻 내주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비 명목의 실비만 내고 사실상 20여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원행 선배야말로 용인문학회 창립 26년사의 일등 공신 중 한 분임에 틀림 없죠.

전국적인 종합문예지로 성장한 '용인문학'

면담자 : 용인문학회는 용인문학회 회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용인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문학회가 발간하는 용인문학지가 전국 지역 문학단체의 성공 모델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창간호는 언제 나왔나요?

구술자 : 창립을 1996년에 했고 준비 기간을 거쳐 1997년에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용인문학회를 창립한 후에 문예지 발간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간 준비호 2호를 먼저 낸 후에 '용인문학'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용인지역 향토문학사에 있어서 대중적 문예지로 제대로 된 첫 작품을 탄생시키고 싶었습니다.



용인문학 창간호(1997년)와 용인문학 창간호를 발간하기 전 2호까지 발간한 창간 준비호

그때 용인문학지는 기존 용인 지역의 향토 문예지의 틀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세련된 디자인과 편집, 충실한 내용으로 종합문예지의 형태를 완벽하게 구비하고서 창간 됐습니다. 그 형태는 오늘날까지 크게 벗어남 없이 다소의 변화를 주면서 꾸준하게 유지해오는 틀이 됐죠. 창간호 특집을 지역문학의 정체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도종환 시인의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이라는 주제의 글을 실었는데 이는 용인문학의 향후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봅니다.

'지역 시비(詩碑)를 찾아서'를 창간 특집으로 다뤘는데 이는 용인지역에 무수히 잠들어 있는 선배 시인, 작가들의 시비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록한 특집물이었어요. 지역 문학 콘텐츠 자원의 발굴이라는 의미와 함께 지역과 연고를 맺고 있는 선배 작가들을 계승하는 지역 문학단체로서, 지역 문학지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창간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면담자 : 용인문학회 운영과 용인문학 발간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요?

구술자 : 용인문학회 운영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는 자생적 단체입니다. 용인문학지는 창간 이래 단 한번도 거른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회원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임원진의 노력이 큰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애쓴 결과입니다. 용인문학지는 회비와 용인시의 지원금 등으로 안정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자체 편집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호회 속성상 임원진이 바뀌면 휴간되거나 폐간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용인문학회는 회장이 바뀌어도 발행인을 제가 지속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발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생문학단체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동인지가 발간되다 폐간되는 등 자생력을 갖추기가 힘든 여건이지만, 용인문학회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전혀 손색없는 종합문예지를 선보이며 자생문학단체의 성공 모델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모두가 자부심이 큽니다.

면담자 : 선생님이 처음부터 용인문학지에 대한 끈을 단단하게 잡고 계시는군요. 용인문학지는 일 년에 두 번 나온다고 하는데요. 남들은 한 번 내는 것도 버거운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술자 : 2009년부터 일 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내는 반연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의지와 노력, 쉬지 않는 창작 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면담자 : 편집 일을 추진하는 분들의 노고가 크실텐데요.

구술자 :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매 호수의 기획과 특집의 방향을 잡고, 초대작가 선정 등에 들어갈 내용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본분으로 여겨 최선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드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면담자 : 용인문학의 내용물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구술자 : 지금까지 수많은 내용이 실렸죠. 용인문학 창간호부터 가장 최근에 발간된 39호까지 목차를 훑어보면 용인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어요. 용인을 주제로 삼거나 용인을 소재로 한 기획특집, 시 · 수필 · 소설 · 평론 등 향토색 짙은 내용물을 통해 용인을 문학으로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용인의 중심을 흐르는 김량천이나 용인정, 혹은 내어둔 마을처럼 고유한 지역명 등 지역과 얽힌 시는 주로 용인지역 토박이 시인에게서 찾아지죠.

초대시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용인을 소재로 한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용인 지나는 길에'를 쓴 민영 선생의 글을 비롯해 고은의 '용인에서', 박범신의 '용인의 가을' 같은 작품이 있죠. 이런 것이 용인 문학계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물로 용인을 소재로 한 시 작업에 회원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용인의 경전철 역 하나하나마다 시인들이 시를 한편씩 쓴다거나, 용인 8경에 대한 시를 쓰기도 하고요. 용인지역의 아동문학가들의 작품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용인에 살고있는 다문화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시와 수필을 정성껏 게재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의 문학 저변 확대와 지역 문인들과 함께 글쓰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죠.

면담자 : 용인문학지를 살펴보면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보이던데요.

구술자 : 용인문학지는 본질은 지역지이지만 전국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읽을거리가 풍성하고 중앙 문단의 작품 흐름도 보여주는 전국지라고 할 수 있죠. 지역에만 매몰돼 있지 않고 폭넓은 종합문예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담자 : 판매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1년에 두 번씩 책을 내고 이를 전국에 판매를 한다는 것은 책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 때문인가요?

구술자 : 회원들의 용인문학지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크죠.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작품에 임하고 용인문학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판매보다는 홍보를 위한 것이죠.

면담자 : 약천 남구만문학제와 남구만 신인상 제도를 시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구술자 : 용인문학회는 1998년 창립 3주년 때부터 전국적인 신인상 제도를 실시했어요. 또 2003년에는 '제 1회 용인문학의 밤'을 처음 시행했는데 2016년부터 용인문학의 밤을 '약천 남구만문학제'로 바꾸어 의령남씨 문중 후원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남구만 선생은 생전에 900여 수의 시를 지어 문학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분이죠. 용인에 낙향해 살면서 국민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를 쓰시고 용인을 시의 고장으로 기억하게 하셨어요. 축제를 통해 남구만 선생을 기리고 각종 문학 심포지움 및 창작시 낭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용인의 문학과 용인문학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신인상 제도도 2018년부터 '남구만 신인문학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금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지역 문학단체가 시행하는 저력 있는 작가 등용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면담자 : 용인문학회는 문학제 말고도 다양하고 알찬 사업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술자 : 많지요. 그중에 용인문학회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2007년 개강한 용인문학 아카데미 시창작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김윤배 시인이 책임교수를 맡아 1, 2학기로 나눠 진행하는데 한 학기가 16주 강좌로 짜여져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

제 1회 용인시문학의 밤 행사에서 김종경 대표가 인사말 하는 모습. 장소는 구성읍 마북동 한국미술관 야외전시장. 우측은 약천 남구만문학제 및 남구만신인문학상 시상식 행사

습니다. 작가의 산실이어서 해마다 등단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상황에도 합평반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시 창작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25기 시창작반은 비대면 ZOOM 수업으로 진행해 창작집을 발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면담자 : 그동안 실시한 사업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시겠죠. 말씀을 듣다 보니 용인문학회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용인을 대표하는 수준 높은 문학단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술자 : 용인문학회는 단순하게 개인의 문학 활동만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을 견인해 내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용인문학 순례길을 걷다'를 기획특집으로 2회 연재하기도 했는데, 용인에는 용인공원묘원, 천주교공원묘원 등에 잠들어 있는 시인 문학인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를 일일이 발품을 팔아 정리를 했습니다. 용인시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지역 문학 자원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한 것인데, 용인문학회는 이같은 중요한 자원을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니 용인문학회가 일체 정리를 소임으로 여긴 것인데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향후 이같은 자원을 자체적으로 지역 문학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자원으로 용인 문학순례길을 만든다면 중요한 문학 자원이 문화관광콘텐츠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 문학이 가야할 길을 심포지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용인문학회 회원 모두가 보다 성숙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의지를 새롭게 갖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면담자 : 용인문학회 회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구술자 : 등단, 비등단 작가가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 50여명의 정회원과 500여명의 온라인 회원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월례회의를 통해 문학회 안건과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모인 것은 물론 은퇴자와 문청, 장애우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회원 각자의 문학적 성취는 물론 다문화, 복지시설, 도시 빈민 등 소외된 곳을 두루두루 살펴 문학으로 환기시키는 사회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교문예로 시 등단 및 생태사진 독수리 사진작가 타이틀

계간 '불교문예' 시 당선 시상식 후 단체사진. 뒷줄 중앙이 김종경 선생.

면담자 : 너무 지역의 문학사에 대해서만 여쭤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 문학 성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구술자 : 저는 불혹의 나이 2008년에 계간 '불교문예'를 통해 늦은 등단을 했습니다. 시집도 늦어져 2017년 11월에 첫 시집 '기우뚱, 날다'를 실천문학사에서 펴냈습니다. 물론 앞서 개인 소시집과 동인시집, 포토에세이 등은 다양하게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중 전국순회사진전을 함께 했던 포토에세이 '독수리의 꿈'(북앤스토리, 2016)은 여전히 작업 테마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대로 동시와 동화창작 등 아동문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집 최종 마무리 단계로 올해 안에 두 번째 창작시집을 펴내게 됩니다.

면담자 : 선생님의 시의 테마는 무엇인지요?

구술자 : 저는 제 삶의 주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이 첫 시집의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고은 선생은 제가 향토 용인의 삶을 자신의 운명으로 삼는 시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집 여기저기에서 생태위기 현상이나 소외현상, 사회의 회색화를 구수한 익살이나 직정(直情)으로 고발한다고 하셨어요.

면담자 : 예를 들자면 어떤 시를 의미하는 건가요?

구술자 : 무엇보다 용인은 불과 20~30년만에 원주민보다 이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연마을이 사라지면서 토착 세력들까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목격했죠. 또 수백 년동안 내려오던 전통과 관습이 해체됐어요. 새롭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온 토착민들의 정서와 원주민 중심의 마을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붕괴돼 갔고 아파트와

동천동 하나문고에서 가진 '동네책방 작가와의 만남' : 김종경 작가 초청 시집 '기우뚱, 날다' 행사 후 기념촬영.

전원주택 단지에서 만들어진 신공동체는 전혀 다른 시민사회로 거듭나는 중이죠. 도시화를 통한 삶의 질 변화와 도시의 가치 평가 기준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를 좁은 의미의 신공동체 디아스포라라고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사회, 문화적 지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농촌 마을이나 토착민의 정서와는 심리적 거리감부터 멀어졌고 전혀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개발 과도기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바로 문학의 기능이고 이는 창작의 실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창작시 중에 일부는 농촌 마을이 도시화를 겪는 과정을 보고 느낀 기록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비판 의식을 반영한 리얼리스트이면서도 인간 본연의 서정성이나 휴머니즘을 결합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들이 인간 소외가 심해지고 있는 21세기 상황에서 서정시의 가치가 크다고 보는 입장에 저 역시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에 대한 난개발의 상실감이나 개발로 파괴돼 가는 대자연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서정성과 휴머니즘을 결부시켜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유목 시대의 서정적 가치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통 리얼리즘 참여시나 민중시의 고발을 위한 고발, 비판을 위한 비판 보다는 사람과 생태, 환경 등을 소재로 하는 범 휴머니즘 차원의 서정적 리얼리즘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언어 의식과 서정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면담자 : 어린 시절 대자연의 품에서 시적 소양을 키웠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실로 가슴 아픈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어린시절은 선생님에게 서정성과 휴머니즘이 자리잡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문학운동을 하면서 참여적 시를 써오셨던 선생님에게 용인의 도시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불합리한 현장을 시로 쓰는 것은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리 선생님의 시집을 보았는데요, 선생님의 시는 사회참여적이면서도 서정성과 인간성이 결합돼 독자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다고 평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절망스럽지만 절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그 희망이 또다시 절망이 될지라도 또다시 딛고 일어서야 하는 마치 시지프스와도 같은 처절한 인간의 본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선생님은 문단의 인맥이 매우 두터우신 것 같으세요.

구술자 :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여기는 평소의 생활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비단 문단만이 아니라 삶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문학에 있어서 저는 제 인연을 혹 필요하다면 용인지역 문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초청 강좌 등의 기회를 통해서 창작활동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작가회의 인물들과 교류가 있다 보니 용인문학회 회원 가운데 한국작가회의에 속해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면담자 : 선생님은 독수리 사진 작가로서 유명하시잖아요. 국내에서 독수리를 그토록 정교하게 촬영한 포토에세이 사진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술자 : 그래서 그런지 제 개인전 말고도 '독수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2년간 전국 순회 초청 사진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면담자 : 전국순회전을 스스로 기획해서 하신 건가요?

구술자 : 아니에요. 국립과학관 같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대전을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국립대구과학관에서 두 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세 달 이런 식으로요. 강화도 더리미 미술관이나 하이원리조트, 내셔널지오그라피 한국판 등 2년동안 다양한 곳에서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면담자 : 어떻게 그렇게 독수리 생태를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었는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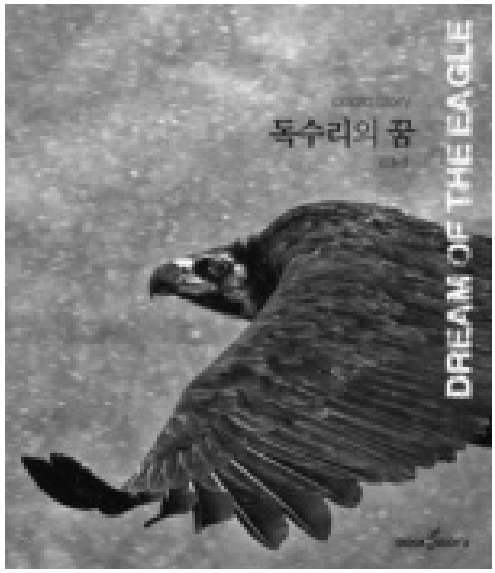
구술자 : 세 달 가까이 출근부에 도장을 찍듯 거의 매일 독수리 사진을 찍기 위해 독수리가 있는 백암면 현장을 찾아가 촬영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차례씩 간 적이 많습니다.

면담자 : 엄청난 끈기가 필요했던 작업이었군요. 그런데 매일, 그것도 몇차례씩 찾아가야 하는 이유라도 있었는지요?

구술자 : 어느 날은 독수리가 하나도 없는 날도 있죠. 독수리가 항상 기다려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항상 볼 수 있는 새가 아니잖아요. 멸종위기의 천연기념물로 철새거든요. 다양한 생태를 촬영하기 위해서 독수리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죠.

면담자 : 독수리가 무섭지 않으셨는지요?
구술자 : 근접 촬영을 할 때는 무서웠죠. 워낙에 크니까요. 날개를 펼치면 2m 80cm~2m 90cm가 되기 때문에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찍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대부분 용인에서 촬영했어요.



포토에세이 '독수리의 꿈'

면담자 : 거의 3m네요. 독수리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나요?
구술자 : 어느날 백암에 독수리가 날아왔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무작정 백암쪽으로 가서 들판을 헤맸죠. 멀리 독수리 떼가 보였어요. 가창리 쪽에 축산농가 주변에 날아들었던 것이었죠. 저는 독수리 사진 포토에세이집도 펴냈고 전시회도 열었는데 국제보호종인 독수리 사진전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생태환경 인식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어린이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구요. 저는 그때 황폐해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멸종위기의 독수리 사진과 시를 작업하면서 환경 생태 문학에도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확인된 독수리는 23종이지만 대부분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243호로 지정된 독수리는 '몽골 독수리' 혹은 '대머리 독수리'라고 불립니다. 당시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같은 곳에서 제 작품에 관심을 가진 것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미다.

면담자 : 포토에세이집 '독수리의 꿈'은 은 독수리 사진에 에세이를 곁드신 건가요?
구술자 : 독수리의 꿈이라는 포토에세이집을 내면서 독수리와 관련한 시와 에세이를 함께 게재했지요. 계속 관찰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 생태를 잘 알게 된 독수리와 관련된 작품을 썼던 것이죠. 세 달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멸종해가는 독수리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들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국립과학관 테이프 커팅 장면과 '독수리의 꿈 김종경 작가 초대 사진전' 장면.

면담자 : 선생님은 주로 소외되거나 환경이 파괴돼 가는 현장성 있는 사진을 찍으시는 건가요? 용인 오일장 사람들 사진도 사실 주류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구술자 :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환경사진작가협회 용인시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부터 환경파괴, 생태 문제까지 고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용인 오일장 사람의 경우는 점점 사라져가는 풍물과 인간 군상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담기 위해 오일마다 장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시를 썼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수 많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자화상이 아닐까 합니다.

면담자 : 선생님의 용인을 표현하는 대표적 시어는 김량천이나 김량장, 안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밖에도 제가 모르는 게 많이 있겠지만요.

구술자 : 지금은 말끔하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포장돼 있는 김량천이 그리 오래전도 아니죠. 포장마차가 즐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포장마차와 주객들의 풍경을 통해 신유목 사회에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상실감을 느꼈던 거죠. 용인은 특히 안개가 유명합니다. 김량천변이 밤 안개에 덮여있는 모습과 함께 원주민의 눈으로 본 김량장과 김량천변의 풍경을 시로 썼던 거죠.

면담자 : 지금까지 선생님의 유년시절부터 용인지역의 문예운동과 문학이라는 장르가 지역에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용인의 문학의 얼굴은 역시 '용인문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시 세계와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구술사 목적이 개인적 차원의 작품 세

계보다는 지역사회에 예술 장르가 자리 잡게 돼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방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정성껏 답변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술자 : 장시간 이야기를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인에 문학이라는 장르가 자리 잡는 과정에 대한 수많은 뒷 이야기가 있었지만,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이야기 위주로 답변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나마 용인 지역의 문학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통적 방식으로
고려백자의 정신을 잇고 있는,

마순관(馬順官) 공예명장

1954년 5월6일(음력)	백암고안리 37번지 출생
1979년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연구생 입문
1985년	백암도예공방 설립
1993년	호암미술관 시연작가
1998년	용인예술인총연합회 초대회장
2016년	용인시 공예명장 1호
2019년	주민자치센터 도예교실 개강
현 재	백암도예공방 소장

개요

- 구술자 : 마순관
- 면담자 : 김정희
- 1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 장소 : 마순관 공예명장 작업실(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246번길 11)
- 2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 장소 : 마순관 공예명장 작업실(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 246번길 11)

요약정리

마순관 공예명장은 고령토 생산지로 유명한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에서 태어났다. 마을에 백토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흙을 가지고 놀았다.

명장이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빚기 시작한 것은 군대 제대 후였다. 고향 마을에 돌아와 보니 우리나라 백자의 일인자인 한익환 선생이 도자기공방을 열고 있었다.

한익환 선생의 한국고미술자기연구회에 연구생으로 입문하면서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된 마순관 공예명장은 청자, 백자 분청자를 배웠지만, 용인의 서리고려백자요지의 영향을 받아 백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다.

마순관 명장은 1993년부터 분청자를 주로 빚었는데, 표현이 자유분방한 분청자는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또한, 분청자는 현대인의 감각에 어울렸고 현대인이 좋아하는 도자기이기도 했다.

분청자로의 전환은 용인 호암미술관에서 분청사기 명품전이 열렸을 때, 시연작가로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삼성으로부터 기능과 재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기에 선정될 수 있었다. 이후 다양한 분청자기를 탄생시키면서 마순관 명장은 어느덧 분청자의 일인자가 됐다.

마순관 명장은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던 중, 용인에도 예술인들의 모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1996년 예술인연합회를 모태로 1998년 용인예술인총연합회를 발족하여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용인지역의 예술인들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돋음을 한 용인예총의 회장에서 물러난 후, 도자기 작품에 매진하고, 도예공방인 백암도예를 직접 운영하며, 주민센터나 지역 학교 등에서 도예체험, 분청사기 교육 등 재능기부 교육 활동을 이어가며 용인 도자기의 전통을 널리 알리고 있다.

2016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공예명장 1호로 선정된 마순관 명장은 도자기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도자기를 연구하고 널리 보급하고 있다. 또한 태토와 유약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한 결과 누구보다 제일 많은 유약을 확보하고 있다.

마순관 명장의 도자기가 특별한 것은 태토에서도 진가가 발휘된다. 그는 태토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결과 흙 자체의 질감을 살리기도 하고 색깔의 표현을 달리 하면서 그만의 진가를 발휘한다.

현대 도자기는 디자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전통의 맥을 잇는 것 못지않게 산업화에 비중을 둔다. 도자기 산업이 발전해야 도자기의 명맥을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늘 공부하고 연구한다.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가마에 넣지만, 마지막으로 불의 심판을 받는 게 도자기라는 생각이다.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연성이 많은 게 도자기입니다. 40년을 했어도 기가 막히게 했어도 불에서 잘못 나오면 끝인 것입니다.”

늘 새로운 작품을 위해 죽는 날까지 만들고 또 만들어 나가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출생과 어린시절

면담자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술생애사이다 보니 태어나신 때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셨나요?
구술자 : 백암면 고안리 37번지에서 1954년 5월 6일에 태어났어요.

면담자 : 양력인가요? 어린이날 다음날인데?
구술자 : 저는 음력이에요.

면담자 : 그럼 단오 다음날이네요.
구술자 : 단오 다음날. 그네 타다가 떨어진 거지요. 한참 좋은 때지요.

면담자 : 그때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구술자 : 그때 우리가 8남매니까, 아들 넷, 딸 넷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지요. 부모님들은 전형적인 농경사회니까 농사일을 하셨던 분들이고,

면담자 : 고안리에 농토가 많던데요?
구술자 : 네.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지요.

면담자 : 초등학교는 백암초등학교를 나왔나요?
구술자 : 아니요. 백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백봉초등학교를 나왔고, 중 · 고등학교를 백암 쪽에 있었고, 백암종합고등학교라서 '백암종고'라고 그랬어요.

면담자 : 그렇구나!
구술자 :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내가 도자기를 하게 된 것이, 내가 태어난 마을에 백토광산이 있었어요.

면담자 : 신문에 인터뷰하신 것을 봤는데, 그때 백토광산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구술자 : 많이 나왔는데,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그것은 일제 강점기 때, 전국의 특산물을 조사하는데 그 당시의 용인군의 특산물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고령토' 그리고 '사금' 농산물로 '오이' 뭐 이렇게 돼요. 그중에 고령토가 있다는 것은 옛날부

터 도자기를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도자기를 만들려면 흙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백색토가 용인의 고령토 흙이에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거든. 그것을 따라올 백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흙을 가지고 맨날 흙장난을 했던 거지.

면담자 : 백토광산이 있는 곳에서 사신 건가요?
구술자 : 그 마을이지요. 광산이 우리 산하고 붙어 있으니까 맨날 그것을 주워다가 놀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목포의 행남자기'[1]가 있었어요. 그것을 거기 그 광산에서 채취해 갔다고. 그 흙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도 하고 여러 장난을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자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지.

면담자 : 만들기를 잘 하셨으면 학교에서도 만들기로 상도 타는 일도 있고 그러셨겠네요?
구술자 : 그렇지요. 그때는 뭐 공부보다 재미있는 것이 흙놀이였으니까. 그 당시에 공작시간 이런 것이 있었어요. 미술시간에 만들기를 하거나 방학과제로 그런 것을 해가면 내가 제일 잘하니까 어른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잘하는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했던 것이 계기가 된 거지.

면담자 : 주변 아이들이 만들어 달라고는 안 했나요?
구술자 : 많이 했지요.

면담자 : 그러면 작품의 수준이 다 비슷한 것 아닌가요?
구술자 : 그렇지요. 내가 다 만들어줬으니까. 동네 친구들이 '나도 하나 만들어 줘'하면 만들어 주고, 만들어 주고 그때는 그게 재미지.

면담자 : 학교 다닐 때, 공예대회 같은 것은 없었나요?
구술자 :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무튼 만들어서 남들 주기도 하고, 칭찬도 많이 받고, 어렸을 때는 집에다 만들어 놓기도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1) 행남자기는 1942년 5월 설립된 행남사가 전신으로, 대한민국의 도자기 기술 발전과 문화부흥에 목표를 두고 한국최초의 도자기 회사로 설립되어 한국도자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를 이끌어 왔다.

도자기를 정식으로 배우다

면담자 : 도예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구술자 : 도예를 시작한 것은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1979년도부터 했어요. 그 당시에 광산 밑에 한익환 선생님[2)]이라고 우리 스승님인데, 이분이 거기에서 공방을 했어요. 그곳에 내가 문하생으로 들어간 거지요. 연구생이에요.

면담자 : 한인환 선생님의 공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어떠했나요?
구술자 : 표현이 무궁무진한 게 황홀했어요. 표현의 자유가 엄청났거든요. 묘한 매력에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도자기에 평생을 걸었지요 백자의 색 자체가 무한대인 매력이 있어요. 백자의 색이 흰색이 아니에요. 청백자, 유백자, 설백자 등 다양해요.

면담자 : 거기에서 몇 년 동안 배우신 거예요?
구술자 : 6년.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제가 거기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면담자 : 그런 것이 도제방식의 수업인가요?
구술자 : 그렇지요. 연구도 하면서 내가 배운 거지요.

면담자 : 한익환선생님 휘하에 6년 동안 연구생으로 있으면서, 청자, 백자, 분청자 중에서 무엇을 주로 했나요?
구술자 : 전통도자기를 했던 그때, 거기 공방 이름이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에요.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이기 때문에 전통도자기를 재현하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면담자 : 세 가지를 다 하신 거네요?
구술자 : 세 가지를 다 했는데 그중에 백자를 주로 많이 했지요.

---

2) 한익한 : 1921년 12월 26일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생. 2006년 9월 28일 사망. 간도연길공업학교 졸업한 후, 1948년 대한도기주식회사 이사장의 권유로 도자기술원 양성소에 들어가면서 도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의 공업연구소 요업과를 거쳐 동연구소에 개설된 상공부 주관 고등기술원 양성소에서 요업과 과정을 마침으로 기초를 다졌다. 한국전쟁 이후 전국 각지의 도자기 제작회사에서 7년여동안 기술책임자로서 생활도자기를 연구 실험하기도 했다.이후 조선백자에 매료돼 익요를 열고 전통백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86년 문화공보부 주최 전승고예전 특별상 수상. 1983년 대한요업총협회 공로상 수상.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소장으로 있었다. 한익환 선생 사후 그를 기념하기 위해 고인의 자택 1층을 전시관으로 개조하여 사립박물관인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을 열었다. 석정 한익환 선생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초청전시회를 가진 최초의 현대 사기장인이다.

마순관 명장의 작품들

면담자 : 그럼 지금은 주로 백자를 만드시는 건가요?

구술자 : 아니죠. 호암미술관에서 분청사기 명품전을 한 뒤로는 분청자에 매료가 되어서, 전통도자기의 청자, 백자도 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백자를 주로 했고, 나는 분청자를 주로 작업을 해요.

면담자 : 분청자가 어떤 점이 매력이 더 있어요?

구술자 : 분청자는 청자나 백자와 달라서 문양이나 기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활달하고 또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분청자에요. 분청자는 문양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청자나 백자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분청자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재미가 있어요. 분청자는 물레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모양을 잡아 그릇을 만든 후 물에 갠 백초를 바르고 그 위에 조각칼로 그림을 새겨 완성하는 전통 도자기예요. 무늬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나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작품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흙을 직접 공수해 와서 도자기를 빚고 전통가마에서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 최고 섭씨 1400도 온도로 견고하게 구워내는 전 과정을 고수하고 있어요.

면담자 : 분청자는 기법이 다양한 것으로 아는데요?
구술자 : 분청자는 백자, 청자, 옹기의 기법 모두를 접합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이 다 들어 있는 도자기 장르입니다. 거기에 상감, 인화문, 철화기법 등 그림이나 조각 여러 기법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투박하고 질박하기에 분청자가 쉬울 것으로 오해받지만 진정한 맛은 어느 경지에 올라서야만이 표현 가능한 고도의 기능이 필요한 장르라고 생각해요. 기법도 철화기법, 상강기법, 박지기법, 인화문기법 등 다양하고 문양도 자유롭기 때문에 생기가 있어요.

면담자 : 스승님이 독립을 안 시켜주나요?
구술자 :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나온 거지요.

면담자 : 1985년에 독립해서 나오셔서 공방을 차린 것인가요?
구술자 :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내가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으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옮기고, 옮기고 한 것이 여러 번 옮겼지요.

면담자 :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호암미술관에도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술자 : 호암미술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93년도에 호암미술관에서 '분청사기 명품전'을 했어요. 삼성그룹에서 가장 큰 기획전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내가 시연작가로 들어갔어요. 시연작가는 국내에서 도자기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은 거지요. 거기에 뽑혀서 시연작가로 73일 동안 전시도 하고 시연을 했지요.

면담자 : 1993년도 호암미술관 이후로는 계속 분청자만 하신 건가요?
구술자 : 청자 백자도 했지요. 용인에 고려백자 가마터가 있기 때문에 고려백자에 대한 연구를 하지요. 서리에 있는 고려백자 도편들을 가져다 연구도 하고 또 용인의 도요지 발굴작업도 내가 했지요. 도요지 지표조사, 발굴,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해서, 물론 한신대나 호암미술관이랑 같이 한 것이지만 자료를 내가 거의 제공하다시피 해서 그 자료로 보고서를 낸 거지요. 용인문화원에 아마 책자가 있을 거예요. 평생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같이 했던 거지요. 용인지역 가마터가 있다는 곳은 다 가봤죠. 밤낮없고 계절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했어요. 우리 용인은 그 어떤 지역보다 도자기 관련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서리 가마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를 자랑할 정도죠. 그만큼 지역엔 관련 자료나 유물도 많은데, 이들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 고려백자와 선생님의 고려백자가 차이점이 있나요?

구술자 :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그 기술에 그 용도에 한계점이 있지만 지금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가마구조, 흙도 다르고 기술, 유약 재료 기능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할 일은 아니고, 그 당시에 도자기문화가 성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으로 친다면 고려시대의 IT산업이죠? 내가 어디 가서 용인학 강의를 할 때는 그 당시에 그런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최첨단 산업이 도자기였다.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단순한 생활이었는데, 좋은 그릇에 밥을 먹으면 최고이죠.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이거든. 문양이나 기법들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겠지만 시대적으로 구분해 볼 때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이야 기계들이 있어서 흙반죽도 기계를 사용해서 더 잘 되지요. 물레도 기계화돼서 정교하지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옛날 도자기들은 손맛이 있어요. 요즘은 너무 정교하다 보니 내가 싫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손맛이 있는 것, 만두나 송편을 빚을 때 손맛이 있잖아? 기계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맛이 있잖아? 그 맛을 살리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자연회귀잖아요? 인간들이 물질만능시대에 공기마져 오염되어 있는데, 자연회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손으로 하는 맛! 멋! 이런 것을 지키고 싶은 거지요.

면담자 : 물레 돌리면서 지문이 다 없어졌다고 하시던데요?

구술자 : 나는 지문이 없어요. 지문 채취해도 안 나와요. 어떤 때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막 나와요. 물레를 돌리면 손도 닳아요. 고무장갑도 하루종일 끼면 손가락에 펑크가 나는데, 손이 대단한 거지요.

면담자 : 물레를 돌리고 도자기를 많이 만들면 관절이 상하지 않나요?

구술자 : 상하지요.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하면 몸이 망가지는데, 나는 건강하게 타고 난 것 같아요. 지금도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앉아보지도 않고 일을 해요. 그것을 보면 타고난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 한 가지는 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면담자 : 흙을 사오지 않고 직접 태토를 만드신다고 들었는데요?
구술자 : 이 세상의 모든 무기물은 다 도자기의 원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밟고 다니는 흙은 다 쓸 수가 있다고 봐야죠. 흙이 다르면 흙 자체의 질감을 살리기도 하고, 색깔의 표현이 달라져요.

면담자 : 도자기 만드는 한 길로만 살아오는 것이 힘들지 않았나요?
구술자 : 물론 힘들지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도자기에 매료돼서 했던 것이지, 이것을 돈 버는 목적으로 했다면 벌써 때려치웠을 거예요. 다른 것을 했어야지.

면담자 : 그럼 경제적인 면은 어떻게 해결하신 건가요?
구술자 : 도자기를 판매도 하지만, 그런데 이름 없을 때는 도자기가 잘 팔리지도 않아요. 명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생활에 쓰는 도자기이다 보니 생활자기도 만들면서 작품활동도 하면서 경제적인 면을 이어간 거지요.

면담자 : 그럼 지금까지 도자기를 몇 년 하신 거지요?
구술자 : 1979년부터 했으니 40년이 넘었지요. 44년 정도 되네요.

면담자 : 40년이 넘게 한길로 오랫동안 매진할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일까요?
구술자 : 물론 힘들 때도 있었어요. 중간에 힘들 때는 돈이 안 되니까 다른 일도 하면서 했지요. 다른 사업도 해보고, 고정수입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카페도 병행하면서 한 것이지, 도자기만 하기는 거의 힘들지요. 생활고에 시달릴 때는 다른 일도 좀 하면서 했지요.

용인예술인총연합회의 탄생- 용인예총회장이 되다

면담자 : 예총이 처음에는 용인예술인협의회였잖아요?
구술자 : 1996년도에 용인예술인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원로들이 다 됐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용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희체로 활동을 하다가 1998년

도에 예총을 설립을 했지요. 그때 초대회장을 내가 하고 사무국장을 김장환씨가 했어요. 장환이가 나하고 있을 때부터 엄청 열정적으로 했었지요.

면담자 : 예총회장님 할 때 사무국장이었던 거지요?
구술자 ; 사무국장 했지요. 그때가 일을 열정적으로 제일 많이 했고, 그때 혼자 다 하다시피 했으니까.

면담자 : 열정은 지금도 많으니까
구술자 : 많아도, 그때는 아무래도 젊었으니까 밤 새는 것도 모르고 좋아서, 만나면 좋아서 열심히 했으니까 용인에 대한 것에는 박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는 거지요.

면담자 : 용인예술인협의회를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구술자 : 다른 지역에는 예술인협의체나 예총같은 단체들이 이미 있었는데 용인에는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용인의 예술인들이, 용인시에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걸렸어요. 그래서 원로분들과 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1998년도에 예총을 만들게 됐지요. 그것이 예총의 시작이었지요.

면담자 : 모델이 있었나요?
구술자 : 모델은 인근의 가까운 성남시의 예총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래서 성남시의 예총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어요.

면담자 : 그 당시에 안성에 많이 다니시지 않았나요?
구술자 : 저는 안성에서 많이 활동을 했지요. 용인에 예술인단체가 없을 때 안성에는 예술인이 많았어요. 임동창이나 장사익이나 연극인들이나 배우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에 휩쓸려서 활동하다가 용인에도 뭘 하나 만들어보자 하게 된 것이 예총을 만들게 된 거지요. 그때 안성의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도 활동을 한 거지요.

면담자 : 활동은 안성에서 했지만, 예술인연합회, 즉 예총의 모델은 성남예총을 모델로 해

서 만들었네요?
구술자 : 사실은 거기가 모델이 된 거예요.

면담자 : 성남은 예술인들이 예총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나요?
구술자 : 그때 당시에는 그곳이 아주 잘했지요.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배우기도 하고, 성남의 예술인들을 모셔 와서 용인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 처음에 예술인협의회를 발족할 때 발기인이 몇 명이었나요?
구술자 : 10여 명 되지요. 그때 당시에 이상학선생님, 진철문선생님, 허만갑선생, 김주익선생, 서해창선생, 또 누가 있나?

면담자 : 이분들은 어떻게 모이게 된 것인가요?
구술자 :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것인데, 이분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또 같이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과 같이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예총을 만들 때 나보고 예총회장을 하라고 그래서 홍영기씨하고 같이 투표해서 이긴 거예요.

면담자 : 홍영기선생님은 예술인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구술자 : 아니지요. 그분은 정치인인데 예술인들을 모아서 무엇인가 하려는 다른 꿈이 있었겠지요. 정치인들은 뒤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앞에 나서서 수장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당시에도 '농협장은 농민의 대표이고, 수협장은 어민의 대표이고 예총의 회장은 예술인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반발했어요. 다행히 예술인들이 나의 진정성을 믿어줘서 내가 예총회장에 당선된 거지요. 그때 당시에 나는 이름도 없던 사람인데 홍영기씨는 경기도의회 의장까지 했던 사람으로 얼마나 날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된 것은 예술인들의 자존심이지요.

면담자 : 예총 창립 당시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구술자 : 각 지부별로 있었으니까 한 300명 정도 됐어요.

면담자 : 예총 회장 연임을 왜 안 하셨나요?
구술자 : 4년 임기 동안 예총은 물론 문화의 불모지라 불려졌던 용인의 문화예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더 좋은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불출마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회장 임기동안 대내외적 활동으로 인해 작가 본연의 임무인 작품활동에 소홀했는데,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예총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면담자 : 예총 회장 임기 후에 홍영기씨가 2대, 3대 회장을 했던데요?
구술자 : 회장 임기 끝날 무렵 나에게 연임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걸 하다 보면 내가 작업을 못해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작업을 해야 돼서 임기만 마치고 그만뒀지요.

면담자 : 현재는 회원이 더 많이 늘어났지요?
구술자 : 많지요. 미술협회가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미술협회만 해도 회원이 300명이 되는데 엄청나지요. 지금 용인이 특례시가 됐는데, 그때는 인구도 30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110만 명이 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그때보다 많이 증가가 된 거지요.

면담자 : 지부가 처음부터 10개였나요?
구술자 : 처음에는 8개였어요. 미술협회, 문인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사진협회 등 8개 회원단체의 용인지부가 가입되어 있고 각 회원단체 산하에 31개 예술인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면담자 : 지금도 예총에 관여하시나요?
구술자 : 지금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미술협회도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예총 행사가 있을 때는 가끔 봐 주고,

면담자 : 산모롱이 카페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구술자 : 1998년부터 했어요. 묵리에서 했을 때가 제일 좋았던 시절 같아요. 제일 순수하고... 예총도 마찬가지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예산보다는 진정성, 열정을 가지고 재미있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한 것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때는 문화재단이 없어서 전시, 기획 등 이런 것을 우리가 모두 했는데,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니까 예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면담자 : 전시나 기획은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예총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술자 : 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예총회원 단체들을 위한 것인데, 예전에는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용인시 큰 행사들은 문화재단에서 하니까.

면담자 : 그럼 예총과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많이 겹치겠네요?
구술자 :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협업이 되어야 하는데, 안 돼요. 예총이라는 것은 용인시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예총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되고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큰 기획행사나 공연 등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자체적인 행사나 하고 그런 것 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면담자 : 용인시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협업이 돼야 하는 거지요?
구술자 : 그럼요. 용인예총이 문화예술전문단체이니까, 문화재단의 행사는 예총과 협업이 되어야죠. 용인시 지방작가들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공연팀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예술인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해야 돼요. 나름대로 공모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면담자 : 예총 초기에 회원들 외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나요?
구술자 : 초기에 예총회원 말고도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합창단같은 단체들과 협업이 됐었어요. 예총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행사 전시 공연 등을 다같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인구가 많아졌으면 그만큼 용인에 예술인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문호를 개방해서 그분들이 예총에 와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되어 있어요.

면담자 : 예술인인데 국가무형문화재인 이춘희 선생님같은 분들도 예총에 들어와 있나요?
구술자 : 협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분들을 자문, 고문으로 영입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고, 제일 문제는 용인시에서 국제적으로 맺은 자매도시가 있어요. 그런 도시와 문화교류를 해야 하는데 용인은 잘 안되고 있어요. 성남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면담자 : 외국에 나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구술자 : 우리는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비 들여서 가요. 자매도시에 가게 되면 시의원들은 시예산을 받아서 나가는데, 거기서 전시, 공연 등을 하게 되면 그런 계획도 없지만, 그런 것을 하면 조례가 없다고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가는 거예요.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다보면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어렵죠. 문화교류가 먼저 돼야 하는데 자매도시는 많아도 그런 지원이 없으면 힘들죠. 요즘은 글로벌한 활동을 하는 시대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예산인데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시의원들은 예산을 산업시찰로 받아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같이 간 예술인들은 다 자비를 들여서 하니 불합리한 거지요. 예술인들의 한계가 모든 것을 국내에서만, 집안에서만 올챙이처럼 할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다른 곳은 몰라도 자매도시에 가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한번 갔다 오면 부담이 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그쪽에서 오고 우리도 가고 그러는데 쉽게 갈 수 없는 거지요.

면담자 : 용인시에서는 전시회를 열 때 지원이 없나요?
구술자 : 분과별로는 없고 미술협회 정기전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지요.

면담자 : 활동을 안 하다가 정기전 같은 전시를 통해서 두각을 드러내는 분은 없나요?
구술자 : 그렇게는 안 돼요. 협회돈이니까 협회회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새로 발굴을 하려면 교육사업을 해야 돼요. 교육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이나 진로로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지요.

면담자 : 예총에서 교육사업은 안 하나요?
구술자 : 없어요. 아카데미 과정을 열어서 일반인들을 발굴해야 하거든요. 그전에는 했었는데 없어졌더라구요. 전문예술인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아카데미를 열어서 해주면 좋은데 결국 예산문제이지요.

면담자 : 문화원에서도 문화대학을 열어서 수채화, 유화, 민화 등을 교육하는데 왜 안 할까요?
구술자 : 사실 그런 것들을 예총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원 사업이 아니에요. 예총하고 문화원하고도 문제예요. 두 기관이 협업이 되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 나는 문화원장 만나서 "우리는 전문예술단체이니까 필요할 때 쓰세요. 문화

원에서 향토사업할 때 우리도 필요한 부분을 돕겠다." 이렇게 분담을 했다고. 예총이 없었을 때는 문화원에서 모두 했지만, 예총이 생겼으니 분담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문화원에서 다 하고 예총은 오히려 안 하고 있어요.

면담자 : 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예총 소속이지요?

구술자 : 맞아요. 그것이 예총에서 할 일인데 역량이 안되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 김장환 국장의 아이디어죠. 예술인 데려다 수업하는 것도 그나마 다행인거지요. 그렇게라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에요.

면담자 : 성남에서는 도자기 무료강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용인은 없나요?

구술자 : 성남은 공예전시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예명장들의 전시도 하는 아카데미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해 주는데, 용인은 그런 것이 일체 없어요. 공예명장만 세워 놓으면 뭐해?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용인은 성남과 똑같이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공예명장이 되다.

면담자 : 2016년에 공예명장이 되셨잖아요? 그때 후보는 누가 있었나요?

구술자 : 후보자가 없어요. 지원자는 많은데 심사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후보자로 선정되기가 힘들어요. 신청조건이 까다로워서 거기에서 다 떨어져요.

면담자 : 도예, 금속, 장신, 목공예, 석공예, 섬유, 종이 등 6개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용인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구술자 :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많지요. 그 외 기능성이나 활동사항은 국가의 명장사항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만둔 것이지, 공예하는 사람들은 명장되는 것이 소원이고 희망사항인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면담자 : 지금까지 딱 2분 되신 거지요?
구술자 : 네. 해마다 공예명장 뽑는다는 공고는 내는데 매년 신청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자가 없어서 뽑지를 못하는 거지요. 신청서류를 보면 신청자는 많은데 까다로워서 선정되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신청을 하려고 해도 해당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면담자 : 공예명장을 세웠으면 지원되는 부분이 없나요?
구술자 : 없어요. 명예만 준 것인데, 공예도 산업이잖아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다든지, 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든지 하는 공예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너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러면 명장을 왜 뽑느냐는 말이지. 공예산업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사후 관리거든. 전시회라도 한 번 열어준다든지 해야지. 돈이 없으면 시청로비에서 전시하면 돼요. 지원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지요. 다른 곳에서 명장을 만드는 조례를 만드니까 우리도 따라 만든 거예요.

면담자 : 그러면 명장제도에 따른 후속조치도 같이 따라와야지요?
구술자 : 그렇죠. 그런 것을 조례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물론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시에서 우리를 뽑았잖아?

면담자 : 공예명장을 문화재단이 아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구술자 : 시에서 관리해요. 용인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요. 그것은 다른 시군과 차별화가 되지요. 용인은 문화쪽으로는 모든 것이 그래요. 예총회장할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공무원 잘못이 아니라 예술인들 잘못이 더 큰 게 모르면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줘도 이 사람들이 적용이 안 되고, 높으신 시의원분들이 체육에는 관심이 많은데 문화에 대한 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면담자 : 시장님이 바뀌었으니 달라지지 않을까요?
구술자 : 바뀌면 달라질 거라고 얘기도 하고 공약은 그렇게 해요. 그것이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면담자 : 공예명장에게 지원을 해 준다면 어느 부분이 제일 시급한가요?
구술자 : 예산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속가능하게 계승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명장이나 무형문화재가 됐으면 교육적인 면에서 그분들에게 아카데미를 열어준다든지 해서 교육적으로 전승될 수 있고 계승되도록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거지.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면담자 : 무형문화재가 되면 이수, 전수 과정을 거쳐 전수조교가 되고 무형문화재를 이어받는데, 공예명장은 그런 제도가 없나요?
구술자 : 없어요. 기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전수해서 되는 것뿐이지. 계획서에는 이수, 전수를 한다는 계획은 있는데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무형문화재 분들은 한 달에 얼마 지원을 받아서 후학을 키우는 제도는 있더라구요.

면담자 : 공예명장은 전수제도가 없는 건가요?
구술자 : 없어요. 무형문화재도 전수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공예니까 산업에 전승시키는 것보다 활성화하라는 것인가 보지요.

면담자 : 공예명장으로서 공예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신 것이 있나요?
구술자 : 저는 많이 해요. 도예에 대한 교육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해요. 주민자치센터에 도자기교실을 열어서 일반인들에게 도자기를 파급시키는 일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공방에서 멤버십 제도를 만들었는데, 도자기는 다른 공방과 달라서 특수한 시설이 있어야 해요. 가마나 흙을 다룰 수 있는 작업실이나 유약을 바르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는 할 수 없어요. 공간 나눔을 하는 거지요. 회원들에게 공방을 항상 오픈을 시켜서 이분들이 아무 때고 와서 작업을 하고 가마 굽는 일까지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놓은 거지요.

면담자 : 가마는 전통가마인가요?
구술자 : 전통가마도 있고, 가스가마, 전기가마 다 있지요.

면담자 : 전통가마는 위로 약간 비스듬하게 설치하지 않나요? 여기는 평평한 것 같은데요?

구술자 :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 말한 것은 '등요'라고 해서 경사지에 여러 칸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우리 것은 통가마라고 해서 하나야. 한통, 자주 때려면 통가마로 하는 것이고, 작업을 오랫동안 해서 한 번에 하려면 등요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등요는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불도 오랫동안 때야 해서 연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통가마는 자주 땔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물레 작업하는 장면 (출처 –뉴스피크 2019.6.5.)

면담자 : 각각 장단점이 있네요?

구술자 : 전에 전기가마나, 가스가마가 없을 때는 통가마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나무를 땐다고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못하죠.

면담자 : 민원이 들어오나요?

구술자 : 우리는 외딴집이라서 민원이 없는데, 민가가 조금 가깝던가 연기가 시커멓게 나면 당장 민원 들어가고 소방대 뜨고 난리가 나지요. 그래서 우리야 괜찮지만 다른 곳에서는 힘들지요.

면담자 : 가마는 얼마 만에 운용하나요?

구술자 : 작업량에 따라 다른데, 도자기 공정이 일단 도자기를 만들면 일주일동안 자연건조 시키고 그다음에 초벌 때고 유약바르고 재벌 때는 거니까,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전기가마처럼 작은 가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자주 땔 수 있는데, 가마크기에 따라서 큰 가마이면 가마안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한참 걸려요.

면담자 : 맴버십 회원은 몇 명인가요?

구술자 : 50명 정도 돼요. 그분들이 만든 그릇도 같이 굽고 주민센터도 상현1동, 죽전2동, 신봉동에 생활도예 수업을 4년째 나가는데, 세 군데서 한 100여 명 되니까 그것

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면담자 : 수지쪽으로 주로 나가시는데 처인구에는 없나요?
구술자 : 처인구에는 없어요. 문화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요. 기흥구에도 사람들은 많은데 수지로 와요. 기흥구에도 사람은 많은데 거기까지 내가 매일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하던 곳만 하는데 그게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어요. 주부들이 생활자기와 같은 도자기를 배우면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라 보람도 느끼지만, 저의 목적은 도자기 문화의 전파에요.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면담자 : '고려백자연구회'가 있는데 그곳에도 관여하시나요?
구술자 : 서리에 있다가 동백으로 옮겨갔는데, 해마다 전시를 하는데, 한번은 포은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우리집에서도 했어요.

면담자 : 여기(백암도예공방)는 언제 지으신 거예요?
구술자 : 3년 됐어요. 전에는 카페를 같이 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조용하게 작업만 하고

죽전2동 주민자치센터 도예공방 수업장면 (출처– 용인시민신문 2012.7.30.)

싶어서 이리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갤러리와 작업만 하는 거지요. 카페는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공간을 자유롭게 못 쓰니까 내 작업이 안 돼. 작업만 하고 싶어서 옮긴 거죠.

면담자 : 도자기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니 새우그림이 많은데, 분청자에 그림을 그리는데 따로 배우신 적이 있나요?

구술자 : 제가 한국화를 했어요. 내가 예총회장 할 당시에 1995년, 1998년 이때쯤 되는데 한 5년 배웠지요.

면담자 : 원래 그림은 잘 그리셨나 봐요?

구술자 : 그렇지요. 소질이 있다고 해서 그림을 옛날부터 잘 그렸는데, 예총에서도 배웠고 강남대에서도 배웠고...

면담자 : 도자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문양은 무엇인가요?

구술자 : 다양하지요. 다양한데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투각, 양각, 음각, 상감기법까지 많이 들어가니까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면담자 : 디자인 감각이 없으면 분청자는 못하겠네요?

구술자 :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청자는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니까, 옛날에 14세기 16세기에 피카소를 능가하는 그림이 많아요. 그런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하니까 잘 그리는 것 보다는 약간 바보스러운 그림이 어울리는 것도 있어요.

면담자 : 작업장에 만들어 놓은 접시들은 같은 것들이 많은데,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구술자 : 어디에 납품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은 기업 하시는 분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문화예술을 아는 기업인이에요. 그런 기업인들이 많으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분이 '박현만'회장이라고 친환경포장지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인데, 그 회사의 준공식 선물로 들어가는 그릇이에요. 그분 회사의 입구에 내 도자기 작품으로 크게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픈하는 날, 저의 집사람이 화가인데 회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물향기 수채화' 회원전 전시를 그 회사에서 해요. 아산에 있는 회사인데 '꽃과 도예의 만남' 전시도 해요. 그런 기업인들도 있더라구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면담자 : 가장 많이 만드는 그릇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구술자 : 일반 생활에 쓸 수 있는 그릇들이 뻔하잖아요? 아무래도 생활자기들을 제일 많이 만들게 되고 작품 중에서는 분청단지나 장군병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면담자 : 저는 요즘 만드는 장군병은 어디에 쓸까 궁금해요?
구술자 : 주로 꽃병으로 써요. 옛날에는 물병으로도 쓰고 꽃병으로도 쓰고 다했지만, 용도를 정해놓는 것 보다는 장식용으로도 쓰고, 또 찻그릇, 다기 같은 것도 많이 나가요.

면담자 : 일주일에 몇 작품 정도 만드나요?
구술자 : 작품으로 치면 일주일에 한 열점, 생활자기는 많이 만들어요.

면담자 : 작품이 마음에 안 들면 깨 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구술자 : 도자기는 만드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릇이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아무도 몰라요. 신밖에 몰라요. 아무리 잘 만든 것도 터지기도 하고, 깨져 나올 수도 맘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딱 들게 나오는 것은 40년 이상 했어도 한 작품도 없어요. 마음에 든다면 발전이 없는 것이고, 이 작품이 최고다 하는 것은 자기자만이고, 도자기 작품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것은 없어요.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거기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면담자 : 잘못 만들어져서 버리는 도자기도 있나요?
구술자 : 버리지는 않아요. 화분으로 재활용하게 두지 버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버리는 것 자체도 산업폐기물인데 뭘. 아주 못 쓰는 것은 깨서 바닥에 깔거나 그러는데, 웬만큼 사용 용도가 있는 것들은 화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

마순관 명장과 달항아리 (출처:용인신문)

아하는데, 될 수 있으면 버리지 않지. 여기 나무에 걸려 있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에요.

면담자 : 지금까지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작품은 무엇일까요?
구술자 : 백자 달항아리인데, 달항아리가 제일 어렵거든요. 크게 만들면 배가 나와서 처지는데, 1m면 굉장히 큰 거예요. 높이가 올라가면 우리 키만큼 올라가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옆으로 퍼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두 개를 포개서 해야 하는데 자꾸 주저앉으니까, 그 달항아리가 가장 큰 작품이에요. 달항아리가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몇 개 안 나와요. 일반 옹기 항아리와 달라서 옹기는 낮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크게도 만들지만 달항아리는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면담자 : 박현만 회장님 회사의 조형물이 크지 않나요?
구술자 : 그건 조형물이지 도자기가 아니에요. 조형물은 내가 많이 했지요. 아파트 앞에 도자기로 세우는 조형물을 많이 했지요.

면담자 : 도자기를 만들어서 구우면 줄어들지 않나요? 구워서 1m인 건가요?
구술자 : 그렇지요. 많이 줄어들지요. 달항아리는 구워서 나온 것이 1m에요. 만들 때는 더 커야 돼요. 15%는 줄어드니까 더 커야 돼요.

앞으로의 계획

면담자 :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구술자 : 나이 먹으니까 내가 하는 사업을 후배들한테 교육도 하고 전수하고 싶은 거지요. 작업도 하고 싶고,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을 갖겠어요? 내가 하던 것을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지.

면담자 : 물려주고 싶은 후배가 있어요?
구술자 : 가업 계승은 아들한테 시키고,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니까.

면담자 : 요즘 학교에서 도자기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구술자 : 많지요. 그런데 전공을 못 살리더라구. 지금 한국도자문화재단에 등록된 사람이 용인에만 400명이 넘지요. 그런데 도예가이지만 공방을 하고있는 친구는 몇 안돼요. 학교 교수들도 도예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공방을 하는 사람은 30여 명 밖에 안돼요.

면담자 : 용인에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개인활동을 주로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분은 적은 것 같아요?
구술자 :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면 작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나처럼 젊을 때 활동을 하다가 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회활동을 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면담자 : 후학을 양성하려면 사회적 활동도 필요할 텐데요?
구술자 : '뚝마켓'이라고 들어봤어요? 몇몇 공예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하는 단체인데, 이번에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지요. 그런 것들이 후배들을 위한 일이죠. 공예인들이 만들기만 하면 뭘해? 팔지를 못하는데, 경제적인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샾도 열고 마켓도 열고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잘 되고 있고, 그런 것을 도와주는 거지요.

면담자 : 뚝마켓에는 몇 팀이 들어오나요?
구술자 : 한 20명 되지요. 그런 것을 시내에서 하면 접근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것이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많이 오더라구요. 조금 더 있으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해요.

면담자 : 산모롱이 땅은 사서 오신 거지요? 더 이상 옮길 일이 없겠네요?
구술자 : 한 번 더 옮겨야지요. 이제 점점 줄이고 사람도 덜 만나고 죽으러 가야 하잖아요? 에너지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도 만나고 활동도 하는데 그만큼 내 작업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면 힘도 더 없어질 테고 후학들은 다 키워놨으니까,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가서 작업을 하다가... 자꾸 줄일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일을 늘리고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욕심이야.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줘야지, 내가 하면 그만큼 자리가 없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스스로 자리를 넘겨주고 나는 연륜이 있으니까 뒤에서 지켜봐야지. 이것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산모롱이 갤러리& 백암도예공방

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죽을 때까지 기능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가는 게 로망이지 뭐 있어요?

면담자 : 앞으로 선생님을 어디서 뵐 수 있을까요?
구술자 : 내가 밖을 잘 안 나가니까. 우리집으로 놀러 와요. 비올 때 눈올 때 와서 찜질도 하고 막걸리도 하고 그래요. 편하게 놀러 오시면 돼요. 요즘도 놀러오는 손님이 많아서 낮에는 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산속으로 가면 그나마 정리가 되니까.

면담자 : 옮기신다면 용인의 산속으로 가시나요?
구술자 :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니는 곳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내가 5년 동안 보길도 섬에도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했었잖아!

면담자 : 용인에서 남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구술자 : 시민들과 타 지역민들에게 '백자의 원조는 용인, 도자기하면 용인'을 알리는 게 할 일이죠. 그리고 고려백자 서리 가마터를 복원해서 체험 공간과 전시장, 도예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꾸미는 게 목표입니다. 관심갖고 지켜봐 주세요.

용인 미술 · 생활과학의 선도자(先導者),

이강수(李康壽) 선생

1939년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출생
1960년	인창고등학교 졸업
1968년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1969년	대전 중앙중학교 미술교사 근무
1970년	서울 동일중학교 미술교사 근무
1971년	서울 남강중학교 미술교사 근무
1972년 11월	용인 태성중.고등학교 부임
1991년	태성중학교 교감 6년
1991년 6월12일 ~ 2004년 2월20일	용인문화원 이사
1997년	태성고등학교 교감 2년
1999년 ~ 2002년	태성중 12대 교장
2002년 ~ 2004년	초빙교장 2년
2004년 2월 20일	공로퇴임

개요

- 구술자 : 이강수
- 면담자 : 남기주
- 1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0월 27일(목) 15:00
  - 장소 : 용인문화원 회의실
- 2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14:00
  - 장소 : 용인문화원 회의실
- 3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16:00
  - 장소 : 용인문화원 제2강의실

요약정리

이강수 선생은 타고난 미술가였다. 소년시절부터 발휘한 미술적 재량은 차고 넘쳐초등학교 5학년부터 입상경력을 쌓으면서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종로구 창신동에서 출생한 선생은 상업을 하시던 부친의 덕택으로 홍익대에 입학을 하지만 5남매의 맏이로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대학을 8년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다. 1969년 대전 중앙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면서 교직에 30년을 넘게 봉직하였다.

1972년 11월에 이경환 태성중 · 고등학교 교장의 주선과 장남인 기독교방송의 이천규 아나운서의 중재로 태성학원에 발을 디디게 된다. 1981년부터 90년까지 각부서의 주무부장 10년(새마을부장 4년, 학생부장 4년, 연구부장 2년)을 지낸 후 1991년부터 중학교 교감 6년, 1997년부터 고등학교 교감 2년 후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태성중 12대 교장과, 2004년까지 초빙교장 2년 근무 후 그해 2월 20일 공로퇴임에 이르도록 전력을 다해 소임에 임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봉사로써 1991년 6월 12일부터 2004년 2월 20일에 이르기까지 용인문화원 이사로 역할을 다하였다. '용인미술인회'의 초창기 멤버로 최선을 기울였고, 예총으로 발돋움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예술의 황무지였던 용인에 르네상스를 만들어낸 강력한 에너지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는 선생은 당시에는 젊은이로써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도 막강한 실천력을 선보여 용인은 물론 태성학원의 면모를 격상시키는 일등공신이 되기에 이른다. 그런 노력으로 1974년, 76년, 77년, 81년, 87년, 88년 교육장표창 6회에 이르고 1975년, 79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7회에 걸쳐 교육감표창을 받았고, 1985년 문교부 채택 어버이날(경로효친) 홍보포스터 우수작품 선정으로 문교부장관 표창과 1986년 해외연수의 혜택까지 받게 되었다. 1991년 용인군 제1회 문화상을 수상하였고, 2002년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미술은 물론 과학분야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과학발명부를 발족시켜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현실화 시키기 위해 각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른바 '전교생의 과학화'로 전국과학 및 발명대회에서 굵직한 수상을 휩쓸었다. 2001년 5월 20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 초.중.고 발명이야기 대회에서 금상3, 은상 5, 동상11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였으며, 같은해 11월 12일부터 에버랜드에서 열린 제2회 전국학생 전자키트 조립 경진대회에서는 부원40명을 참가시켜 25명이 입상하여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누리기에 이른다. 이리하여 태성중학교가 발명가의 요람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노력한 학생과 지도교사 그리고 선생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였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모든 것을 후인에게 맡기고 무대에서 내려온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터뷰를 끝내주셨다. 학생에게는 정확한 정답을 내려주어야 한다며 수학처럼 반듯하게 꾸밈없는 지도를 해야만 피교육생(학생)이 바로 배우고 설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사의 자세를 촉구하면서 발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앞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우리의 교육이 참다운 길을 걷게 되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출생 및 가족관계

면담자 : 선생님.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사모님도 안녕하시고요.
구술자 : 특별하게 아픈데는 없는데 나이가 있으니 그렇지. 아내도 그렇고.

면담자 : 태성중에서는 얼마나 계셨던가요.
구술자 : 1972년 11월에 와서 2004년 2월에 공로퇴임까지니까 12대교장 3년에 초빙교장 2년까지 32년 되지요. 말단 교사로 시작해서 교장까지 오래 했지요.

인터뷰 모습

면담자 : 서울에서 내려오셔서는 용인 어디에서 살림을 시작하셨나요.
구술자 : 태성중 아래 경남유치원옆 강명철 씨집에서 시작했죠. 그 집이 딸부자 집이라서 딸고마니네라고 불렀죠. 그 이후로 이사 많이 다녔지요.

면담자 : 태성중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요.
구술자 : 1969년에 대전 중앙중을 시작으로 1970년에 서울 동일중에 1971년에 서울남강중에 있었지요. 공립학교로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1968년 1.21사태 때문에 못가고 연령제한에도 걸려 갈 곳이 없어 전전하게 되었지요.

면담자 : 생년월일과 출생지 그리고 본관은 어디신지요. 가업은 무얼 하셨나요.
구술자 : 1939년 11월 26일생으로 서울 동대문에서 태어났고,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아버지가 상업을 하셨지요.

면담자 : 현재는 어디에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자녀는 어떻게 되시나요.
구술자 : 동백지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자녀는 1남1녀이고 아들은 공학박사로 현재 LG 근무중이고 딸은 고등학교 영어교사예요.

면담자 : 형제분는 어떻게 되시나요.

구술자 : 내가 맏이고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이 있는데 작은 여동생이 세종대 예체능대학 학장을 지낸 '이덕분'이라고 국가대표 출신 체조 선수예요. 올림픽 출전도 하고 리듬체조도 해서 아침이면 KBS에 출연도 했었죠. 1945년생으로 지금은 명예교수이고, 남동생은 야구선수로 고려대에서 재능을 발휘하기도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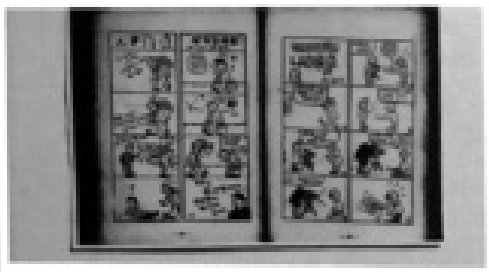
부모님 사진(여동생 결혼식)

면담자 : 형제분들이 예 · 체능에 다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네요.
구술자 : 그러고보니 허허.

면담자 : 학교는 어느곳에서 출발을 하셨나요.
구술자 : 창신초교, 사울사범학교 병설중을 거쳐 인창고에 진학을 했지요. 배구 명문으로 이름이 나 있지요.

면담자 : 의외의 고등학교를 가셨네요.
구술자 : 처음엔 서울예고에 합격을 했어요. 그당시엔 이화여고안에 예고가 있었어요. 남녀공학으로 음악과, 미술과가 있었는데 이후에 무용과도 생기고 했지요. 한반에 30-40명씩 두반이였어요. 그런데 남학생은 한 반에 한 두명 인거예요. 그때만 해도 부끄럼을 많이 타고 그래서 포기해 버렸지요. 그때 후기가 없어 집에서도 큰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신문에 보니 인창고에서 모집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렴 어떠냐 미대만 가면 되지하고 마음먹고 입학했지요. 서울예고는 합격만 해놓고 그만 뒀어요.

면담자 : 관심은 온통 미술에만 있으셨군요.
구술자 :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주위에서 만화가 노릇하라고 그랬지요. 대학가지 말고 돈 벌어라 하면서 말이죠.



서울사범학교 주최/서울시 초등학생 실기대회에서 장려(특선)에 뽑힌 우수 인물고 재학중 교지에 실린 만화

진로를 결정하다

면담자 : 홍익대하면 김환기(金煥基:1913-1974) 화백[1]을 빼놓을 수 없지요.

구술자 : 입학할 때 4학년 지도교수에 학장을 했지요. 그분 노력으로 홍대가 명문으로 거듭난 기회가 되었지요.

면담자 : 김환기 화백의 부인이 김향안(변동림)여사 인 것은 알고 계시죠. 이상 시인과도 인연이 있었던 분인데.

1)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로, 전통적인 한국의 미에 서구 모더니즘을 결합시킨 화가이다. 20세기 한국 미술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를 논하지 않고는 한국 현대 미술의 좌표를 읽을 수 없다고까지 평가되는 작가이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부농 집안의 1남 4녀중 넷째로 유복하게 자랐으며, 후일 그의 작품에서 엿보이는 자연의 서정성은 이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중동중학교를 거쳐 19세 때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도쿄 니시키시로(錦城) 중학교와 니혼(日本) 대학 예술학원 미술학부에서 공부했으며, 졸업 후에도 2년간 대학 연구소에 있었다. 이때 도고세이지 등에게 입체파와 미래파 등 서구 미술 사조를 접했으며, 곧 아방가르드 계열의 추상화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대학 시절 '아카데미 아방가르드'라는 미술 연구회를 조직하고, 백만회를 결성했다. 1935년, 제22회 이과전(二科展)에서 입체주의적 표현 기법이 드러난 〈종달새 노래할 때〉로 입선하면서 일본 화단에 발을 들여 놓았고, 1936년에 도쿄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1937년 유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1940년까지 〈론도〉,〈창〉 등 일본 자유미술가협회전(자유전)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했다. 이 작품들은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 비대상 회화로, 우리나라 최초의 추상 회화이다. 특히 〈론도〉는 대한민국근대문화재로 지정,등록되어 있다. 1940년과 1952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1948년에는 신사실파를 조직하고 홍익대학교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했다. 귀국 후 해방과 전쟁을 거치는 동안 잠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이 시기에 그는 한국적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 백자를 비롯해 산, 학, 매화, 사슴 같은 이미지에 탐닉했다. 1956년, 작품 활동을 위해 파리로 떠났다. 파리에서도 그는 한국적 소재들을 조형적으로 재해석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했고, 1959년 귀국할때까지 파리, 니스, 브뤼셀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그는 이 시기에 서구 작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나머지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잃을 것을 우려해 루브르 박물관에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귀국한 후에는 유네스코 국제조형예술협회 한국본부 회장,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장 및 홍익미술대학(홍익대학교가 1961년 대학정비령에 따라 일시 홍익미술대학으로 개칭)초대 학장을 역임했고, 대한미술협회 부이사장,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등 바쁘게 활동하면서 한국 미술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다음 백과 참조)

구술자 : 나는 그건 몰라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했던 것은 알지만.

면담자 : 김환기 화백하면 '한국추상미술의 거장'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구술자 : 비구상(非具象)으로는 대가지요.

면담자 : 원근, 명암, 채색관계가 보다 더 탈바꿈을 했다는 거지요.
구술자 : 입체파란 사물을 정면에서 옆면에서 주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미술시간에 피카소 그림을 많이 보여줬죠. 언젠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던 백암출신의 졸업생을 만났는데, 상식문제에 이중섭이니 황소그림이니 야수파니 나왔는데 그것만은 자신있게 맞췄다면서 덕분이라고 하면서 용인사거리 십자사약국 지하에 있던 다방으로 손을 이끌고 들어가 차 대접을 하더군요. 선생님은 역시 특이한 분이라고 하면서요. 합격을 했으면 더좋았을텐데.

면담자 : 초중고 대학까지 미술공부는 계속이어졌네요.
구술자 : 회화과 20명을 뽑는데 10대1이고, 서울대는 4대1이였지요. 전국적으로 우수자만 뽑은거지요. 6개월 실기를 배우는데 다들 한가락씩 하던 애들이라 가늠해보니 잘해봐야 내가 등수로 일곱 번째 밖에 안될 것 같더라고요.
국어, 역사 세 가지 정도 보고, 실기는 데생 · 정물화(수채화), 나중에 면접은 김환기 선생이 하셨는데 미술에서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가 해서, 인상파가 좋다고 답변했지요. 그리고 시간나는 대로 덕수궁, 창경원에서 수채화를 자주 그렸다고 하니까 집안은 무얼하냐고 해서 아버지가 상업을 크게 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미술 가르칠 능력은 되겠네" 하시더군요. 그때 비구상 미술을 좋아한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허허. 8년만에 졸업을 했어요.

면담자 : 8년만에 졸업을 하셨다고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구술자 : 형제가 많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쉬며 쉬며 한거지요. 그때 그린 그림들을 아파트 지하에 놨다가 장마에 소실돼서 남은게 없어요. 이젤도 다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괜한 다툼도 생기고 아쉬움만 남았지요. 정년후에 유화를 그리려고 준비도 했었는데. 나름의 전시회도 가져보려고 했고요.

1968년 대학 졸업 사진

2013.5.4.홍대 회화과 친구들과

면담자 :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요. 사모님 함자는요.

구술자 : 동일중에서 만났지요. 아내는 서무실에서 있었고요. 이후에 내가 남강중으로 가면서 공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나이 꽉찬 30세이니 자격이 안돼서 넘어가면 시험을 보질 못해요. 결혼은 1971년에 결혼했구요. 아내는 이숙자입니다.

면담자 : 연애시절은 어떠셨나요.

구술자 : 다 서울이 집이니 출.퇴근시 만나고 동일중이 시흥에 가까워 서울로 편입이 되어 사실은 시흥동이나 마찬가지였죠 서울 경계지요. 비포장에 개발 지역이였지요. 나는 두 번씩 갈아타고 갔지요. 동대문에서 광화문까지 그리고 시흥까지.

면담자 : 교직에 입문동기는요.

구술자 : 교사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늘에 별따기였지요. 대학이라고 졸업장(이수증)을 바라는 청강생이 있고, 입학시험 합격자는 교직학을 별도로 받아야 했어요. 교육원리, 교육과정, 교육사, 교육심리학, 지도방법에 교육실습까지 해야돼요. 내가 교사하려면 신청을 해야하는거예요. “이중섭처럼 가난해서는 안되겠다. 먹고 사는걸 해결해야지.” 결심을 하고, B학점 미만이면 되지 않으니 죽어라 공부했지요. 그전에는 자동으로 준교사 자격을 주었는데 나는 힘들게 했지요. 제도가 바뀌면서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용인으로 터를 옮기다

면담자 : 태성중으로 온 연유는요.

구술자 : 이경환선생 아들 이천규아나운서의 친구가 서울사대 지리학과 출신으로 공립학교 교사인데 청량리 쪽에 있는 학교예요. 우리 후배가 그곳에 미술교사로 있으면서 "이 선배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자주 연락을 해왔지요. 놀고 있던 중에 교내미전을 하려는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채화 잘하니. 내가 가서 도와주고 학교 들어갈 때는 조용히 이용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틈새에 동료 교사간에 이야기가 오간거지요. 용인 태성에서 미술교사를 구한다는 말이지요. 집에서는 아이가 분유를 먹어야 하는데 당시에 분유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아내가 시댁보기 민망하니 용인에라도 가라 하더군요. 이후에 자리 있으면 서울로 다시오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면담자 : 중간에서 이천규씨가 역할을 했군요.

구술자 : 동대문에서 동부고속을 타기 전에 넷이 만나서 청량리 대왕코너에서 차한잔 하면서 이야기했지요. 자기가 이경환 교장선생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후에 버스를 타고 용인에서 내렸는데 집이 역북리라며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참을 가더라고요.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선생님 모시고 왔다고 알리더군요. 사인이 있었겠지요. 알고 있듯이 잠바차림에 소탈하게 뵈는 분이 오시더군요. 훌륭한 분이지요. 주례도 많이 하시고, 서울농대교수로 계시던분이 그분 은사인데 "이경환군 고향도 중요하지만 서울로 오게" 하면서 Y대로 보내려고 했다는군요. 그래도 "저는 고향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소신을 펴나가셨다 해요. 용인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명문 경복공립중학교(5년제)를 1등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신 수재시지요.

면담자 : 이천규씨하고는 연령차이가 있으시죠. 단명을 하셨는데.

구술자 : 46년생이니 후배지요. 술이 과했지요.

면담자 : 음악교사와 비슷하게 남자교사가 드물었지요. 취업은 어땠나요.

구술자 : 예능과목이지만 하는게 많아요. 간판작업도 많이했지요. 서울 같으면 실기강사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차트도 하고 별거 다 했지요.

1950년대 말에는 대학 정원이 대폭 증원되면서 대학 졸업생은 많아졌지만 그에 따른 사회진출의 기회가 제한되어 이른바 고등실업자가 생겨 사회문제가 되었지요. 5.16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그러다가 1975년 이후 역사 이래의 최대 경제 호황으로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대우가 좋은 경제계로 진출하면서 교사 수급에 곤란이 많았어요. 태성도 교원확보가 어려워 학교장이 각 대학을 순회하며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경제력 향상과 고학력 지향으로 여대생 수가 증가해서 교직에 여교사의 수가 늘어났지요. 78년 이후로 여교사의 수가 부쩍 늘어났어요.

면담자 : 부임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미술부의 활성화를 꾀하셨나요.

구술자 : 우선 용인시내의 환경을 조사해 봤어요. 시내에 많은 유흥업소가 범람해 있음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함양을 위해 예능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임 당시 준비했던 재료들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미술 실기능력 배양에 주력을 했지요. 72년, 73년 연속 교내미전을 용인문화원에서 실시하고, 73년 6월에는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열린 전국미술실기대회에 참가해서 조용구, 연경환, 안종오, 조범희가 특선을 했지요.

면담자 : 미술은 이론보다는 실기가 먼저라고들 하는데요.

구술자 : 내 개인적 출품은 없고 미술부 아이들 미술시간에 말고 방과후에 미술실에 모여 지도하고 하면서 노력을 했지요. 신문사 방송국 주최로 하는 실기대회 많이 참여하고, 입상도 해서 도움받아 대학가기가 좋았지요. 1976년9월10일에는 KBS-TV에 방영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제1회 전국 학생 새마을 미술작품 공모전에서 최고상(내무부장관상)으로 홍순구외 6명이 입상을 했지요. 77년 7월 2일에 2회 대회에서는 나건용외4명이 최고상(문교부장관상)을 수상했구요. 그리고 82년 9월에 제1회 경기도 중등학교 미술실기대회에서 중학교는 종합우승을 고등학교는 종합준우승을 했습니다. 83년 10월14일 제2회때도 같은 성적을 거두었지요. 87년 6회까지 빠지지 않고 입상을 하고 88년 10월에는 용인군 중등학생 미술실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또 하게 되었지요.

면담자 : 생각나는 제자가 있다면요.

구술자 : 내가 오던 해(72년)에 고1이던 연경환, 조용구가 있었지요. 이후로는 안종오, 조범희, 송영식, 나건영, 변해익등 많은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하는걸 보면 괜찮아

제6회 태성교내 미술전 관련 사진　　1981. 9.21. 제7회 태성교내 미전(이경환 교장선생님과)

서 이끌어 나갔지요. 그후 근무20주년때 나도 모르게 제자 여럿이 엑셀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자전거 그만 타시고 이용하시라고 해서 면허도 없어 일년걸려 면허증을 땄어요. 아주 혼났지요. 차가 있는 바람에 면허증을 냈으니. 승용차 선물은 아주 드문 일이죠. 너무나 고마운 일이 였고요.

면담자 : 데생연습을 늘 시키셨다고 해서 태성 미술의 전기가 되었다 들었는데요. 용인에 미술 바람이 불게 된 동기도 되었고 우선 입상자가 많아서 이기도 하겠지요.

구술자 : 수원에 나가면 다른 선생들이 '그만 좀 하시죠' 하고 농담을 하곤 했지요. 경기도에서도 우승을 휩쓸었어요. 한 열 번했지요. 계원예술고 교감이 오라고 손짓을 하기도 했어요.

면담자 : 그 당시에 용인에는 미술학원이 없었지요. 미술의 황무지였지요.

구술자 : 기본적인 실력으로 묘사력이 있어야 하고 데생을 많이 해야 하는데 기초가 별로 없으니 연필로 명암을 다루는데 서툴지요. 일본에서는 미술대학 사년간에도 데생을 계속해요. 우리는 해야 일년 이죠. 그래야 크로키 하듯이 빠르게 사물을 그려낼 수 있지요.

면담자 : 담임은 물론 하셨겠고 교외지도도 하셨던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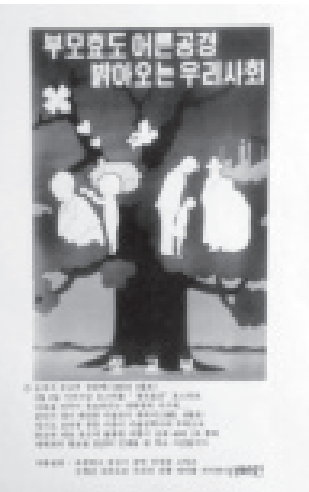
구술자 : 학생주임으로 근무할 때 문제 학생들이 많았지요. 80년대 들어서 더욱 심했어요. 속상한 일이 한 둘이 아니었죠.

면담자 : 80년 2월에 반공포스터 공모전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요.

구술자 : 그때 내무부장관상, 문공부장관상을 받은 후에 핀란드 하이빙카국제미술대회에서 금. 은. 동상을 수상했지요.

면담자 : 미술교사로 재직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구술자 : 1985년4월초쯤에 당시 손제석 문교부 장관때 5월8일 '어버이날' 포스터를 '경로효친'포스터'로 내용을 바꿔 홍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문교부에서 새로운 작품을 응모할때 출품한 작품이 채택이 되어서 홍보용으로 쓰였던게 기억납니다. 경기도 교육청 중등 이준서 미술장학사의 부탁으로 하게 되었지요. 포스터 문구는 "부모효도 어른공경 밝아오는 우리사회"이렇게 했었지요. 출품한 작품이 전체 48대1로 뽑혀 채택되어 홍보하게 된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해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작품을 설명하자면 '육중하고 중심이 잡힌 안정된 고목은 수백년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 예의를 의미'합니다. 황철수 교육감이 칭찬과 아울러 원한다면 공립학교 전근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도 했었지만 그대로 있기로 했던거지요.



경로효친 포스터(당선작)

한국일보 자매지 스포츠레저에 실린 기사

면담자 : 방학에는 어떻게 지도를 하셨던가요.
구술자 : 서울 학생들보다 뒤처진게 많았지요. 그런 연유로 “노력하지 않으면 않된다. 녹이난다. 쉼 없이 하라.” 하면서 채근을 했지요.

면담자 : 1985년 2월에는 한국일보 자매지 ‘스포츠레저’에 선생님 가족이 소개되기도 했던데요.
구술자 : 아내가 인터뷰에 응했지요. 즐거움이 늘 우리가족과 함께 있다고 했지요.

면담자 : 문화원 이사경력이 있으신데요.
구술자 : 박용익, 송재권 원장이 있을 때 하였지요. 꽤 오래 했지요.

생활과학으로 창의력을 키우다

면담자 : 선생님에 관한 자료가 있나 해서 인터넷을 쳐보니 과학부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구술자 : 매년 학사보고 할때 자료가 있지요. 중앙지에 나온 걸 지방지가 옮긴거지요.

면담자 : 생활과학에 대한 창의력 구상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구술자 : 시초는 발명 특허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인 군인(3군사령부)이 방과후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하면서부터 과학반이 시작 되었지요. 미술로만 컸는데 과학쪽으로 해야 차후에 엔지니어도 나와야지 생각하면서 교감되면서부터 물리 화

제5회 태성중 특별활동 발표회

학 전공별로 교사를 뽑아서 교내 과학전시 발명회로 시작해서 늘려갔지요.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기술선생까지 해서 특수반을 만들었지요. 태성에 오는 학생들 중에 선발해서 한달전에 사전연수시켜 30여명 지도한 것이 시작이지요. 본 수업이후에 다시 모여서 했지요. 성적우수자가 많이 응모를 했고요. 일부 학생은 과학고도 갔지요. 그때가 2001년5월20일로 기억되네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초.중.고 발명 이야기 대회에 총 19 작품을 출품해서 금상 3,은상 5,동상 11개를 수상하며 전국 중학교 단제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그래서 과학우수학교로 지정도 되고 했죠.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살아있는 교육을 시행하려고 시도 한거죠. "다가올 미래 사회는 과학 지식이 지배하는 세계가 될것이며 여기에서 도태되는 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고 말했지요. 전교생이 전교원이 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결실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해 11월12일부터 이틀동안 용인에버랜드에서 열린 제2회 전국학생 전자키트 조립 경진대회에 부원 40명을 참가시켜 25명이 입상하여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한번더 가졌지요.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노력이 있어 그러한 결실이 있었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면담자 : 평가는 어느 정도가 되었던가요.
구술자 :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한 인정을 해줬지요.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2 : 2002.5.30.(목)한국경제신문사 주최/전국 초.중.고 발명이야기.그림.공작등 경시대회에서 단체상 및 공로상 표창
사진4 : 2002.12.15.(일) 제6회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발명 이야기 경시대회 과학우수학교장 공로표창(과학기술부장관상)

면담자 : 태성으로 오셔서 느낌은 어떠셨나요. 당시에는 용인의 산업화 바람이 한창 불 때였지요.
구술자 : 처음에야 있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주변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참아냈지요.

면담자 : 지역사회에 부흥을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같이 일하던 이상학 화백 기억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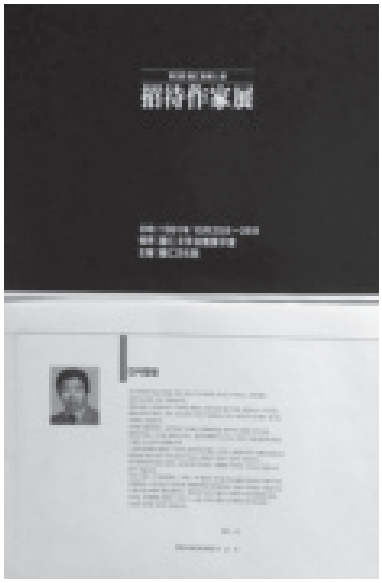
구술자 : 요즘에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내가 바깥 출입이 별로 없으니.

면담자 : 용인 미술인회도 같이 하셨지요.

구술자 : 89년10월1일부터 93년까지 5회에 걸쳐 초대전을 실시했고요. 초대회장을 역임했지요. 문화원 산하단체로 있었지요.

면담자 : 예총 결성 당시 역할은 어떠셨나요.

구술자 : 초대회장은 미술인회에 때에만 했어요. 그 이후로는 학교에 전념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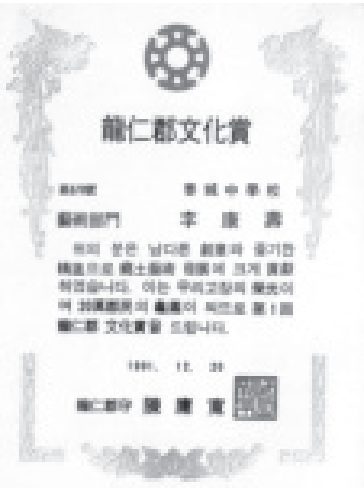


제3회 용인미술인회 초대작가전(인사말)

면담자 : 용인시에서 문화상도 받으셨던데요.

구술자 : 1991년에 제1회 문화상을 수상했지요. 당시는 용인군 이지요. 그리고 97년에 미협창립과 자문위원을 지냈지요.

면담자 : 또 다른 수상경력은 있으신가요.


龍仁郡文化賞

제1회 용인군문화상

1991.12.26.(목) 문화상 수상시 부인과 함께

구술자 : 1996년에 학교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도를 인정받아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에서 교육공로상을 수상했지요. 그리고 2002년에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수상했어요.

면담자 : 1999년 9월22일 태성중 12대 교장으로 취임하실 당시에 '가정 통신문'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내용은 어떻게 쓰셨던가요.

구술자 : 마침 자료를 가지고 있어 소개 하자면 이렇습니다.

교장 재직중 사진

"학부모님께

풍성한 수확이 기대되는 초가을의 내음이 도처에서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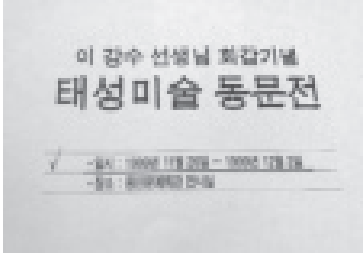
아뢰올 말씀은 2학기를 맞이하여 본인 이강수가 태성중학교 교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교가 보내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밝고 명랑한 학교,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창의적인 학생, 실력있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본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리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이 보람있고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귀댁의 자녀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열과 성을 다하여 멋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에 안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9월22일 태성중학교 교장 이강수"

면담자 : 출사표를 학부모에게 발송 하신거군요.
구술자 : 담담하게 소신있게 포부를 밝힌 거지요.

면담자 : 회갑기념으로 '태성미술 동문전'을 가졌다고 하던데요.
구술자 : 그게 99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용인문예회관 전시실에서 태성미술동문회 회원들이 개최를 했지요. 고마운 일이지요. 고등학교 20회 김종해를 비롯해 연경환, 조용구, 안종오, 송영식, 나건용, 변해익, 이경재, 원종표, 금병국, 김태용 군등이 작품을 냈지요.



회갑기념 태성미술 동문전 겉표지

동문전 출품작

회갑기념 작품전시회(문예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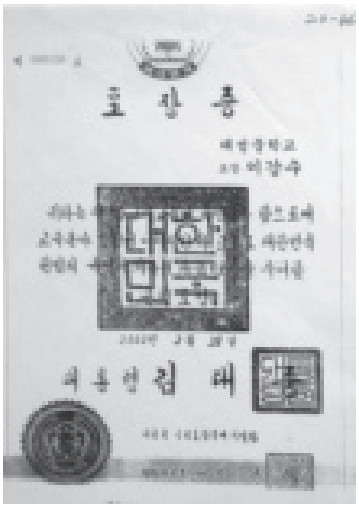
면담자; 어느해인가 용인 향토사학자들이 뽑은 '20인의 용인인물'에도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술자 : 2000년1월이지요. 내 작품 대신 인간작품을 그려왔기에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재능을 계발해 다양한 방면으로 자아실현을 이뤄가야 합니다. 더구나 사립학교에서는 독자성과 자주성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기도 하고요. 교직생활에 대한 희열과 긍지가 있어야지요.

면담자 : 학교 시책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구술자 : 대전제로는 고등학교와 더불어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자" 였지요. 출근하면 학교를 한바퀴 돌아보는게 첫 일입니다. 공중전화 설치해서 핸드폰 사용 제재를 시행했어요. 6대를 층마다 2개씩을 해서 격주로 운동장조회 때 공부에 지장 있으니 명심하라 하면서 당부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말썽이나요. 경찰에 신고도 하니 파출소에서 순경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말하니 그저 웃더라고요. 과학으로 날리니 더 유명세를 탔지요. 면학 분위기 조성이란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게 마음

을 어둡게 하더군요.

면담자 : 교사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술자 : 공교육과 교권을 살려야지요. 정부에서 앞장서서. 학생을 지도하게 해야지요. 사람을 키우려면 기초가 튼실해야지요.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역할을 해게 해야지요. 이념교육이 앞서고 있으니, 인성교육이 먼저지요. 교과선생님이 제 역할을 해야 돼요. 수학선생은 거짓말이 없듯이 깔끔해야지요. 보여줘야지요. 정직하게 엉터리 없이 해야 하고요.



김대중대통령 포장

정년퇴임후 부인과 크루즈여행

예술은 길다 하지만

면담자 : 좌우명은 어떤 것으로 삼으셨나요.

구술자 : '정직'과 '성실'이지요. 부지런하고 예의도 갖추어야 한다고 늘 새겨가면서 수업시간에 작정을 하고 시작하지요. 지금 동백 이마트에서 금은방 하는 제자가 있는데, 아직도 내 기억을 가지고 있더군요.

면담자 : 보람이나 아쉬움이 있다면요.
구술자 : 보람이라면 초심을 잃지않는 소신을 가지고 교직에 임했다는 것이고,현재 교사의 존경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참 아쉽지요.

면담자 : 앞으로 미술은 어떻게 될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하지만요.
구술자 : 이제는 어려워요. 미술하는자가 너무 많아. 하기가 어렵지요. 우리 졸업생들중에 취업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퇴임식때 제자들과 함께

면담자 : 퇴직후에 그림 작업은 전혀 못하고 계신가요.
구술자 : 다 없어지고. 후회돼요. 이상학씨가 더하지 그러냐고 아쉬워 하더군요.

면담자 :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구술자 : 할 이야기야 많지만, 모교를 생각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긍지를 발휘해야지요. 핵심 멤버들이 돼서 명문학교의 역사를 알려야지요. 요즘엔 타 지역 사람이 오히려 나서니 슬프지요. 우울하지요. 섭섭하기도하고.
내가 부임할 당시에는 전형적인 시골학교 였지요. 그땐 참 많이 어려웠어요. 미술실이 없어 창고를 활용하면서 그래도 한해에 2-3명의 미술학도를 키워냈지요. 지금은 미대교수에서부터 디자인계통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 뿌듯하지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순수미술보다 디자인미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가르쳤지요. 나름대로 후회없는 삶과 아름다운 끝맺음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면담자 : 오십년 만에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술자 : 고마워요. 반가웠어요.

용인시 향토문화재 지정에 고증과 연구로
기여한 전통 무용가이며 민속학자이신,

이병옥(李炳玉) 선생

– 학력 및 주요 교육 경력 –

1947년	전라북도 완주군 출생
1968년	서울교육대학(무용전공)졸업
1973년	서경대학교 국문학과(민속학전공) 편입 및 졸업
1979년~1981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
1981년~1983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학과 석사
1993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 취득
1988년 ~ 2013년	용인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1999년 ~ 2001년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 역임
2013년 ~ 종신	용인대학교 명예교수

– 주요 문화 활동 및 수상 관련 –

1981년 ~ 1989년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전수조교
1997년	경기향토사연구협의회 논문 발표 「용인할미성 원주대동굿 조사연구」
2013년	용인문화원 제1회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 「재인 김인호의 생애와 예술세계」
2017년	용인시 문화상(학술부문) 수상
2022년 ~ 종신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명예보유자

개요

- 구술자 : 이병옥
- 면담자 : 김도영
- 1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9월 14일
  - 장소 : 수지구 신봉동 주민자치센타 내 2층 휴게실 (예그리나)
- 2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0월 6일
  - 장소 : 수지구 신봉동 주민자치센타 내 2층 휴게실 (예그라나)

요약정리

이병옥(李炳玉) 선생은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고 오랜 기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우리나라의 민속학 및 전통 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민속학자로 용인의 민속예술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1947년 10월 23일(음)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태어난 선생은 네 살 때 전주로 이사한 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성장하였고 이후 서울교육대학 입학을 위해 1966년 상경한 후 용인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용인에 정착하기 전인 1987년까지 서울에서 생활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다.

젊은 시절 선생은 자신의 꿈을 향해 고단하지만 열정적인 삶을 산 '의지의 한국인'이라 할 만 했다. 서울교대 입학 후 남학생이었기에 무용을 전공한다면 '희소가치'에 의해 교수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서울교대 재학 중 우리나라 전통무용학의 제1인자라 할 수 있던 정병호 교수를 YMCA에서 만나 우리나라 전통 춤의 지평을 민속학으로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서울교대 졸업 후 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도 서경대학교 국문학과에 편입, 졸업하였고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경기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민속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되기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 과정 발병한 폐결핵과의 투병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학업을 이어갔던 과정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선생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한 삶의 의지는 연구논문 80여 편, 학술발표 50여 편, 비평논단 30여 편, 비평리뷰 170여 편에 이르는 연구활동 및 집필활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민속학자로서의 폭넓고 깊이 있는 꾸준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용인과의 인연은 1988년 용인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용인 서리 상덕에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특히 용인문화원 초대 원장이었던 박용익 선생과의 인연으로 용인의 민속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관심은 용인의 민속문화 발굴과 현장연구로 이어졌다. 특히 1992년부터 용인 할미성대동굿의 유성관 선생의 정기공연에서 함께 참여하며 자문 및 학술 고증의 역할을 맡았으며 1997년부터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용인 할미성대동굿과 포곡상여놀이 등의 고증과 자문을 맡아 출품하여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10여 년간 경기도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민속예술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많은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참여하였으며 2016년부터 용인시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용인 할미성대동굿과 포곡상여놀이가 용인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데 현장조사 연구 및 학술적 고증 등 공로가 인정되어 2017년 용인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3년 용인문화원 제1회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김량장 할아버지'로 불리는 용인 출신 춤 명인인 김인호 선생을 조명하는 '재인 김인호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2022년 6월 (사)한국전통춤협회에서 진행한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로 '용인 태생 김인호의 생애와 예술세계 – 스승 이날치의 예술생애와 관련하여'를 발표하는 등 용인 출신 예술인의 생애 발굴 및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 콘텐츠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선생은 용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2022년~종신시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송파산대놀이 명예보유자이다.

들어가며

면담자 :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함과 출생하신 곳, 출생 연도를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 이병옥이고요. 1947년 10월 23일 음력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완주군 구인면 신원리에서 태어났고 4살 때부터 전주로 와서 전주시에서 성장을 했죠.

면담자 : 본관은 어디시고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본관은 연안이고요. 저는 2남 4녀 6남매. 그중에 제가 세 번째네요. 큰 형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누님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여동생이 쭈르륵 셋. 아들 셋 만든다고 하시다 딸만 셋을 두셨던 거지요?(웃음)

면담자 : 부모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아버지는 이 동자 구자. 어머니는 나도래. 그냥 동네에서는 깡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깡줄이 깡이라고 그랬데요. 어머님이 태어났을 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시골에 많이 있었죠. 단명하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시렁에다 올려놓으라고. 아마 그렇게 올려놔서 그냥 깡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도 오래 사시진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집안마다 예전에 그런 사연들은 다 있잖아요? 회갑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로는 아주 단명하신 건 아니고요.

1955년 가족사진 (이병옥 선생은 왼쪽 두번째)

서울교육대학 입학

면담자 : 서울교육대학을 다니셨는데 전주에서 학교 진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거기에서 고등학교까지. 서울로 오게 된 배경은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실컷 놀고 살았는데, 그전에는 다 그러고 살았죠? 다행히 집안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때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을 봤어요. 우리 반에서도 12명이 봤는데 1등부터 12등까지는 전주북중학교를 보고 이런 식으로. 6명이 합격했는데 그중에 저도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주고등학교. 거기에서는 명문이니까 집안이 조금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형님도 전주북중, 전주고등학교 그러니까요. 공부하란 소리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때는 다 노는 게 일이지. 다만 희망은 스스로 노력해서 하여튼 성공하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내가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폐렴에 걸리셨어요. 그때는 폐렴에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골초셨어요. 술 먹는 건 못 봤는데 담배는 그렇게 피우셨거든요. 아마도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영세민처럼 살았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 당시 아버지가 아프니까 집을 팔아서 산 밑에 어떤 집으로 이사를 해서 더더욱 힘들게 살았죠. 그렇게 돼서 결국 대학을 갈 등록금을 집에서 댈 수가 없었어요.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길을 몇 가지를 했었는데 다 안 되고 최후로는 가장 빨리 졸업하고 빨리 직장을 얻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연결해 볼 때 국립대학이고 사범계열이고 교대는 그때 2년제였어요. 네 번 등록금만 내면 바로 선생님으로 발령받으니까. 서울대학교로 갈 형편은 어림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고민 끝에 (서울교대를 간 거죠). 그리고 바로 대학공부를 계속하려면 대도시인 서울에 있어야 되니까. 서울대학을 못 간 한도 풀어야 되고 (해서요).

면담자 :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구술자 : 그래서 교대로 들어가서 군대 갔다 와 가지고 가까스로 자기 밥벌이하는 형님한테 네 번만 등록금 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형님 덕분으로 가까스로 졸업하고 제 인생 길이 그렇게 되었어요.

면담자 : 성장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아버님이 편찮으면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그 시기였네요? 고민도 많고 힘드셨겠어요.

구술자 : 그렇죠. 학교 다니는 건 뭐 다니는 거지만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니까. 영세민 그걸 해가지고 등록금을 면제받기도 하고. 뭐라도 노동이라도 하면은 돈을 버는데 노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요. 그래도 아버지 형제들이 여럿이 되다 보니까 십시일반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도 대고 약값 대고 해서 몇 년 만에 낫기는 했는데. 그렇게 좀 힘들게 그 시절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생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못 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시절엔 다 절약하고 살았는데 궁핍에 익숙해졌었죠. (서울교대 입학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림이었어요. 저는 갈 길이 있었었는데... 저는 수학하고 과학을 잘했어요. 다른 과목들은 빵점 맞아도 그런 과목들은 100점을 맞았었으니까 자연계열이 제 적성이고. 그래서 유전공학이나 그 시절에는 그건 그냥 상상만 하던 시절이지만 그다음에 생물학, 화학, 전자 그쪽. 그것이 제 인생 목표였고요.

면담자 : 무용전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시절 무용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 그쵸. 저 역시도 춤은 여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남자가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시절이었죠. 중고등학교 때 남자들이니까 주로 철봉대에서 놀잖아요? 남자 아이들은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철봉이나 뜀틀이나 평행봉이나 이런 데서 주로 놀고 구기종목은 심폐 기능이 좋지 않아서 못했어요. 거기서 조금 언질을 하자면 아버지가 골초셨었는데 집도 좁은데 집안에서 옛날에는 담배들 다 피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폐렴이 있지만 저도 폐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심폐 기능이 좋지 않아서 구기 종목 이런 거 뛰는 거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철봉대에서 놀았고 또 거기서 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서만 주로 놀았는데 학교에서는 체육 선생님이 나름대로 선수들을 (공부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지만 그래도 선수처럼)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체조부에 뽑혔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 가지고 시 체육대회 이런 데도 대표로 내 보내주고 했어요.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아마추어보다는 좀 나으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 다 배워야 되잖아요? 국,산,사,자,체육,미술,음악 다 배우는데 어린이들한테는 체육도 중요하지만 체육 중에는 무용이라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용 교수님이 남자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용은 여자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남자 교수

님이 저걸 하시네?'하고. 한 학기 끝난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전공을 선택을 해야 돼서 거기다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자연계니까 자연을 생각했는데, 무용 교수님이 학점을 A+를 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아보고 무용부 들어오라고 해 여자들 판인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게 희소가치가 있다. 만약에 내가 이걸 계속하더라도 교수님처럼 나도 학자가 될 수 있고 교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 인생의 행로가 그 길도 하나의 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용부에 들어갔죠. 전공 시간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남자가 둘이나 또 있더라고요.

면담자 : '희소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네요?

구술자 : 왜냐하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 뭔가를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그다음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내 전공으로서 앞길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항상. 또 건강 문제에서도 춤을 춘다는 것은 운동과 같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때 목표는 이공계였기 때문에 그 대학을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주경야독. 그래서 저는 졸업과 동시에 한양대학교 자연계열 공대에 편입을 했어요. 3학년으로 편입. 원래 제 인생의 목표였으니까 졸업 1, 2년 후에. 그런데 편입해놓고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내가 잡았던 원래 목표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두 분야가 서로 충돌이 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최종 결론을 내리죠. 지금 하고 있는 이 길로 한번 도전해보자. 이건 도박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희소가치'. 내 노력으로 이공계로 갔을 때 내가 그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근데 이쪽은 없네? 남자들이 없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역할의 분야 속에서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빛이 보일 수 있겠다. 그 갈등 속에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한양공대를 포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다시 편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되는 쪽으로 해서 민속학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때는 야간 대학이 많았어요. 야간 대학으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서대문에 있던 국제대학이 있었어요. 그게 서대문 로터리에 있었는데 재단은 이대(이화여대) 재단이에요. 민속학을 하려면 우리 전통문화 하려면 국문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편입을 했어요. 다행히 시험에 합격해서 3학년 편입했어요. 국제대학의 이름이 지금 서경대학으로 바뀐 거예요. 제 전공은 내 스스로 해야 되니까 민속학에서. 거기 와서 강의를 해 주

시는 김태곤 교수라고 민속학 하시는 그분이 민속학 강의를 해서 열심히 듣고 그 길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계기가 됐죠.

시련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삶의 목표

면담자 : 민속학을 전공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구술자 : 우리 전통 무용이라도 학문적인 배경은 민속학이니까 우리 전통문화를 연구하려면 무용이라는 거가 아니고 그냥 전통 무용에서 시작하니까요. 저는 뒤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라볼 시간도 없었구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니까 친구들도 나를 보면 '마이웨이'. 내 길만을 가는 친구. 내 별명이 '마이웨이'였어요.

면담자 : 서경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셨는데 또 계속 공부를 하셨어요?

구술자 : 당연하죠. 당연히 박사까지는 해야 되니까. 서경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는 무용이라는 학문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당시에는 대학원이 야간에는 없었고 교육대학원만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대학원이 체육교육 속에 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체육교육학과 대학원에 응시를 하는데 아무 데도 안 받아줘. 그래도 교대를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지만 교사자격증 2급. 정교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내 과목만 졸업하면 (정교사) 자격증은 저절로 나와. 국어를 하든 사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미 교사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인정되기 때문에 내 과목으로서 이제 중등 (정교사) 2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대학원을 무용 쪽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어교육학과랑 무용교육학과를 공부해요). 지금도 현재 무용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는 무용은 예술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체육 과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무용계에서는 충돌을 하고 독립 과목을 해달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과목을 축소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인하지 않아요.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국어, 산소, 수학, 이런 게 없어요. 자꾸 통합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움직임교육 속에 무용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면담자 :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그리고 군대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구술자 : 아버지가 폐렴으로 고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도 폐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늑막염에 걸렸는데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어요. 가을 무렵인데 갑자기 대학생 휴게실에서 각혈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몸은 조금 야위고 힘은 들었는데... 그리고 바로 겨울방학이라 집으로 내려가서 보건소인지 병원인지를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앞이 깜깜하면서 그냥 빈혈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책상 붙잡고 한동안 있으니까 앞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는 학교를 못 갔죠. 못 다녔잖아. 그래서 겨울 방학 내내 약을 받아다가 먹고 개학이 됐는데도 학교를 갈 수 없고. 그래서 병석에 누워서 약 만 먹고 있다가 중간시험 때인가 그쯤 되니 학교 가고 싶어서 미치겠네. 휴학계를 내려고 그랬는데 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걸 부정해야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약을 한 6개월 먹으니까 전파력은 없다고 그래. 나은 건 아니고 1년은 더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중간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휴학하지 않고 그냥 이어서. 그래서 1년 동안 약을 먹고 병원에서 이제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졸업해서 발령을 받았어요. 폐결핵을 앓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군대 징집 신체검사에서 말하자면 떨어져서 군대를 못 간 거죠. 군대를 못 가고 학교 선생을 하면서도 몸이 좋지 않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목표는 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제가 대학을 편입을 한 거예요.

면담자 :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 엄청 많이 했죠. 저는 또 하나의 엄청난 시련을 안고서 제 인생의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폐결핵이 재발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백약이 무효, 재발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폐결력은 힘든 거지만 그때는 건강관리소라고 서울 서대문에 있었어요. 거기에 다니면서 약을 먹는데 그 당시의 약으로는 내성이 생겨서 안 돼.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한 주먹씩을 먹는데... 위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죠. 그때 마이신을 매일 먹어도 별 차도가 없고. 오른쪽 폐 위쪽에 구멍 세 개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약이 듣질 않아. 그래서 서른 살 될 때까지 투병 생활을 했어요.

면담자 : 교직에 계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그걸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술자 : 병과의 싸움. 보통 사람은 인생 그 자체를... 저도 인생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싶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말하자면 폐결핵 3기를 넘어섰으니까. 죽음에 임박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미국에서 스트레트마이신이 업그레이드된 가나마이신이라는 것이 새로 주사약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어요. 그걸 매일같이 맞았어요. 매일 병원에서 맞으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그걸 (주사) 놀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서 아버지가 놔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날은 내가라도 해야 돼. 서른 살 때 화곡국민학교에서 장춘국민학교로 (발령받아) 장충동에 학교로 왔어요.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5년 만에 그쪽으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정말 죽으려고 그런 생각도 많았고.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이 정도면 좀 상처가 아문 거 같다. 하지만 한 일 년만 더 약을 먹자.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체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뱀탕을 1년 동안 먹어보자. 최후의 수단으로 이거 이상의 약은 없을 것이다.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확실하게 끝내는 것은 그때는 뱀탕 집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었어요. 마침 장충국민학교 앞에 생사탕 집이 있더라고. 처음에 가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마시는데 꼭 닭국물 같아. 생강 과자 그거 하나 딱. 아침에 갈 때 주문을 하고 돈을 주고 가면 퇴근할 때쯤 다려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꼭 짜서 마셨죠. 살모사 한 마리, 화사 두 마리 해서 세 마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동안을 꼬박. 그러니까 수백 마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끝내요. 그래서 30대를 그렇게 맞이했어요. 20대는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 대학원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친구들, 동창 모임, 모든 모임은 다 끊고 당시 오로지 학교 생활과 내 공부, 건강 이것만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결혼은 서른다섯에 갔어요. 지금은 다들 그렇게 늦게 하지만 그 시절에는 20대면 다 결혼했어요. 35살이면 중년으로 남자들이 그렇게 늦은 사람이 없었죠.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5년 동안 지켜볼 때 병을 분명히 나은 것 같다. 근데 이미 망가진 몸. 그 독약 같은 약을 먹어서 저하됐던 체력. 그때는 창문 열어 찬바람을 맞았다 하면 그다음 날 바로 감기가 들었어요. 면역력이... 그런 속에서도 내 갈 길을 위해서 홀릭했어요.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선생의 뒤를 이어 걷는 자녀

면담자 : 혹,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하는 자녀분이 계신가요?

구술자 : 있어요. 어렸을 때 애들을 데리고 그때는 용인민속촌에 초청 공연을 해요. 송파산대놀이를 제가 전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민속촌은 노는 곳이잖아요? 거기 놀이마당에서 우리는 공연할 때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와서 같이 놀면 아빠가 춤추는 거 보고 마당에 나가서 아들들도 춤을 춰요. 그런 자질이 있어요. 세 살, 네 살 때. 그래서 큰 놈도 여섯 살 때 우리 송파산대놀이 기본 춤을 다 떼었고. 지금은 41살로 현대모비스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있는데 공부하느라 못했다가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나와서 전수를 받고 있어요. 작은놈도 받고 있고요. 둘 다. 그리고 작은놈은 전공 자체를 우리 국악을 했어요. 작은 놈은 예술적인 끼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기 때부터. 저는 교육자니까 보면 알잖아요? 작은놈은 공부를 안 시키고 그냥 놀게 했어요. 그래서 작은놈은 판소리를 해 가지고 중앙대학교 음악학과를 나오고. 전주로 중학교 유학을 보냈어요 전주에 있는 예원예술중학교로. 전국의 예술중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다 찾아보니까 판소리를 전공하는 학생은 뽑지 않더라구요. 중학교가 있긴 한데 다 악기만 해. 그런데 전주만 소리를 뽑아요. 근데 내 고향이겠다 그래서 잘 됐다 나는 땡큐죠. 이놈이 판소리를 하게 된 게 3학년 때인가? 보니까 공부에는 영 아니고 그 쫑알쫑알 통신표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연기력이 좋다는 거. 음악성이 좋다는 거. 그러면 우리 전통으로 하면 판소리가 제격이다. 나는 알고서 판소리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죠.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할미성대동굿을 용인초등학교에서 할 때 데리고 가서 1부 공연에 오비연 씨가 와서 판소리 하는 걸 보고, 사랑가 부르는 걸 보더니 '어, 저 소리 참 듣기 좋다!'고 어린놈인데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구). 오, 그러냐? 내가 3학년 때 얘기를 했는데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지가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내가 너 바로 배우게 해 주겠다.' 그래서 판소리를 배우게 시켰어요.

면담자 : 작은 아드님은 지금 어디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구술자 : 그놈이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라와 고등학교는 국악예고로 와 가지고 성우향 선생님한테서 판소리를 배우고 중앙대 음악학과를 나와서 판소리 전공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놈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해. 깜짝 놀랐어요. 평생 공부를 안 하던 놈이 웬 공부? 남들은 입시 공부하느라고 죽을

똥 싸는데 자기는 소리만 내지르고 신나게 해서 대학까지 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놈이야.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한다니 웬 뚱딴지인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인 소리 들을라 하면 삼십 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에 자기는 뭐 할 건가? 맨날 밑에 생활하면서 소리만 할 것인가? 아버지를 보니까 공부와 실기를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는 모습이... 자기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해. '난 모르겠다. 그것은 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너 공부를 하는 거 상상도 못 했는데 니가 알아서 해.' 그 시련을 어쨌든 20~30년은 겪어야 명인 소리를 들이니까 그 시련에 플러스 공부라는 영역이 그것도 이론이 있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고려대학교에 지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판소리를 연구하는 교수가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 저도 그분은 알지만 얘기도 안 하지. 가서 면담을 몇 번을 했대요. 처음엔 이제 떨어졌죠. 당연히 필기시험 이론 시험을 보니까 한문하고 국문학사를 시험을 보는데 또 떨어지죠. 근데 또 찾아갔어요. 찾아간지도 모르고 나는 관심 안 가졌으니까. 지켜만 본 거니까 알지만 지켜보고 있죠. 그러더니 다시 면담을 하더니 '정 그렇게 뜻이 된다면 도강을 하라.' 학부 와서 도강을. 국문학사 이 수업이 있으니까 도강을 해라. 그리고 대학원 시험을 준비를 했죠.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한문 학원도 다니고 한문이라는 거를 공부를 안 했는데 국문학 가려면 한문을 해야 되잖아요? 한자 천자문 공부를 또 학원을 다니면서 자기가 또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어. 그래 가지고 그 선생님 밑에서 석사, 박사 7년 동안에 다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 강사로 나가고 있어요.

춤의 지평을 민속학으로 열어 준 스승을 만나다.

면담자 : 전통 무용을 접한 때는 언제부터였을까요?

구술자 : 제가 서울교대를 다닐 때 교사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집중을 시키는 방법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 레크레에이션 연구회를 조직을 했어요. 우리 교대생들이. 거기는 게임, 포크 댄스, 노래,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써클이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무용과니까 당연히 포크댄스를 내가 맡은 거지. 그래서 포크댄스를 배우려고 서울 종로에 있는 YMCA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66

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게 1966년도 말 1967년도 초 때가 될 거예요. 왜 YMCA를 알게 됐냐면 서울로 우리가 대학을, 다 우리 고향에서 왔잖아요? 지방에 남는 친구도 있었지만 서울로 온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야 되잖아요? 학과들이 다르고 대학들이 달라졌지만요.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가 YMCA예요. 전석환 선생님이 노래 부르기 중앙회에서 펼치는 노래부르기. 전석환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전개될 때 건전가요 노래 부르기 중앙회를 해 가지고 아주 빼어난 분이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서양 노래 팝송을 해 가지고 레크레에이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작은 돈 들이고. 그 YMCA 광장에 꽉 차게 대학생들이 모여요. 그리고 호떡집에 가서 호떡 먹는 게 재미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뜨거운데도 물고 질질 흘려가면서. 근데 내가 포크댄스를 맡다 보니까 서울교대 무용 교수인 김양곤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포크댄스도 있지만 YMCA에 정병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중앙대 교수님인데 포크댄스를 가르쳐요. 정병호라고 하는 그분도 남자예요. 그 남자 교수님이 세계 여러 나라 YMCA를 통해서 포크댄스들을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즐기는 시간이야. '포크댄스의 밤' 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화요일 날 밤에 맨날 두 시간씩 해요. 그래서 나는 또 그걸 또 배우기 시작해요. 배워다가 또 우리 포크댄스 연구회 교대생들한테 또 가르쳐요. 서클에서 가르쳐주고. 레크리에이션으로서 축제도 지도하지만 아이들을 집중해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노래라든가 그런 춤.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우다 가르치게 돼서 저는 스승을 두 사람을 모셨어요. 바로 정병호 교수님. 정병호 교수님은 우리 전통무용학의 제1인자예요. 그래서 그 전통 무용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은 그 시절에 전국에 있는 명인들을 다 모셔다가 서울에서 공연을 시켰어요. 그 시절에는 아주 그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들, 기녀들, 그런 토속적인 사람들, 병신춤 하는 사람들, 공옥진 씨 같은 사람들. 서울 YMCA무대에 와서 (공연)해서 매스컴에 다 알려가지고, 와서 취재해가지고 막 대서특필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인간문화재가 됐어요. 지금 오늘날 인간문화재가 된 그 사람들이.

면담자 : 정병호 선생님이 그렇게 분위기를 끌어주신 거였네요?

구술자 : 그렇죠. 우리나라의 춤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시켜주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셨어요. 나는 스승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전공을 바꿨는데. 바꿨어도 최고의 교수님들을 만나서, 오늘날 내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절 우리의 전통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존재예요. 그 시절을 아는 사람

2009년 스승 정병호 교수와 마지막 기념사진

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 시절의 춤판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 시절의 명인들을 아는 사람은 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 스승을 잘 만난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무용계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요즘 우리 중견 학자들도 저보다 더 학술적으로 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야별로. 나는 폭넓게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그 시절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 하나예요. 우리나라 전국 팔방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만 빼놓고. 그 명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서울로 모셔서 그분들을 한참 시절에 공연을 시키고 매스컴이나 무용계나 우리 민속계에 알려가지고 그분들이 다 국가문화재, 인간문화재가 되게 만드는 장본인이 정병호 교수예요. 그 시절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그분과 함께 현장을 다니고 제가 그분을 40년을 모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미 뭐 젊은 시절부터 현장을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죠. 춤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준 건 김양곤 교수님이신데 제 춤의 이론을, 역사를, 춤의 어떤 지평을 민속학적으로 열어주신 분은 정병호 교수님. 정병호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민속 무용의 대가시죠.

면담자 : 지금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민속 예술은 정병호 선생님의 영향이 크셨네요?

구술자 : 그럼요. 처음부터 저는 전공을 그렇게 잡았어요. 교대 다닐 때도 우리 전통 무용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 민속학과를 들어간 이유가 그거니까. 저는 제 목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내 고향이 예향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악을 했고 농악에 대한 관심이 컸었고 모든 것이 포함돼 있으니까 농악 속에는. 농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속. 그리고 제가 또 가장 많이 현장을 다닌 게 굿판.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족 문화의 원천이에요. 팔도굿을 지금까지 다녀도 그 사상적인 거나, 깊은 것은 지금도 잘 몰라요. 아는 것도 많아졌지만 모르는 건 아직도 많아요.

면담자 : 굿에는 즉흥적인 부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구술자 : 표현은 즉흥성이지만 이미 수천 년의 뿌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 뿌리와 거기서 펼쳐졌던 그 악가무의 예능성. 이것은 대대로 골자는 들어가 있어요. 다만 풀어내는 방법, 순서 이런 것은 즉흥적이고 현장성이지만. 특히나 강신무 쪽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강신무 쪽은 악귀를 쫓는 살상 무기를 가지고 춤을 추니까 무섭죠. 귀신을 쫓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세습무들은 신들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축원을 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야. 뱃속에서부터 예술의 끼를 받아 온 예술가들이죠. 강신무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신이 내린 사람들은 굿을 못 하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점 밖에 못해요. 공수는 될 줄 아니까. 근데 어려서 (신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부터 악가무를 다 배워. 노래와 무. 공수 내리는 거, 소리까지 춤까지 다. 그러니까 강신무도 문화재로 지정된 종목들은 다 악가무의 춤, 노래, 소리가 다 공수가 들어 있는데 다 학습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다음에 공수 내리는 것만 자기 신내림에서. 근데 세습무들은 공수는 누구 내려요? 신이 내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축원을 할 뿐이야. 완전히 성격이 다르니까 거기에 예술이 다 담겨 져 있는거야.

용인과의 인연

면담자 : 용인과 인연을 맺으신 건 언제세요?

구술자 : 내가 인창고등학교 국어교사도 그만두고. 내 할 일은 민속의 현장을 연구를 하러 다녀야 하는데 학교에 매달려 있고 거기다 인문계니까 저녁까지도 시간이 안 돼요. 주말이나 방학밖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창고등학교를 퇴직을 한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 대학교수가 되어야겠다. 대학교수가 되면 수업이 좀 여유가 있고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있고. 대학은 내 수업만 가르치고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시간에 공연이 있으면 휴강하면 되죠. 그다음에 보강을 해주면 되니까 전국 어디든 다닐 수가 있어. 내가 교수님들 보고 뼈저리게 느낀 게 이거야. 내가 교수가 되어야만 내가 민속학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중고등학교 선생 가지고는 절대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용기고 결단이었죠.

면담자 : 바로 교수가 되신 거예요?

구술자 : 아니죠. 그땐 벌써 자식을 둘을 낳고 키울 땐데 너무 힘들었죠. 3년 반 걸렸는데 그래도 저는 짧은 편이에요. 퇴직금 받은 거 다 까먹고 너무 힘들었죠. 인생의 목표니까 언젠가는 되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희소가치. 그리고 서류를 냈을 때 항상 마지막 최종까지는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전통 무용의 이론으로서 평론가로 등단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는 무조건 저는 합격에 올라갔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사립학교 같은 데는 재단과의 관계나 나무를 심어줘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저는) 없거든요. 누구한테 부탁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실력으로 뽑아주는 데 밖엔 갈 수 없었어요. 3년 반 만에 끝낸 게 용인대학교예요. 여러 군데 서류를 냈는데 4년째 됐을 때 지방의 국립대학 하나에서 연락이 오고 용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립대면 좋잖아요? 국립대냐 서울 근교냐?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고민이 어딨어?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어야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지 지방에 가면 그냥 파묻혀 버린다. 그래도 서울 근교니까. 그래서 제가 용인을 선택했어요. 그게 87년도에.

면담자 : 용인의 할미성 대동굿의 고증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술자 : 아, 그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30회. 30년이 흘렀는데, 제가 용인에 와서 산 지가 벌써 35년이 되었어요. 용인대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무용과 교수이면서 민속학이니까 용인의 민속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때 박용익 초대 용인문화원장님 하고 저는 정말로 가까이 지냈어요. 그분은 진정한 용인의 향토사학자예요. 지금까지는 원장님들 수없이 많지만 향토사학자라고 이름을 붙여줄 만한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면담자 : 용인의 민속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이었나요?

구술자 : 박용익 원장님은 어떤 용인의 행사나 민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면 꼭 저를 불렀습니다. 저랑 같이 다녔으니까. 그분과 인연에서 참 고마운 게 제가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장을 딱 발령받았을 때 한 보따리를 들고 저를 또 찾아왔어요. '대학원장님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가져올 건 없고...' 이러면서 먹을 건가 뭘 들고 오셨어요. 그렇게 소박하세요. 그분도 돈이 없는 사람인데 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와 주셨는데 정말 눈물겹게 그게 고맙더라고요. 이분은 진짜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연구를 여기 향토사학자나 문화원에

서 꼭 하셔야 돼요. 그분의 업적과 그동안의 족적을 다 찾으셔서.

면담자 : 유성관 선생은 선생님을 만난 후 할미성 대동굿을 처음 하신 건가요?

구술자 : 그전에 신을 받았죠. 신내림을 받아 가지고 굿을 하는데 이 양반도 똑똑한 친구야. 무당 치고는 이렇게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굿에 대한 내력이나 깊이나 사상에 대한 것은 너무나 학자 이상의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인연을 맺고 있어요. 92년에 첫 발표회 때부터 같이 했죠. 처음 인연은 (고) 박용익 문화원장님 하고 관계가 있었죠. 같이 유성관 선생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도 연구를 했죠. 그래서 경기도 향토사 제1집에 제가 학술 논문도 쓰고 했잖아요. 도에서 발표도 하고. 그때 내가 경기도 문화재위원도 하고 할 때니까.

용인의 민속학 연구 – 할미성대동굿의 연구와 고증

면담자 : 선생님께서는 할미성대동굿의 고증에 참여하셔서 할미성대동굿이 용인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는데 기여한 바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셨어요?

구술자 : 힘든 것보다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 양파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게 굿의 세계예요. 유성관 선생이 큰 역할을 해 줬죠. 용인의 만신들이나 용인의 민속 자료 있는 곳은 늘 같이 다녔으니까 (찾으러). '주저리당'이라고 이게 볏짚으로 당을 두 개를 만들고 속에다가 옹기나 그릇에 여러 가지 곡식 같은 걸 담고서 불을 밝히고 서낭당처럼 고사를 지내는 것을 용인 지역은 '주저리당'이라고 해요. 그것도 옛날 그대로 보존된 데가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현장도 가고, 굿할 때 쓰는 제사 지내는 여러 가지 기물 같은 것들도 다 대갓집에 가서 그때 보고, 그런 현장. 그 다음에 마을마다 다 굿을 했었으니까 옛날에. 다섯 군데 굿당도 다 같이 다니면서 굿도 하고.

면담자 : 용인에 굿당이 많았어요? 당시 자료 조사하신 92년도에요?

구술자 : 굿당은 다 사라졌는데. 그때도 다 없어지곤 했지만 그 자리를 알아. 그다음에 서낭당 있잖아요? 장승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같이 다니면서 그 굿을 같이 주관을 해 주는 거, 협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유성관이 워낙 똑똑하니까 그 지

2022년 할미성대동제 아침, 잣고개 서낭에서 산신제를 마친 후 기념촬영
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유성관 선생, 유성관 선생의 오른쪽 이병옥 선생,

역의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만신들이 굿하는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고증을 해주고. 그때 노인네들 얘기도 듣고 유성관이 다 설명해주고. 똑똑해요. 기억력이 좋고 총기가 있어서 많은 굿 문서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성관은 충청도 앉은굿까지도 다 해서 설위설경(設位設經) 종이로 지화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신 같은 것들을 종이로 오려가지고 늘어 놓는 거. 앉은굿에서는 충청도 굿에서는 그게 빠질 수 없어. 앉은굿에서는 서서 굿을 잘 안 하고 앉아서 독경을 주로 해요. 지금 꽃도 세우고 상을 많이 차리는데. 거기에 설치를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무신도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충청도는 다 오려 가지고 한지를 엮은 거를. 그걸 오린 거. 지역마다의 또 특색이 성격이 달라요. 그 다음에 황해도 만신인 김금화 선생한테 가서도 또 굿을 배워요. 굿에 내력을. 그만큼 전국을 다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앉은굿과 황해도 굿까지 다 섭렵을 해요. 그래서 작두굿, 작두 타기도 열두 계단을 넘어서 마지막에 13개의 작두를 타는 것까지도 다 지금 재현하고 있잖아요. 작두타기는 지금도 해요. 올해는(2022년도) 10월 10일에. 매년 작두 탑니다. 그게 클라이맥스에요. 관객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죠. 거기서 복주머니 던져주면 그거 받는 거. 그날 와서 꼭 보셔요. 김량장 다리목에서. 옛날에는 용인 공설운동장에서도 했었고요. 굿은 중간중간 기록을 해서 그 문서를 제자들한테 넘겨. 그걸 무속말로 마달이라고 해. 그래서 그걸 외워서 표현을 하고. 거기다 현장성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엄청난 사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선정하고 사람들 대면해서. 기본적인 마달이 있어야. 그런 용어를 아무도 모르지. 민속학이나 그쪽에 좀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면담자 : 그게 굿문서예요?

구술자 : 네. 아니면 글을 써가지고서 그 문서를 제자들한테나 그 대표(에게) 대물림 굿을 해. 내가 모든 무속, 특히 무신도. 불교에서는 탱화라고 하지만. 여러 대표 신들 수십 분의 신들을 모시니까 그 신들을 모신 그 무신도. 그것과 무구. 무구는 굿 할 때 도구들을. 무당들은 (굿을 할 때) 맨손으로 안 해.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 신을 모시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을 상징하고 신이 내리는 어떤 의식의 무구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면담자 : 선생님께서는 민속학자시니까 전국의 굿을 다 보시고 연구하셨을텐데 '용인 할미성대동굿' 경우 '용인'이라는 지명이 붙잖아요? 다른 지역의 굿과 용인 할미성대동굿이 비교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술자 : 그렇죠. 많죠. 할미성 대동굿은 장단 구조가 조금 단순한 편이고, 장단 구조는 단순하고. 그다음에 악가무로 볼 때 춤은 유성관 선생님이 '월도창검무'라고 해서 월도 하나 들고 삼지창 들고서 추는 월도창검무 이런 거. 그다음에 삼색기하고 같이 드는 그런 춤들을 잘 춰요. 그다음에 춤 출 때 어떤 보법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경기권의 무당들은 이 보법이 들이 숙배 내리 숙배, 들쑥 날쑥. 이래요.

면담자 : 다리(발) 놀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술자 : 다리가 이렇게 갔다가 다이아몬드 스텝처럼,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앞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옆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돌고.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 돌고 제자리에서만 하다가 돌다가 도무라고 뛰어 제자리에서. 강신무들이. 서울, 경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고요. 고사상을 젯상을 차려놨잖아요? 이게 다 달라. 신들이 달라. 이쪽 (재단의 왼쪽–관객이 바라보는 쪽으로는 오른쪽)은 소당이라고 해서 채소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식을 안하는 신들은 왼쪽에. 육식을 안하는 점잖은 신들. 이쪽(재단의 오른쪽–관객이 바라보는 쪽으로는 왼쪽)은 육당을. 마지막에 군웅신이라든가 장군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은 여기는 고기를 잔뜩 올려놨어. 여기는(왼편) 채소하고 떡 하고 이런 것만 올려놨어. 그래서 먼저 소당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육당을 갔다 와. 그다음에 앞에 이렇게 갔다 오고 중당 그리고 평당 옆으로 왔다 갔다 오고 그다음에 회당. 그 걸음법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굿이 나는 전세계 무당들의 굿 의식 속에서 가장 최첨단으로 퍼포먼스로 발달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 전세계에서도 이런 무당이

없어요. 두 번째는 신에 따라서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굿거리 할 때마다 옷이 다 바뀌어요. 전세계 무당들이 그런 신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중에서는 공연학적으로는 최고의 예술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면담자 : 우리라고 하시면 경기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기는 한데 북방하고 중부권까지는 옷을 다 갈아입어. 그런데 남부지방은 세습무당들이기 때문에 굳이. 다 신한테 빌고 있는 건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 이 강신무는 일원화가 돼 있어요. 강신무들은 자기가 신이야.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남부는 그냥 자기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빌어. 신마다 불러 모시고 빌고. 그런데 경기도는 중간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세습무도 옷을 갈아입어.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한 쪽이 있고 그다음에 완충지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가잖아요.

면담자 : 신이 강한 쪽은 북쪽이고, 우리 경기는 중간 완충지겠네요?

구술자 :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그냥 고이 적삼 치마저고리에 하얗게 입거나 또는 색깔 옷을 입고 쾌자 하나만 걸치면 끝나. 모든 굿거리를. 그렇지만 거기에도 독특한 굿거리가 한두 개는 있어. 그때는 그 옷을 입어.

면담자 : 용인의 할미성대동굿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요?

구술자 : 그다음에는 그날도 봤겠지만 대방위 놀이. 그게 다른 지역에서는 가상자 놀이. 가짜로 이제 죽었다고 그래 가지고 저승사자를 속이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지키고 있거든요. 언젠가 데려가려고 죽음에 가까이 갈 사람들은. 근데 그냥 가짜로 죽은 걸로 해서 하면은 '아,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저승사자가 다음부터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가짜로 이제 상여를. 죽었다고 해서 염도 해 가지고 관에다 넣어서 정말로 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지방마다 조금씩은 있는데 중부권, 중부 내륙권, 거북놀이 문화권 쪽이 조금 더 발달돼 있어요. 거북놀이가 안성, 여주, 이천, 용인, 충청북도 음성 그 언저리들이 거북놀이 산발적으로 있어요. 그쪽이. 대방위도 그런 게 있는데 이 대방위굿이 대부분이 다 사라지고 충청북도에 이제 대돗음이라고 해서 조금 있는데 그것도 거의 사라지고 여기만 아주 철저히 (잘 보존되고 있어요.)

면담자 : 지금 용인 할미성대동굿에서만 거의 철저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대방위굿도 굿의 한 종류인 것이지요?

구술자 : 아, 그럼요. 굿거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굿거리 속에. 한 굿거리라고 해서 이거 하나가 아니라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면담자 : (2022년 10월 10일) 할미성대동제하는 날 선생님께서 해설하시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그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요상한 날씨였잖아요? 작두 타는데 문제없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구요.

구술자 : 비가 오면 더 힘들어지죠. 지금까지 작두 탈 때 비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본 적은). 발이 젖어가지고 저 상태에서는 발바닥이 베일까 잠깐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데서도 보면 무당들도 부정을 탔다든지 할 때는 베어요. 내가 아는 수원에 무당도 내가 수십 년을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는 그날 아주 부정 탔는지 언짢았는데, 어찌어찌하다가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도 굿할 때 하나 그냥 팍 찍혀가지고... 이게 다 신의 조화이기 때문에 부정을 타던지 뭐가 잘못했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면담자 : 그런 경우 굿하는 무당도 신의 조화로 받아들이나요?

구술자 : 그렇죠. 수원 만신은 그 후로는 몇 년간을 안 하다가 또 최근에는 하더라고. 한 10여 년을 안 하다가. 거기는 음력으로 10월 7일 날. 저기 성곽 수원성 옆에 있는데 그 근처에.

면담자 : 리플릿에 유성관 선생이 '1993년 대한민국 계단 작도 창시자'라고 쓰여 있던데요?

구술자 : 네. 처음으로. 옛날 무녀들의 그 스승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용인에 있는 무녀들을 다 찾아 돌아다니면서 전수받고 조사했으니까 유성관이. 예전에는 쌀가마니를 쌓아 놓고 쌀가마니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작두를 놓고 그 위에서 작두를 탔고요. 올려서 탑처럼 쌓아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탑처럼 하나, 둘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했다는 증언을 들어서. 그걸 쌀가마니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은 쉽게 계단 작두로 창시를 한 게 1993년에 유성관이 처음이에요. 그 뒤로 계단 작두는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아졌어요.

면담자 : 처음 창시자는 유성관 선생이네요. 12개의 계단 작두를 차츰차츰 올라가고 맨 마지막 13번째 작두에서는 높이만으로도 긴장되더라고요. 관객 입장에서는 퍼포먼스지만 작두 타는 분의 긴장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구술자 : 신이 실려가지고 한다고 해요. 장군신이 실려서 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의 의지대로 하는 거라고.

면담자 : 다른 지역의 대동제는 어떤가요?

구술자 : 지역에 따라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굿이 세습무 굿거리인지 강신무 굿거리인지,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 중부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표현법이 달라지지. 강신무의 굿이냐 세습무의 굿이냐. 용인은 세습무의 굿이었는데 강신무들이 꽉 잡고 세습무들이 다 죽으니까. 단골들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면담자 : 예전에는 용인에 세습무가 많았어요?

구술자 : 그렇죠. 세습무라 할지라도 또 신이 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니까. 그랬다가 지금은 완전히 강신무들만 하지. 세습한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무당을 내려주려고 하나? 집안에서 내 자식들한테 무당 하라고 안 하잖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습무가 다 사라지는 (거지.)

면담자 : 할미성 대동굿이 2016년 용인시 향토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이 됐잖아요. 문화재로 지정이 될 당시 선생님께서 써 주신 추천서가 영향력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천서를 써 주신 거예요?

구술자 : 추천서를 내가 썼는지는 기억도 안 나고. 심사위원. 문화재위원이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 나 혼자가 심사위원이 아니고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연희 쪽이랄까? 이게 물론 연희 쪽으로. 심사위원들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위원도. 유형 문화 쪽을 주로 하는 위원도 있고 나 같이 연행 예술 이쪽 민속쪽으로는 내가 유일했었으니까. 그래서 좀 영향력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다른 분야니까. 다른 분야 할 때는 나도 꿔다 논 보릿자루 일 수 있지.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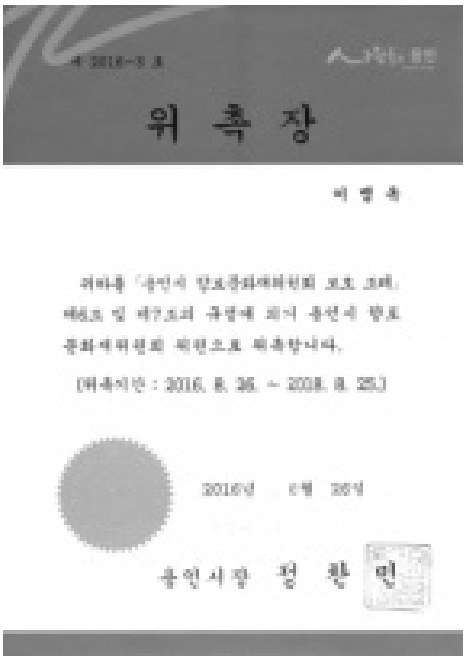
면담자 : 심사할 때 총 몇 분 정도가 문화재위원으로 참석하세요?

구술자 : 한 12명 정도 되는데 참석은 보통 10명 이내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 본인들이 우선 문화재 신청을 했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제가 다 살펴보고 옆에서 코치도 하고 했지만 그거 했다고 하면 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심사하는 입장인데. 그냥 자문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창기부터 내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아니까 나한테 이제 물어보죠. 자문은 내가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면 심사위원회에서 내가 심사 회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으로 해서 내가 끝냈죠. 그리고 유성관이 워낙 또 다 보고서를 냈으니까 심사 보고서로. 그리고 현장에 조사위원이 가요. 두 사람이. 현장에서 굿하는 걸 보고서 기록하고 인터뷰하고 내용을. 이게 지정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면담자 : 현장 조사가 미리 이루어진다니 현장 조사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구술자 : 그렇죠.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보고서를 내. 이것은 지정 가치가 있다 없다 그렇게. 그다음에 조사위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문화재를 지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 첫째는 지역성. 이 지역에서 전승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랫동안 이것을 종사해 왔는지 그런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다음에 예술성. 이게 우리 전통문화로서의 문화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술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전통문화로서의 전승 가치가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다음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대한민국 문화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대표성이 있는지. 지역마다의 특성.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거랑 다 똑같다면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아까 대방이굿 같은 경우는 용인의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들어간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날도 얘기했지만 갓 위에다가 큰 머리를 올렸네? 다른 데서는 가채를 쓰고서 그다음에 갓을 쓰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위 촉 장

이 병 욱

[위촉기간 : 2016. 8. 26. ~ 2018. 8. 25.]

2016년 8월 26일

용인시장 정 찬 민

2017년 용인 할미성대동굿이 용인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 될 때 용인시 향토문화재위원으로 활동

거기에 대해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여기서는 해 왔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설화가 있잖아. '마고 할미 설화' 이것은 대단한 거지, 용인의 정신문화입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 그게 우리 마고 할미 설화와 신화는 아시아권에 다 있긴 있는데 드문드문.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변형이 돼서 지역의 특성하고 맞아떨어져. 마성 고개와 관계돼 가지고 거기 할미 산성을 쌓고 마고할미, 할아비가 자기 딸을 희생으로 시키기 위해서 그냥 서울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나막신을 신고 갔다 오라 그래. 이것은 (대결에서) 지라는 뜻이지. 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들은 거기다 산성을 쌓게 하고. 그러니까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갔다 왔는지 한양을 먼저 갔다온 거여. 딸이. 그래서 아들을 희생을 해요.

면담자 : 웬만한 신화에서는 보통 여성이 제물로 바쳐지는데 용인의 '마고 설화'는 아들이 희생되더라고요.

구술자 : 그런 것들이 마고 설화의 특성이에요. 여기만의. 왜냐하면 남존여비사상과 유교사상 이런 거 때문에 남자를 지키죠. 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용인의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조사위원들이 보고서를 그렇게 낸 거예요. 그리고 향토문화재 법이 용인시에 처음 생겨가지고 그 해에 된 거지. 조례가 생긴 거예요.

면담자 :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될 근거가 없었네요?

구술자 : 법이 없었지. 경기도만 있었지. 아니면 국가문화재나 경기도 문화재까지만. 그런데 이제 시문화재라는 부분도 생겨난 거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위원도 조직하고 문화재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조사위원들이 둘 다 다 불가라고 판정이 돼서 올리면 지정을 못해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정하고 싶었는데도 조사위원들이 불가 판정을 했을 때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조사위원으로 나갔을 때는 심의 때 문화재위원이면 심사 회피를 해야 돼.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지. 특징이 또 있었는데 그다음에 산군탈놀이.

면담자 : 산군탈놀이는 역할극 같은 거예요?

구술자 : 그렇죠. 이것도 할미성대동굿과도 마고 할미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신제에서 우리는 주로 호랑이잖아요. 그다음에 무속에서는 산신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 쇠로 만든 말 형상들이 있어요. 그 쇠로 만든 말의 역할이 이제 천리마잖아요. 잘 달리잖아요. 그다음에 날개가 달렸으면 하늘 날고요. 천마죠. 그래서 모든 전령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속에서는 말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이제 백말, 백호, 청마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 화합하고 그런 줄거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국의 마을굿을 하는 데는 다 탈놀이가 다 전송되었는데 사라져서 지금 안 해서 그럴 뿐이지. 동해안 별신굿이나 강릉 단오굿도 탈굿이 다 들어 있어요. 그때는 무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악사들이 그 연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쪽도 그렇고 북쪽에 배연신굿하는 김금화 만신 그쪽에서 영산 할멈, 할아범 거리가 탈을 쓰고 하는 그런 탈굿을 해요. 그다음에 해주 본영 탈굿에서 김정숙 만신이 인천에서 보유자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탈굿이 또 있어. 거기서는 땅줄타기도 하고. 땅줄타기는 바닥에다 놓고서 그 위에서 줄타기하는 흉내들을 다 내는 거예요. 재미있게 우스게 꺼리죠.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경기도당굿은 줄도 타고 각종 연행을 끌어다가 굿 사이사이. 왜냐하면 사흘 나흘씩 하니까 굿을. 구경꾼들이 재미가 있어야지 오지.

면담자 : 선생님께서 유성관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대동굿을 3박 4일 했었나요?

구술자 : 그때부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할 때 했던 것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에 다 했지. 대신 산신제하고 서낭당 도는 것은 그 전날. 그다음 닷새 전에는 조라술을 잠가요. 술 하나 담은 걸로 다섯 군데를 도는 거지. 할미산성 마성 고개에 IC 옆에 산으로 올라가면 옹달샘이 있어. 거기 가서 보면 낙엽이며 흙이 모아졌는데 이걸 좀 파가지고. 물은 쫄쫄쫄 흐르니까 파서 한참 있으면 맑은 물이 나오잖아. 그때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로 신주를 빚어. 지금도. 강릉단오제에도 그렇게 해요. 부여에 은산별신제도 상탕물이라고 해가지고 저 부여 백마강에 있는 골짜기 위쪽에 상류에 가서 물을 떠왔다가 그걸로 조라술을 담그는데 며칠만이면 바로 술이 돼요. 다른 때는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건 아주 짧은 시간에 술이 돼요. 그리고 강릉단오 같은 경우는 좀도리(절미)를 해. 항아리에 동네 사람들이 집에서 좀도리(절미)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밥 지을 때마다 한 주먹씩만 덜잖아. 그것이 모이면 한 단지가 되는데 그걸로 떡도 해 먹고 뭐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강릉 시민들이 모아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단오 때가 되면 그걸 넣어서 신주를 빚어. 그 곡식으로 신주를 빚어가지고 무료로 그날은 (나눠 먹고).

용인의 민속학 연구 – 포곡상여놀이 연구 및 고증

면담자 : 포곡상여놀이도 용인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때도 문화재위원이셨나요?

구술자 : 그럼요. 문화재위원을 계속했었으니까. 작년 재작년에 내가 그만뒀지. 거기에 나이 많은 전승자도 있었고 젊은 권순기 같은 젊은 친구도 있었고. 어쨌든 소리로서 명인이니까 또 대물림하는 젊은 사람도 또 있고. 내가 놀라운 것은 너무 열심히들 연습한다는 사실이야. 다 직장 다니고 일하니까 퇴근하고 밤에 만나. 그 마을 부녀회에서 나와가지고 밥을 뚝딱 그냥 거기서 다 해. 부녀회들이 모여서 미리 밥을 다 해가지고 집합하면 거기서 밥을 다 먹고 포곡 레스피아인지 거기 종말 처리장이 있어. 거기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야. 밤중에. 그런데 거기 회장이 워낙 사람이 좋아. 김인선인가 뭐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다리를 조금 절어. 사람이 좋아서 자기 주머니 다 털고 부회장들도 다 털어, 부녀회에서도 돈을 다 내.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마을 공동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오는 거예요. 바빠도 다 나와서 모이는 숫자가 보통이 아니야. 50명 이상씩 모이니까. 전체가 80명씩도 하고. 협동이나 단합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매일 연습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지. 왜냐하면 그때 민속경연대회인데 도 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는데 나를 고증자로 집어 넣어놨어. 고증 연출로. 그래서 제가 가서 쭉 했었죠. 가을에 민속경연대회에 나가기 전에 그때 내가 놀랐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마을이 용인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히 모이다 보니까 놀이가 여러 가지로 구성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물도 지나가고 외나무다리도 건너가고 징검다리도 건너가고 끊어진 다리도 지나가고. 그런 것들을 연출 효과로 살린 거지. 근데 옛날 마을마다 가보면 징검다리 다 있죠. 옛날에는 큰 다리가 어디 있어? 다 외다리지. 원래는 네 줄로 하는데 외다리를 건널 때는 딱 두 줄로 줄어. 줄이. 상여 메는 사람들이 사열로 가는데 두열로 해가지고 양옆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경사지게. 왜냐하면 외다리니까 쉽지 않죠. 그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큰 나무가 있으면 어렵잖아? 기어가야 되잖아. 말하자면 앉은 걸음, 오리걸음으로 걷는 것도 있고 길 가운데 우물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가장자리에 두 줄 말고 가운데 줄에 사람이 빠져. 그리고 우물을 지나가. 그런 연출을 하는 거죠. 원칙은 비켜가는 건데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시켜봐가지고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이건 빼고. 이제 끊어진 다리 같은 것

들도. 다리가 홍수가 나서 끊어졌어. 상여는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가. 뒤에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고 앞에 사람들은 공중에 떠서 가. 그래서 끊어진 다리니까. 그런데 상여는 길잖아. 앞에서 떠서 가 뒤에 사람들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너가서 딱 디뎌. 그때부터는 끊어진 다리를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은 다 다리를 들잖아요. 안 그러면 물속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딱 잡혀지면은 그리고 가면 대부분이 끄트머리 남으면 요 사람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그냥 붙들고 딸려가게 되어 있어 상여가 기니까. 그리고 포곡읍에 상여 나가는 길목에 그런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지명을 지도에다가 표시해가지고 하는 거야. 지도상으로. 재현은 운동장에서 하지만 그 지도상 마을의 그런 요소요소를 나름대로는 찾아서 넣고. 그래서 그때 은상을 받았었어요.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인정이 된 거잖아요? 인정된 거고 또 용인시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되고요.

용인의 민속학 연구 – 백암장과 송파산대놀이

면담자 : 선생님께서는 전국구라 할 정도로 민속예술에 대한 안목이 넓으시잖아요? 용인과 처음 인연을 맺을 당시 용인의 예술에 대한 인식이나 발전 정도는 다른 도시에 비해 어느 정도쯤이었다고 생각되시나요?

구술자 : 아주 낙후된 데야. 왜냐? 용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 구성현, 양지현,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죽산군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문화가 달라요. 지금도 처인구하고 여기 수지하고 이쪽 기흥 쪽은 도농복합도시라도 전혀 교류도 없어요. 제가 35년 전, 1988년 이후 용인대 교수가 되고 그 해 가을 10월 15일, 그때 88올림픽 끝나고 바로 이사를 왔거든요 (용인으로). 그때 용인의 본토라고 있는 용인시청 부근에는 삼군사령부 밖에는 없었어요. 마을 형성이 안 됐어요. 시골인데다가. 시청도 이제와서야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 당시엔 군부대와 영향되는 문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용인의 문화는 죽산인 백암 문화가 용인의 토속 문화, 전통문화의 농악을 비롯한 사당패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안성 남사당과 백암 사당은 같은 문화권이라 그 전통문화. 남사당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중심이 백암. 왜? 백암장이 워낙 컸으니까. 그때는 전

국의 15대 향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소시장이 있어야 돼. 우시장 거기가 돈이 가장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백암장이 커서. 어쨌든 안성 영양권의 백암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안성 문화 향유가 되고 모이는 집결지이기 때문에 그게 더 활성화되고. 용인의 지형도를 보면은 양지, 원삼, 백암 쪽으로 전부 다 농지야. 여기는 산악지대 나머지는 묘지밖에 없어. 왜? 뭐 600m, 700m 높은 산은 하나도 없고 300m, 400m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묘지로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묘지가 가장 많은 데가 용인이에요. 그러니까 민속촌, 에버랜드 같은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지 나머지 문화권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용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문화나 예술에 대한 인지도도 거의 약했다라고 볼 수밖에. 물론 용인 태생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고향에서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서울로 궁중으로 갔지. 그 속에 김인호라는 사람이 있어.

면담자 : 김인호 선생에 관한 학술대회를 올해 하셨는데 김인호 선생 관련 연구를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구술자 : 송파산대놀이와 용인과 관계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70년대에 할아버지들한테(송파산대놀이 하시던) 인터뷰를 한 분 한 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춤사위도 정리하고 옛날 탈 그림도 다 그려놓은 것을 40년 만에 이제 오픈하는데 춤사위도. 그때 증언 속에 그 할아버지들이 '젊은 시절에 배개미까지 와서 공연을 했다.' 백암은 원래는 명칭이 배개미였어요. 배개미장이 굉장히 컸어요. 우시장이 있는 장이면 그 지역에서는 최고 큰 장이야. 왜냐면 큰 돈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소 값이 크니까. 그래서 배개미장이 용인 지역에서는 최고 큰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탈춤패들이라든가 연희패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소소한 장은 안 가요. 큰 장만 돌아. 이 경기 남부에. 그러니까 송파장은 전국에서 15대 향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송파는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배 타고 오지, 삼남에서 다 올라오지, 배를 타고 건너기만 하면 이제 서울이지. 그러니까 한강에 서울의 북부권에서는, 한강의 상류권에서는 가장 큰 가까운 장이지. 물론 마포장은 시내 쪽에서는 가까운 장이지만. 그렇게 장이 컸고 을축년 1925년에 한강 홍수 때 270개 객줏집이 있었는데 다 떠내려갔어요. 송파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객줏집이랑 술도 팔고 밥도 팔고 거간꾼들이 장사하며 서로 주거니 받거니도 하고. 그러니까 270여 개의 식당과 호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컸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래서 송파장 그다음에 판교장 그다음에 베개미장. 그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 산대놀이 문화권이 경기 남부권까

지 안성까지. 안성에는 남사당패가 있었죠. 그게 다 그 관련성이 있어. 배개미장이 아시다시피 죽산이었잖아요? 죽산으로서 이제 중심이었으니까. 안성장, 죽산장. 이 죽산 안에서는 배개미. 그 중심에 있다가 용인으로 편입이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일대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던 게 평야잖아요. 용인 죽산로하고, 안성, 죽산, 평택 그 다음에 용인의 백암, 백암리 이쪽이 양지 그쪽인데. 이쪽은 다 산이지만 그쪽은 다 평야잖아요. 그래서 백암장이 엄청 컸고요. 그래서 거기를 소달구지를 태워가지고 탈과 의상을 소품들 다 싣고 이렇게 이제 장을 도는 거예요. 장돌뱅이를 그렇게 해서 공연을 했다고 증언을 해줬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100년 전쯤 되지. 그러니까 내가 70년대에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 거죠.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전수조교로 1981년~1989년 활동, 2022년부터 명예보유자로 인정.

면담자 : 선생님께서 용인과 인연을 맺기 전이었네요?

구술자 : 아, 그럼요. 그때는 내가 용인대 교수가 될 거라는 생각도 없었지만 '배개미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용인, 용인.' 그러시더라고. 원래 배개미라고 불러. 그걸 한자로도 하고 요즘 말로 해서 배개미하고 비슷한 말로 만들어 백암이지. 그래서 내가 용인대학교 와서 배개미장의 백중놀이 때 (송파산대놀이를) 재현하자고 제안도 하고. 송파산대놀이패가 100년 전처럼 가서 공연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김장환 사무국장이 그 얘기를 듣고 용인에서 초청공연도 한다고 그랬는데... 많이는 못 하고 한 번 했었어요.

면담자 : 100년 전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클 것 같은데요?

구술자 : 그것이 내가 송파산대를 한 (사람으로) 용인에서의 보람은 그것을 재현하는 거.

용인 출신 예술인의 생애 연구 – 김량장 할아버지, 김인호

면담자 : 김인호 선생 얘기로 돌아갈까요? 김인호 선생께 이동안 선생이 많은 것을 배우셨고, 이동안 선생에게 한국민속촌에서 농악단장으로 계셨던 정인삼 선생이 또 많은 부분을 배워서 경기고깔소고춤으로 무형문화재가 되셨잖아요? 김인호 선생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 김인호 선생은 기록에는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대의 민속은 구전심술하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했지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판소리만은 기록을 해서 책을 낸 사람이 있어. '조선 창극사' 정로식인가? 이 양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당시 기록 속에 김인호 기록이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나와. 그 스승 이날치가 있고 이날치의 스승 박유전이 있고. 그 당시 다른 예능 쪽은 전혀 기록이 없던 시절인데 판소리만큼은 판소리꾼들 중에서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 민속학자들이 최근에 이동안 선생님이 증언을 해서 그 증언 속에 스승 김인호가 나와. 그리고 초창기 때 이동안 선생에게 춤을 배운 사람들의 책 속에서도 복돌이 할아버지 김인호 얘기가 또 거기도. 복돌이 김량장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동안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는 수원 화성재인청. 재인청에 지방재인청이 향당이라고 있어요. 이건 경기도의 중심이고 화성재인청이 수원에. 그다음에 안성에 지방재인청의 향당에 '안성향당무'를 내가 문화재로 지정했는데, 그때 지금 전승교육사로 있는 유청자 선생님이 이동안 선생님하고 교류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청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분들을 다 알아요. 조동화 할아버지라든가 뭐 등등. 그래서 유청자 선생님 증언 속에서도 김인호 할아버지는 '김량장 할아버지라는 별칭이 있었다.' 그것도 증언을 해줬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유청자 선생님은. 그래서 별명이 '김량장 할아버지' 아니면 '복돌이' 야. 근데 왜 복돌이인지 김량장인지에 대한 것은 누가 증언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면담자 : '김량장 할아버지'의 경우 용인의 '김량장'과 지역적인 관련이 있겠지요?

구술자 : 김량장과 관련되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김량장을 처음 창건해서 그 장이 만들어졌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김인호 할아버지는 김량장을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줄타기꾼, 연희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개미장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인호

의 고향이 원삼 아니면 백암이라고 이동안 선생님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속학자 손태도 교수가 이동안 선생님 살아생전에 조사할 때 그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이동안 선생 증언 중에 그렇게 원삼 아니면 백암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면담자 : '김인호 선생은 용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술자 : 그럼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근거가 되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제가 논문 쓴 거에 나온 것은 그런 얘기들. 용인 태생이라는 거. 그다음에 복돌이 할아버지 또는 김량 할아버지라는 거, 그다음에 스승이 이날치. 이날치에 대한 기록은 정노식이 쓴 '조선창극사' 그 책 속에 있어. 경기재인청은 경기 남부권에는 가장 중요한 (재인청이라 할 수 있어요.) 팔도재인청이 있었는데 흐지부지하고 각자도생으로 바뀌어져요. 다 사라지고 각자도생하고 이름도 막 바뀌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남은 것은. 궁중 인조 12년에 산대도감을 폐지를 해요. 국가에서. 폐지가 된 동기는 나라가 자꾸 쇠퇴하니까 연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라고 해서 폐지를 했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청태종한테 남한산성에서 국치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됐는데. 청나라를 섬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걸판지게 산대도감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도감을 폐지해 버려. 그렇지만 국가의 행사라든지 왕의 탄신이라든가 회갑연이라든가 이런 거면 잔치를 벌려야죠. 그러니까 도감은 폐지했지만 재인들을 불러올라면 경기도가 제일 가깝지. 여긴 한나절이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수원 화성재인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산대도감이 폐지는 됐지만 재인청의 재인들을 불러다가 항상 연희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줄타기, 땅재주, 버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 봉사도라든가 수원 화성 낙성현 그림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동안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여기 화성 출신이니까 거기서 어렸을 때 줄타기를 배우고 춤도 배우고 악가무를 다 하니까 남자들 장단부터 시작해서. 궁중 1900년대 되면서 광무대가 생겨나요 1902년에 협률사가 생겼지만. 협률사는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예요. 지금 서울 세문학교 광화문 근처에. 협률사라는게 단체명이기도 하고 그게 조선시대로 말하면 재인청과 같은 개념이에요. 협률사는 낮에는 공연장이지만 밤에는 활동사진도 보여줘요. 협률사는 말하자면 국가기관으로 만들었는데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그때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병이 돌아가지고 재현을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못하고 협률사가 흐지부지 없어졌다가 1908년인가 1907년인가 광무대를 만

들어요. 무대는 지금 동대문 밑에 옛날 광장시장 있는데, 종로 5가 동대문. 거기 옆에 있는 시장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로 활동사진이 들어오니까 무성영화 시대에 낮에는 판소리하고 줄타기하고 놀다가 밤에는 이제 활동사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광무대나 그런 것들이 몇 군데가 생겨요. 거기에 판소리, 줄타기, 이런 연희패들을 수원 화성재인청 사람들이 최고 잘하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공연을 해. 거기에 김인호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줄타기를 못 해. 그래서 박춘재를 실뜨기하고 줄타기를 시키고, 김인호는 나이가 많아져서 춤을 가르쳐요. 춤선생을 해요. 거기에 재인들이 많아요. 이동안 선생님 증언을 보면 여러 스승한테 다 배워. 그런데 김인호 선생님 어렸을 때 줄타기를 잘했지만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춤만 가르쳐요. 그래서 이동안 선생님이 직접 춤을 열일곱 종목을 배웠고 김인호 선생님께. 그 춤의 종류를 한 30여 종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김인호 선생이 워낙 잘해주고 그러니까 김인호 선생 집에서 이동안 선생이 숙식을 해 아들처럼. 다른 데서 돈 많이 줄 테니까 줄을 잘 타니까 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 왜 김인호 선생님하고 인연이 깊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동안 선생님하고 김인호 선생님. 수양아들처럼. 이동안 선생님이 16세 때 광무대에 1920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김인호 할아버지가 칠십 대 노인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1850년에서 60년 사이에 출생한 걸로 추정이 돼요. 돌아가시는 건 1930년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김인호가 매일신보에 1914년에 9번이나 등장을 해. 신문 기사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뛰어나니까 줄타기는 못 하니까 줄타기만 빼놓고는 재담소리, 중 춤(승무). 재담소리 등등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리, 판소리 이런 것까지도 등등. 그렇게 1년 동안에 등장을 하다가 싹 사라져. 신문에 안 나와. 그런데 1930년에 마지막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매일신보에 다시.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재담소리만 조금 하고 말았는데. 그다음에 한성준이라는 사람하고 이동백 명창들이 서로 대담을 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나와 있어. 그 책 속에 '그 시절에 가장 최고의 명인은 김인호였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쌍놈으로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예우를 해줬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보람 있게 살았다. 그렇지만 그때 예인들 중에서 최고는 김인호 라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915년 신문 기사에 구파조합 부조합장을 김인호가 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구파는 전통 예술하는 사람들 조합. 신파는 신예술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동백과 한성준의 '조광'이라는 잡지의 기록 속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김인호 할아

버지가) 순종 임금님 앞에서 땅재주를, 두꺼비 재주를 했는데 너무 많이 굴러가지고 순종 임금님 무릎팍까지 굴러갔다는 일화가 (있어). 그러니까 어전광대잖아요. 임금님 앞에서 하는 광대. 그러니까 옛날 줄타기하는 영화 있었죠? '왕의 남자'. 지방에 있는 광대들의 최고의 영광은 임금님 앞에서 광대하는 거잖아요.

면담자 : 김인호 선생은 어전광대셨네요?

구술자 : 그럼요. 이날치도 어전광대고 그 스승 박유전도 어전광대, (흥선)대원군의 형이 판소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박유전을 불러서 판소리를 하게 하고 이날치를 불러서. 이날치는 날치라는 이름이 날센도리처럼 줄타기를 잘한다고 해서 날치라는 이름을. 근데 박유전이나 이날치의 소리 속에 새소리라든가, 판소리 속에서, 재담소리 속에서 새소리 또는 흉내 내는 소리를 너무나 똑같이 잘 해서 솔거가 그린 담쟁이 소나무로 새가 날아왔다 듯이. 그러니까 이날치하고 박유전이 판소리 속에서 내는 새소리가. 판소리 속에서 '뻐꾹'하면서 이런 멕이는 소리를 너무나 잘 내니까. 그러면 박유전, 이날치한테 배운 김인호는 똑같이 소리를 잘한 거지요. 그 스승에 그 제자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어전광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인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면담자 : 김인호 선생을 부각할 만한 행사가 용인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술자 : 그러니까. 2013년 문화원에서 내가 학술 발표했었어요. 이번 년도에 두 번째 한 것이고. 이번 제 논문에는 박유전, 이날치, 김인호로 이어지는 예능성, 예능 내용에 대해서였어요.

앞으로의 계획

면담자 : 선생님,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술자 : 이제는 남을 위한 일들은 다 그만두려고요. 그렇게는 잘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는. 왜? 내 것에 대한 일을 안 했어. 논문을 백 몇십 편을 썼는데 그걸 책을 내지 못했어요. 집대성을 못 했어. 내가 80살이 넘으면 아무래도 기력도 떨어질텐

데... 현장도 이제 잘 안 다닐 거고. 지금도 많이 안 다니는 편인데.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물론 자료는 있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놔야지 자식 놈이라도 아니면 내 후학들이 뭔가 책이라도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정년 할 때 그거 한 거 말고도 그 후로도 수없이 써왔기 때문에 (논문을). 평론, 논평집도 그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인간문화재 생애사를 쓴 게 몇 개가 있는데. 승무의 인간문화재셨던 이매방 선생님 그분 책을 내가 했었고. 또 곧 출간할 게 전라북도 문화재 호남 살풀이춤의 최선 선생님 그분 책이 이제 출판사에 들어가 있어요. 또 송화영이라고 젊은데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춤을 너무너무 잘 추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생애사를 현장 연구해서 한 3년 (작업)해서 책을 냈어요. 근데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서전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료관이나 박물관을 (세우는 거). 집사람이 이름을 지었죠 '탈.춤 박물관'으로. 내가 탈춤을 췄으니까. 내가 춤 쪽으로 무용민속학으로는 가장 원로가 됐고 많이 알았고 현장을 다녔으니까. 그다음에 탈춤을 내가 췄으니까. 그 밖에 연희 쪽 다 포함되겠지만 주 타이틀을 탈.춤 하든지, 탈☆춤으로 하든지. 이젠 이게 목표인데... 엊그제 공주에 백제문화제 공연 갔다가 틈이 잠깐 나길래 공주 민속극박물관이라고 신우성 민속학자가 있어요 '한국의 민속극'이라는 책을 낸 그분의 아들이 지금은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전화했더니 와도 된다고 해서 바로 갔죠.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 다 썩어가고 있어요. 도에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사설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야 나도 헛된 꿈을 꾸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 맡으라 해도 안 맡는다고 해요. 너무 자료가 방대하니까. 그래서 아주 기증해 버리려고요. (그 사람도) 민속박물관이라든지에 기증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걸 유지하려고 음식점을 해가지고 벌어서 그걸로 쓰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했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겼다고.

면담자 :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구술자 : 그렇죠. 저도 전주 국립유산원에다가 기증할 걸 생각했어요. 국가기관이니까, 문화재청 산하니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들이 이제 연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가 관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일단은 자료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있는 이 아파트(수지 풍덕천동에 있는)를 처분해가지고 용인대학교 고개 넘어 거기에 (예전에) 제가 살았어요. 이동 서리 상덕에. 용인대 교수가 되고 88년에 10월 15일 용인으로 이사 왔으니까. 시내 쪽보다는 시골 쪽

이 어디 없냐고 복덕방을 갔는데 거기 딱 있다고 그래. 나는 '이건 신의 조화다. 나한테 계시를 준 거다.'해서 그리로 이사를 갔지. 그러더니 (이사) 가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땅 좀 팔아달라고 다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많이 소개해 주고. 그리고 대출받아서 중덕에다 땅을 샀어요. 서리 고려백자 도요지 뒷편 중덕에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료관을 짓든지 아니면 내가 노후에 들어가서 살든지. 그게 마지막 제가 할 일. 그리고 이제 송파산대놀이는 불러주면 가고 안 불러주면 안 가도 되고.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옛날 얘기해주고.

면담자 : 앞으로 예술 관련된 활동의 영역을 넓히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구술자 : 자꾸 정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더 늘릴 일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명대로 못 사니까. 용인의 전통문화가 사실은 용인이 특례시가 됐지만 문화예술로 봐서는 소도시만큼도 못 돼요. 그동안에는 난개발에 올인하다보니까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술단 하나 제대로 변변한 것도 없고 전통 예술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용단이라든가 국악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어떤 행사 때마다 행사장에서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축제장에 가서 오케스트라 공연합니까? 우리 전통을 해야 돼. 풍물이 있어야 되고 춤이 있어야 되고.

면담자 : 용인의 예술 관련해서 앞으로 선생님의 역할이 많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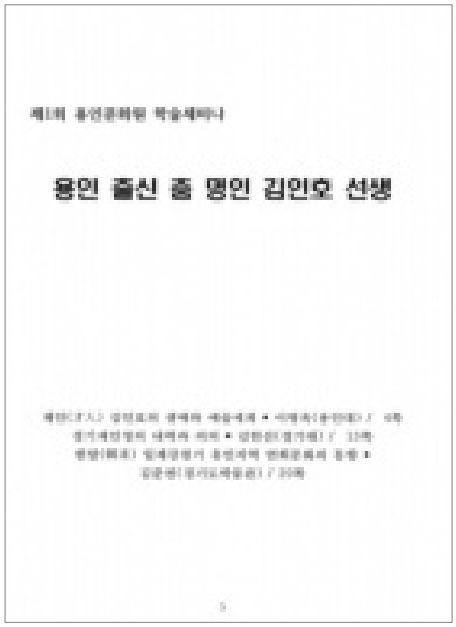
구술자 : 그럼요. 제가 자문은 해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이제 마지막 고향이 여기니까요. 자문과 고문 역할. 학술적인 이런 것은 하고. 그 외에도 용인 태생의 예술인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 얘기니까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조명하는 문제라든가 발굴하는 문제도 신경 써야겠지요.

면담자 : 용인 예술 부문 발전에 기여하시려는 생각도 있으시다니 이 점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 선생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유지 늘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술자 : 네. 알겠습니다.

京畿鄉土史硏究

1997년 발표 논문
용인할미성 원주대동굿 조사연구


용인 출신 중 명인 김인호 선생

2013년 제1회 용인문화원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

용인서정3세대의 산실
'카페 동인(同人)',

임준규 대표

1957년 용인군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출생
1980년 한국 과학기술 연구센터 근무
1985년 카페 동인 개업
1990년 서정3세대 동인시 제1집『 옷을 벗는 슬픔』발간
1991년 서정3세대 소시집 3「 그림움은 길이 되어」발간
1992년 서정3세대 동인시 제2집『 김량천에 솟는 달』발간
2022년 카페 동인 폐업

개요

- 구술자 : 임준규
- 면담자 : 김지혜
- 1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5일(화)
  - 장소 : 모바일
- 2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9일(토)
  - 장소 : (구)용인문화원
- 3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 장소 : 모바일

요약정리

임준규 대표는 용인서정3세대의 산실인 '카페 동인(同人)'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카페지기이자 시인이다. 그는 1957년 용인군 이동면 송전리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용인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 과학기술 연구센터 근무 중인 1985년 용인군 김량장리에 '카페 동인'을 개업하여 음악회를 하고 '용인서정3세대'라는 동인을 결성하였다.

용인서정3세대는 백구시단과 1996년에 결성된 용인문학회의 교각 역할을 하였으며 용인 문학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동호인들이었다.

'카페 동인'은 1985년 용인 동부고속 맞은 편 2층에(현재 김민재 헤어샵) 자리 잡아 용인 거주 대학생들과 서울을 오가는 직장인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당시 임준규 대표는 서울에 소재한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었기에 카페의 운영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보다 음악을 좋아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의 내려놓음 덕분에 10평의 공간에서 클래식이 울려 퍼지고 시가 머물렀고, 음악회 때에는 피아노가 오르내리고 성악가들이 드나들었다. 용인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카페는 용인 시내에서 다섯 번이나 이전하여 운영되면서도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이곳을 통해 용인 군청 사회과 공무원인 박상돈 씨가 시인이 되고, 서울 한광고등학교 이종대 선생이 시인이 되었으며, 조선소 기계공인 옥빈 씨가 시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훗날 용인문학회를 창설한 김종경 씨도 이곳에서 기량을 갈고닦았으며, 노영미 씨와 박경화 씨, 장영옥 씨도 임준규 시인과 더불어 시인이 되었다.

1990년 발간한 동인 첫 시집 『옷을 벗는 슬픔』의 서문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결성되었으며 무엇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 서툰 소리들을 모으면서 부끄러운 설레임으로 시작했다. 중앙집권적 문학 속에 부대낌을 받지 않은 우리들은 나름대로의 시를 써오면서 지방문학 시대의 독특한 양상이나 조류를 형성하기보다는 비제도권에서의 독자들과 문학의 모습 하나를 더불어 포용하고자 한다. 작은 지방에서 우리는 가식 없는 어우러짐을 보았다. 세대나 연대감에서 오는 이해는 있을지 모르나 그들은 그 이전부터 그랬으며 오늘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다. –서정3세대 동인–'

함축된 시를 통해 서정성을 살리면서도 1980~90년대 암울한 현실을 담고자 했던 동인 '서정3세대'는 매일 저녁 노곤한 일상을 마치고, 카페 동인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시를 통해 현실을 노래했다.

보들레르의 '항상 시인이어라'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임준규 대표는 사회를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인의 정신이라며 삶이 비록 산문일지라도 항상 시인이기 위해 서정성을 가슴에 담고 동인에 오는 사람들을 대했다. 그의 서정성을 닮은 용인의 문인들은 '카페 동인(同人)'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훗날 용인의 문화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용인의 젊은이들은 용인에 가볼 만한 곳으로 자연농원, 민속촌 그리고 동인을 꼽았다. 그러나 시대적 명소 '카페 동인(同人)'은 2022년 1월 재정난을 이유로 문을 닫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임준규 대표께서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1985년부터 2022까지 '카페 동인'의 발자취와 '용인서정3세대' 동인의 걸음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기쁘고 감사하다.

용인 최초 클래식 카페 태동기

면담자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나요?
구술자 :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인터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면담자 : 용인문화원에서는 매해 구술 생애사 자료집 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인 출신 예술인들의 구술을 수집하고 있어요. 용인 최초 클래식 음악 카페를 운영하셨던 임준규 대표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희가 용인 출신 예술인을 선정하는데 있어 대표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대표님께서 운영하신 '카페 동인(同人)'이 많은 예술인의 휴식처이고 예술의 산실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용인 출신 문인이나 음악을 하는 분들치고 '동인'을 모르는 분이 안 계시더라구요.
구술자 :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제가 별로 아는 게 없고 말주변도 없고 해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임준규 대표가 직접 디자인한 동인 상호

면담자 :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옛날이야기 해 준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용인에서 태어나셨나요?
구술자 : 예. 제가 용인 송전 출신이에요. 여기가 연고지가 아니고. 저기 송전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크면서 수원에 있는 수성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니 여기는 전혀 아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동인을 하면서 사람들을 알게 된 거죠.

면담자 : 그럼, 송전에다 카페를 안 열고 연고가 없는 이쪽에 카페를 개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동인 카페가 세련되고 용인에서는 들을 수 없는 클래식 음악을

트는 유일한 곳이었다고 해서 용인 분이 아니신 줄 알았습니다.

구술자 : 송전에서 태어나고 학교도 거기서 다녔는데 와이프가 용인 시내 사람이라 이쪽에 카페를 하게 된 거지요.

면담자 : 그러시군요. 몇 년 생인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구술자 : 저는 57년생이고, 집사람은 60년에 태어났어요.

면담자 : 감사합니다. 그럼 결혼하면서 카페를 하셨나봅니다.

구술자 : 아니에요. 그 전에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던 때에 김량장에 장소를 소개해 줘서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카페는 85년에 개업했어요.

면담자 : 결혼하게 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구술자 : 용인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그때 도서관은 용인군립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 자리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쪽에 있었는데… 어디냐면은 지금 보석 사우나 있는 자리 거기쯤이었던 같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가 굉장히 좋았지요. 나무들도 많고 경치가 좋았어요. 거기서 둘이 공부하다가 만났어요. 저는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고 우리 집사람은 재수하고 있었던 거지.

면담자 : 대학생 오빠 정도 되는 분이랑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이었겠네요. 그럼 결혼은 몇 살에?

구술자 : 87년도에 했으니까 내가 스물아홉 살인가 그럴거고, 4살 차이니 아내가 스물다섯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담자 : 그래서 김량장 쪽에 직접적인 연고는 없지만 어디가 좋은지 알아볼 수 있었군요.

구술자 : 그렇죠. 내가 카페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한 번 해봐' 그러고 '내가 여기 아는데, 여기 괜찮아' 그래가지고 개업을 한 거죠.

면담자 :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그럼 한의대 나오신 거예요?

구술자 : 거기를 가려다가 안 가고. 다리 때문에 한의대를 한번 가보자 그랬었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가고 서울에 있는 연구센터에서 일했지요.

면담자 : 연구센터요?
구술자 : 뭐냐하면 한국 과학기술 연구센터라고 해가지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못 푸는 거를 우리한테 주면은 그걸 저희가 해결해서 데이터까지 다 내서 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선배하고 둘이.

면담자 : 선생님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요?
구술자 : 예를 들어 '광합성을 설명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리서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데이터로 해주는 거지. 광합성을 하면은 CO_2를 흡입해서 산소를 얼마큼의 양으로 내뿜는지 데이터로 정리해서 주는 거지.

면담자 : 굉장히 분야가 달랐네요. 그쪽은 물리 과학 분야고, 대표님이 동인에서 하신 일은 문학이나 예술 분야 인데…
구술자 : 제가 글 쓰는 것도 좋아했지만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펜슬로케트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던 건데, 그런 거를 연구하고 만들어서 실험하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화약 채워가지고 실험하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용인에서 동인 카페를 하면서도 서울에 있는 연구센터로 출근해서 일한 거에요.

면담자 : 돈 버는 생계적 수단은 연구센터에서 하고, 용인 이쪽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신 거였군요. 원래 직업은 연구원이네요?
구술자 : 그때 당시에 연구센터에서 일하면 일반근로자 봉급에 한 10배 정도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은(카페는) 돈이 안 돼도 되는 거였고.

면담자 : 일반근로자 월급 10배 정도 수입이었으면 용인의 카페는 정말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셨네요.
구술자 : 내가 그냥 용인에다가 좋은 공간 하나 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동인이 주가 된 거 같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면담자 :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가 있으시죠?
구술자 : 시간이 지나다 보니 데이터 만들어 주는 일이 별로더라고요. 용인 동인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교류도 할 수 있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게 되니 행복한 게예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얘기해서 '내가 꼭 없어서는 안 될 건수 있으면 불러라'그랬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 가서 일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계속 있었죠.

면담자 : 그게 언제일까요?
구술자 : 85년에 동인 개업해서, 한 5년 정도 지나서인가? 우리은행 쪽으로 옮긴 게 그때쯤이니 그 정도 되었겠네요. 우리은행 가기 전이니까 한 89년 정도 됐겠네. 한 4~5년 정도 후인가 봐요.

면담자 : 처음 동인의 위치는 어디였나요?
구술자 : 옛날에 용인 사거리에서 서울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2층이에요. 거기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어요. 동부고속 건너편 2층. 지금은 아마 김민재 미용실이 있나 보더라고.

면담자 : 그럼 그때는 누가 카페를 운영한 건가요?
구술자 : 손님들이.

면담자 : 손님들이 카페를 운영했다고요?
구술자 : 예. 그때 당시에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는데 밤들 세우고 막 그랬어요. 카페를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생들이 오면서 자체 모임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 대학생들 많았으니까. 학생들이 와서 저기 들통에다가 라면 열 개 끓여서는 밤새도록 다 먹어가면서 얘기하고.

면담자 : 다음날 출근하셔야 하잖아요?
구술자 : 함께 먹고 얘기하고 자기네가 치우고 가는 거지요. 어쩔 땐 키를 주고 나는 먼저 집에 갈 때도 있고.

구술자 : 키를 학생들에게 맡겨요?
구술자 : 예. 한 친구에게 '얘, 네가 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다 치우고 문 닫고, 다음날 문 열어 두면 내가 서울에서 일하고 퇴근해서 잠시 앉았다가 저녁때까지 영업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면담자 : 진짜로 돈 벌 생각이 없으셨네요. 공간만 만들어 놓으시고 맘대로 써라 그러는 거였네요.

구술자 : 공간 만들어 놓고 '키는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 그랬는데도 사고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가져가는 것도 없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부터 마음 먹었던 것이었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게 되겠다 싶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면담자 : 무인 상점 같이 사람 없이 협동체가 이루어져서 운영되는 카페였네요.

구술자 : 자기들이 문 열고 청소하고 난로에 불피우고 돈도 정리해두고, 월세는 내가 내는 거지.

면담자 : 그러면 적자 아니에요?

구술자 : 그렇지는 않았어요. 의외로 저기가 굉장히 장사는 잘 됐어요. 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와서 다 계산하고 장부 써놓고, 돈 넣어 놓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카페 동인(同人)의 변천사

면담자 : 동부고속 건너편에서 운영하신 카페 동인의 경험은 참 인상적이네요.

구술자 : 그때 당시에는 동인에서 만나서 커플 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서로들 각자 와서 거기서 짝이 돼서 결혼하고, 그런 팀이 많았지. 지금도 그때 애들이 연락하고 그래요.

면담자 : 그때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도 하셨나요?

구술자 : 매년 연말에 송년 음악회를 했어요. 테이블이 몇 개 있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테이블이고 장소가 2층인데 거기까지 피아노 들고 와서 세팅해서 조율하고 음악회를 했어요. 이화여대 성악과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와서 성악하고 연주하고 그랬어요. 클래식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빠글빠글 했지.

면담자 : 2층까지 피아노가 올라왔다고요?

구술자 : 예. 클래식 연주를 용인에서 들을 수 있는, 더군다나 성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그거는 진짜 이 동네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피아노 운반비, 조율비, 성악 공연비 같은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담해서 진행했던거라. 이 작은 공간에 모여서 즐기고 그랬어요.

송년 음악회를 위해 2층 카페까지 올라온 피아노와 성악가
(초창기 카페 동인의 내부 모습)

면담자 :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구술자 : 그때 당시에는 용인 카페에서 그런 음악을 아무도 안 틀었어요. 대부분 가요를 틀어놨지. 클래식만 트니까 처음에는 손님들이 거부하고 그랬지.

면담자 : 클래식을 손님들이 거부했다고요?

구술자 : 거부하죠. 딴 거 틀어달라 그러고. 처음에 동인이라는 상호를 정하고, 장소도 정해서 영업 허가를 내러 갔는데 카페라는 상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업종상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다방으로 하라는 걸 그냥 고집스럽게 카페 동인으로 상호 내고.

면담자 : 그때는 대부분 다방이었죠.

구술자 : 최초로 용인에 카페라는 상호 달고 영업을 한 거예요. 용인에 대학생들이 모일 공간도 대부분 술집이나 다방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카페를 낸 건데 처음에는 손님들이 안 오지 뭐. 그래도 나는 강요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 여기가 니네들이 좋으면 와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알음알음 알아서 대학생애들이 많이 온 거죠.

면담자 : 그때는 대부분이 다방을 하던 때이고 음악다방이 간간이 있긴 했었던 것 같네요. 클래식 카페 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서울에서 형님하고 둘이서 연구단체를 할 때 사무실이 대학로 옆에 있었어요. 당시 대학로에 조그마한 카페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서울에서 카페 붐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때 잠시 시간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음악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 용인에 오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한 거지요.

면담자 : 서울에서의 카페를 모티브로 용인에 개업하신 거였군요. 그러니 학생들이 많았겠어요.

구술자 : 용문회라고, 용인에 사는 대학생들이 결성한 모임인데 그 학생들이 자주 왔어요, 특히 많이 온 대학생이 경희대생으로 그 친구들이 많았어요.

면담자 : 그때 자주 찾아온 학생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요?

구술자 : 지금은 거의 다른 데로 갔어요. 용인이 학교 졸업하면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연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면담자 : 동부고속 맞은편에서 운영하던 동인이라는 클래식 카페는 카페의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대학생들의 사랑방이 된듯도 하군요. 이후에는 동인이 어디로 이사 간 건가요?

구술자 : 그다음에 지금 우리은행 2층에서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그 건물이 넘어가면서 거기서 나왔지.

면담자 : 우리은행 건물 2층에서도 카페 동인으로 하셨어요?

구술자 : 예. 거기서는 엄청나게 잘됐어요. 커피 전문점으로 할 때인데 진짜 돈을 막 쓸어 담았어요. 그때 돈을 잘 버니 자금관리를 하라고들 했는데 저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별로더라고요.

면담자 : 아니 왜요? 모두들 돈 많이 벌면 좋아할 듯한데.

구술자 : 여기랑 그쪽 분위기랑은 전혀 달랐어요. 너무 상업적이고 그렇지. 평수가 60평 정도 되는 홀에다 일하는 사람도 다섯 명까지 쓰고 하니 여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 5배 6배가 불어난 상태로 가니 동생들이 '저기 형! 이거는 좀 아닌거 같은 데' 그러면서 분위가 아닌 거 같다고 나보고 막 뭐라 그러고.

면담자 :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구술자 : 옛 동인에서는 좁아도 아이들이 다 모여서 술도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던 분위기였는데 넓은데 오니까 그게 잘 안되지. 못하는 거지.

면담자 : 처음 한 곳은 몇 평이었죠?
구술자 : 거긴 한 10평 정도. 요것만한 곳에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했다니까요.

면담자 : 장소를 옮긴 그곳에서 특화된 전략이라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술자 : 여기서랑 같았어요. 매주 금요일에 시를 복사해서 주고, 같이 나누고 음악 감상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 매주 시를 한편씩 골라서 복사해서 손님들에게 나눠줬다구요?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구술자 : 나눠 줬다기보다는 프린트해서 앞에 놔두면 손님들이 가져가서 읽는 거지요.

면담자 : 시를 누가 매주 고르나요? 음악 선곡도 쉽지 않을 듯한데…
구술자 : 내가 하는 거지요. 매주 '금요 고전음악 감상회'에 이재용 선생님이라고, 경화여고 선생님인데 저와 절친이고 고전음악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아. 매주 금요일마다 그분이랑 곡 정하고 팜플렛 만들어 시집과 같이 놓는 거예요. 곡을 틀기 전에 손님들에게 이 양반이 곡에 대해 설명해주고, 음악 틀어주고 그랬어요.

면담자 : 그분이 음악 선생님이세요?
구술자 : 아니에요. 음악 선생님은 아닌데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면담자 : 이재용 선생님이 음악 해설한 장소는 어디 인가요? 처음 동인 자리인 동부고속 맞은편?
구술자 : 아니에요. 지하에 있을 때.

면담자 : 카페가 지하일 때니 앰프와 스피커가 잘 울려서 음악이 더 좋게 들렸겠군요.
구술자 :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소문을 듣고 취재를 나온 거예요.

면담자 : 카페 건물 지하인 장소가 어디쯤인가요?

구술자 : 아식스인가? 용문사라고 문방구있던 그 자리 지하였어요.

면담자 : 그때는 동인의 변화기 중 음악이 더욱 전문화된 때라고 할 수 있었겠군요.
구술자 : 그렇지요.

면담자 : 그리고 다음으로 어디로 이사 간 건가요? 군청 뒤쪽으로?
구술자 : 아니에요. 하천 쪽으로 한 번 더 이사를 하고, 군청 뒤로 옮긴 거죠.

면담자 : 거기가 어디쯤?
구술자 : 개천 끝 쪽에. 금호 어울림있는 곳인가? 어울림 아파트 전에 있었지요.

면담자 : 거기에서 동인은 어떤 문화적 특징이 있었을까요?
구술자 : 똑같이 금요 음악과 시 카페였지요. 특이한 점이라면 그때는 서울 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좋아하는 판 가져와서 같이 듣고 그랬지요.

면담자 : 판을 가져와요?
구술자 : 예. 같이 듣고 싶은 판을 가져오면 카페에서 틀어줘서 모두 듣고 얘기하고.

면담자 : 아! 음향 시설이 좋으니까 좋은 곳에서 들으려고 LP판을 가지고 와서 틀어달라고 하는군요.
구술자 : 그렇죠. 그때 당시 보통 사람들이 음향기기에 쓰는 바늘을 안 쓰고 저는 좋은 걸 썼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바늘은 삼만 원에서 오만 원 정도 하는 걸 쓰는데 저는 백 팔만 원 하는 걸 쓰고 그랬거든요.

면담자 : 바늘 가격만 그렇다는 거지요?
구술자 : 그렇죠. 바늘만 백 팔만 원이니 전체 음향 시스템이 몇천만 원은 훌쩍 넘어가지.

면담자 : 돈을 벌어서 정말 거기에 다 쓰셨군요.
구술자 : 집사람에게 참 고마웠죠.

면담자 : 사모님이 다 이해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동인은 이사를 여러 번 했네요. 처음에 동부고속 맞은 편 2층, 그다음에 우리은행 건물 2층, 그다음에 지하로, 그다음

개천가로, 마지막에 처인구청 뒤. 맞나요?
구술자 : 다섯 번째네요.

면담자 : 다섯 번 옮기면서 계속 동인이란 이름을 사용 한 건가요?
구술자 : 그냥 계속하는 거죠.

면담자 : 이름도 직접 지으신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구술자 : 처형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동인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지었죠. 그때 당시 저도 글 쓰고 그랬으니까. 함께하자고.

면담자 : 결혼하기 전에도 글을 쓰셨어요?
구술자 : 서울에서 시 쓰기 동인에 있었어요. 박목월의 아드님 박동규씨가 있는 심상이라는 시 동호회가 있었어요. 거기 나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 심상이요?
구술자 : 시 창작 동인이었죠. 저기서 동인 활동을 하다가 좋아서 용인에 동인을 차리고. 서울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좋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한번 동인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개업하게 된 거죠.

면담자 : 당시 용인의 동인에서 시 쓰던 분들을 서정 3세대라고 하던데.
구술자 : 그랬죠. 서정 3세대.

면담자 : 왜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구술자 : 뭐냐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80년대에 민주화 운동과 시민운동으로 굉장히 검열이 심했잖아요. 젊은 우리가 쓰는 작품들도 다 그런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글로 써서 내려고 하면 '너희 말과 뜻은 알겠고 참 좋은데 만약에 이대로 나가면 큰일이다. 검열받는다'하고 말리더라고요. 암울한 현실은 쓰고 싶은데 그러기는 어렵고 그래서 시를 쓰기로 한거죠. 시로 함축해도 서정성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담는 서정 3세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래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면담자 : 어떻게 보면 척박한 삶 속에서 그렇게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절규였네요. 그런 마

음으로 서정 3세대라고 칭한 것이로군요. 그럼 1세대 누구고 2세대는 누구이기에 3세대라고 하신가요?

구술자 : 제일 먼저 작가를 시작한 박목월 같은 선생님들을 1세대로 보고, 그다음 세대의 어른들을 다음 세대로 생각하니 저희들은 3세대가 되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를 젊은 동인들이라고 부르고 '서정3세대 동인 시집'을 낸 거죠.

용인 서정3세대 동인들

면담자 : 어렸을 때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구술자 :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면담자 : 글 쓰는 입문 과정의 교육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구술자 : 저는 따로 교육받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면담자 : 그러면 글의 시상을 얻는 데 도움을 줬던 책 이런 게 있었나요? 영향을 준 작가라든가?

구술자 : 작품 같은 거는 황동규 씨의 「삼남에 내리는 눈」인가? 그 작품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 시집 보고 '정말 아름답다. 어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까?' 했지. 그분 작품 중에서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게 「시월」하고 「즐거운 편지」. 지금도 이게 들으면 눈물 날 정도예요. 가을에 정말 아주 가슴이 열리잖아. 그분이 아마 고3때 그 작품으로 등단했을 거예요.

면담자 : 이분이 고3일 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모델로 시를 쓰셨나요?

구술자 :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지. 옛날에 집사람보다 먼저 좋아했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같이 시 쓰던 사람이었거든. 그 친구도 황동규 씨를 되게 좋아했어요. 작품으로 서로 얘기가 통했지. 근데 어떻게 하다가 헤어지게 됐지. 다 지난 이야기지.

면담자 : 문학의 장르 중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구술자 : 굉장히 간결함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보들레르[1]의 말이에요. '항상 시인이어라'

면담자 : 항상 시인이어라?
구술자 : 삶이 비록 산문일지라도 항상 시인이어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면담자 : 그 말이 왜 좋으세요? 이 말이 느낌이 있긴 한데…
구술자 : 그러니까 시인의 정신으로 시를 대하듯이 산문을 대하라는 말이겠죠.

면담자 : 시인의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술자 : 저는 사회를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죠.

면담자 : 시인의 마음은 사회를 아름답게 보는 마음,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암울한 현실을 쓰고 싶은데 그러기는 어려우니 시로 함축해서 서정성을 살리는 그런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 그래요.

면담자 : 비록 암울할지라도 아름답게 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신 건가요?
구술자 :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면담자 : 발간했던 시집의 제목을 기억하시죠? 두 번째 시집인 '김량천에 솟는 달'은 제가 도서관에서 봤습니다.
구술자 :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그동안 발간한 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딨는지 못 찾겠어요. 네 번째 시집 '옷을 벗는 슬픔'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종경이가 책 나온 거 정확히 알 거야 아마.

면담자 : 용인 신문 대표인 김종경 씨 말씀하시는 거죠?
구술자 : 그렇죠. 그때는 제일 막둥이였지. 편집도 열심히 하고.

면담자 : 기억하는 김종경 씨의 첫 만남은 어땠어요?

---

1)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는(1921.4.9~1867.8.31) 프랑스의 비평가이자 시인이다.

구술자 : 처음에 어땠는지 그런 건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카페에 커피 마시러 왔다가 저를 형님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통했지.

면담자 :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구술자 :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음악에 관심도 많고 글도 쓴다고 해서 써 와 봐라 했지.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많이 혼났었어요. 이게 뭐냐 다시 해봐라 그러고.

면담자 : 그때가 김종경 씨가 몇 살 때인 거예요?
구술자 : 종경이가 고등학교 졸업 후였으니 아마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인가.

면담자 : 어린 동생 같은 친구가 음악에 관심 있고 글도 쓴다고 해서 정이 많이 갔나봅니다.
구술자 : 종경이가 그때 저희한테는 가장 충실한 멤버였지. 말도 잘 듣고, 뭐 좀 해 봐라 그럼 잘하고.

면담자 : 이제 지금부터 멤버들 얘기를 해볼까 봐요. 그다음에 박상돈 씨는 어떤 멤버였나요?
구술자 : 박상돈 씨는 공무원 생활하던 분으로,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

면담자 : 공무원이었으면 그 당시에 군청에서 근무하셨나요?
구술자 : 그렇지. 군청 근무하고 계셨지. 그분이 굉장히 순하신 분이야. 저하고 두 살 차이인가 나는데 제일 큰형 역할을 하셨어요.

면담자 :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구술자 : 만약에 책 낼 비용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내고 그랬지. 그 비용도 적진 않았는데 충당해주고 그러셨지. 아! 나보다는 두 살이 아니라 한 네 살 정도 많았겠다. 그분이 퇴임한 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면담자 : 네 살 많은 분으로 큰형님 역할을 하며 책을 낼 때 비용도 흔쾌히 쾌척해 주신 거네요.
구술자 : 예를 들어 그런거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도 많고 같이 있으면 듬직하고 그랬지. 그러니 사람들이 그분 말도 다 고분고분 잘 듣고.

면담자 : 인상이 정말 부드러워 보이네요. 다른 멤버인 옥빈이란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분도 용인분이시죠?

구술자 : 옥빈[2)]이는 원래 고향이 용인이 아니라 저기 충청도 서산 쪽인가 그럴 거예요. 직장이 용인이라 동인이란 곳을 알게 된 거지. 자기도 글을 쓴다고 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함께 하게 된 거죠. 여기 중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지금도 시를 쓰는 걸로 알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글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 그 친구가.

면담자 : 시 창작 동아리면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어 오라고 한다거나, 시를 써오라거나 하는데 동인은 어땠나요?

구술자 : 그런 거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나 오늘 이거 해봤어. 한번 봐봐' 그런 식으로.

면담자 : 따로 모임이 있는 건 아니고 '나 오늘 써봤는데 봐줘' 하고 들고 오면 같이 본다는 거죠?

구술자 : 거의 매일 모였으니까. 저희는 거의 매일 모였어요. 카페니까 퇴근하다 들리고. 정기적인 모임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자기가 자주 올 거 같고 술 먹고 싶으면 '맥주 한 박스 내가 산다' 그러면서 갖다 놓는 거야. 그러고는 자기들이 와서 다 마시고 가는 거지. 다들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은 때라 그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이고 시 쓰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 듣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의 만남이 그려집니다. 당시 가장 많이 시 써온 사람이 누구였나요?

구술자 : 옥빈이지. 제일 열심히 했어요. 더군다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퇴근해서 꼭 들려서 같이 얘기하고. 이 친구가 아마 저기 금속 계열 직장이었을 거야. 그쪽 시를 많이 썼죠.

면담자 : 이분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조선소 근무하는 시인이라고 해서 약간 노동자 시인

2) 옥빈 신인의 본면은 장영옥으로 충남 계룡시에서 태어나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하고 거제도의 대우조선에 입사하여 7년을 근무했다. 거제도에서 조선소에 다닐 때'섬동인 발간'을 하였으며, 잠시 용인에서 기계설비 회사에 다닐 때 '서정 3세대' 시동인을 창단하였고, 다시 거제도로 귀환, 그러다 대전으로 또다시 귀환했다. 1993년 계간 《문학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그대 가슴까지 붉게 물들이겠어요』, 『흔들렸던 추억은 아름답다』, 『업무일지』가 있다. 대전광역시장문학부문공로상, 정훈문학작품상, 한국생활문학작품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출처: 불교공뉴스(http://www.bzeronews.com)

같은 느낌이 나더라구요.

구술자 : 조선소 맞아요. 거제 조선소 근무했다가 용인에 왔다가 다시 간 거지.

서정3세대 동인시 제1집 출판기념회

면담자 : 그분이 용인에서도 열심히 시를 쓰셨구나. 그럼 이분은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구술자 : 옥빈이가 저하고 여섯 살인가? 아니다. 종경이보다 그 친구가 두 살이 많나, 그럴걸요. 종경이가 나보다 열 살 밑이니까 8살 아래인가 보네요.

면담자 : 사진 보니 이종대 씨도 되게 인상 좋아 보입니다. 이분도 양복 입은 거 보니 직장인인가 봅니다.

구술자 : 선생님이었지. 서울에 있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집이 용인이니까 동인 멤버가 된 거지. 그때 당시에 동인이 동부고속 터미널 건너편이었으니까 퇴근해서 집에 가기 전에 들렀다가 가고 그랬어요.

면담자 : 그럼 늦게까지 영업하셨겠어요? 몇 시까지?

구술자 : 그때 당시에 영업시간이 12시까지였으니까 그때까지는 문을 열어 뒀지요. 그런데 밤들 저기서 세우고 막 그랬어요.

면담자 : 여자분도 계시네요.

구술자 : 노영미 씨. 요즘에도 열심히 해서 책도 많이 냈지. 이분도 동인에서 만난 건데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했어요..

면담자 : 동인 멤버로 오셨던 분 중 유일한 여자분인가 봐요.

구술자 :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2악장만 들어도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용인여고에서 되게 잘 나갔어요. 공부로나 뭐로나, 똑똑했었지. 그래가지고 박수자 총무님처럼 글짓기 교실인가 그런 것도 하고 그랬죠. 책

을 정말 많이 보는 애였어요.

면담자 : 동인 멤버들이 전반적으로 다 여리여리 감성적인 거 아니에요? 옥빈 시인만 약간 노동 시인이고?
구술자 : 저도 좀 약간 그런 편이었죠.

면담자 : 대표님도 노동권, 운동권이셨다고요?
구술자 : 그래가지고 전에 용인 정보과에서 나를 요주의 인물로 봤지.

면담자 : 정보과의 요주의 인물로 관찰 대상이셨다고요?
구술자 : 용인에 자연농원 있었죠? 자연농원을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부르지만 자연농원이라고 할 당시에 동인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감봉처분 내린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랬어요.

면담자 : 잘못하면 이게 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나 보네요.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정보과에 불려가거나 조사받거나 그러기도 했나요?
구술자 : 그런 건 없었어요.

면담자 : 그런데 정보과의 요주의 관찰 대상 인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구술자 : 그거 들리는 소문이 다 있는데. 그때 당시 용인이 작았잖아요.

면담자 : 그 당시에는 글을 써도 검열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불온한 사람으로 보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구술자 : 제 작품이 경기일보 같은 신문에도 실렸었어요. 그걸 정보과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서울 심상 문학회에서도 내가 작품 내면 선생님들이 '너는 작품은 너무 좋은데 너 요거 내면은 이거야.(목이 달아나는 거야) 안 돼.' 그러고 다 커트 해 버렸었지.

면담자 : 불온 책만 모여서 읽어도 잡혀가서 조사받던 시절이었으니…
구술자 : 그때 당시 나이가 어린데도 문화라는 것은 칼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거라면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만약에 사회와 맞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제거 될거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왜 칼을 대느냐.'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얘기

했었거든요.

면담자 : 당시 정보과에서 보면 불온한 사상 소유자셨네요.(웃음)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세요?

구술자 : 그럼요. 문화는 좋으면 공유되고 확산될 것이고 안 좋으면 자연 도태될 거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가해져서는 안 되죠.

면담자 : 데모도 하고 그러셨나요?

구술자 : 제가 다리 때문에 그런 데는 못 가도 그곳을 맴돌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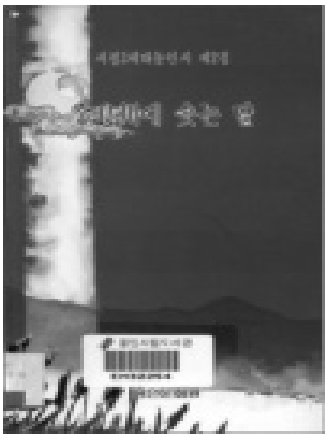
면담자 :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사회의 목소리를 글로 대변하셨군요. 당시 동인과 함께한 문학인은 대표님과 박상돈 씨, 옥빈 씨, 이종대 씨, 김종경 씨, 노영미 씨로 핵심 멤버 6인. 그중에서 맏형으로 회장 역할을 했던 분이 박상돈 씨이고, 막내로 김종경 씨와 옥빈 씨가 편집인 역할을 했었네요. 서정3세대 동인에서는 각자의 어떤 역할들을 정했었나요?

구술자 : 전혀 그런 거는 없어요.

면담자 : 책을 발간하고 음악회를 하려면 돈도 들고 누군가는 기획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나요?

동인시집 제1집『 옷을 벗는 슬픔』
(1990년 6월 10일)

동인 소시집3『 그리움은 길이되어』
(1991년 12월 24일)



동인시집 제2집『 김량천에 솟는 달』
(1992년 12월)

구술자 : 글만 써 두고 타이핑하고 기획하는 것도 알아서 하고, 나중에 책을 낼 때가 되면 '얼마 낼까?' 그러면 서로 얼마씩 내서 책을 내는 거죠. 되는대로. 돈이 안 되면 그런대로 맞춰서 하는 거고.

면담자 : 편집은 누가?

구술자 : 실제적인 편집은 주로 옥빈 씨가 했죠. 그분이 제일 많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종경이도 많이 했고. 김종경 씨는 용인문학회도 만들었잖아요. 1996년 창단된 용인문학회[3] 전신이 서정3세대죠.

카페지기의 회고

면담자 :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좋은 마음 갖고 사는데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거나 마음과 같지 않아 힘드셨던 적 없으셨어요?

구술자 : 그런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살아온 건지 모르지만 동인 할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영업이 잘될 때 주위에서 나보고 땅을 사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쪽으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몇 군데 사놨으면 지금 아마 부자가 되었을 거 같아요. 처남이 공무원 생활했었는데 자기가 그걸 사지 못하니까 나더라 '돈 많지 않냐? 사놔라' 그랬는데 안 샀지요.

면담자 : 아마 그때 땅을 사두셨다면 갑부가 되셨을 겁니다.

구술자 : 그렇지. 그때는 그런 게 속물 같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좀 내가 잘못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면담자 : 재테크를 좀 할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만 있으시네요.

구술자 : 주위에 제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많이 해서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었지.

3) 용인문학회는 1996년 '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용인지역 문학동호인들이 중앙 집중적인 문화 예술계의 풍토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한 문학단체이다. 1996년 회원 40여 명으로 창립한 뒤 초대회장에 김종경을 선임하고, 용인시 김량장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매년 동인지 『용인문학』을 발간하고 있으며, 용인문학 신인상을 제정하여 신인 문인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매년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인들을 초청하여 문학강좌를 개최하고 있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면담자 :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셨으면 무엇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구술자 : 오디오를 좋아했지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게 탄노이인데, 그게 뭐냐면 스피커 중에서, 벤지 중에서는 고급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로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저기 저쪽에 땅속으로 갔을 때, 그때 아마 월간 잡지 음악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면담자 : 잡지『월간 음악』에서요?
구술자 : 동인에 와서 앰프는 뭐고, 스피커는 뭐고, 내가 갖고 있는 명반들은 뭐가 있는지 인터뷰하며 취재해서 책으로 나왔어. 책으로 나오니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카페 장소가 어디냐고 묻고, 나도 좀 그 소리 듣고 싶다고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어보니까는 싹 쓸어 가버린 거야.

면담자 : 도둑이 들었군요.
구술자 : 그게 한 삼~사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였거든.

면담자 : 지금도 큰돈인데 당시는 더 큰돈이잖아요?
구술자 : 그렇죠. 음반도 명반으로 비싼 거만 골라서 빼 갔더라구요. 그거 한 장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집사람이 내가 거기다 돈 쓰는 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당신이 하는 일이니까 맘대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날리고 다시 또 사고 그랬었죠.

면담자 : 아내분께 감사한 마음이 크시겠어요. 워낙 음악을 좋아하니까 웬만한 스피커는 눈에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비싼 음향기기 설치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들으려 투자한 건데 다 도둑맞게 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도둑은 잡았나요?
구술자 : 세운상가를 거래하니까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거 저기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근데 뭐 장물 처리 다 해버린 상태지 뭐. 그러니 관뒀지요.

면담자 : 워낙 귀한 거였나 봐요. 전화 올 정도로.

구술자 : 예.

면담자 : 사람이 속을 썩인 적은 없어요?
구술자 :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야.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해 본 게 한 번도 없어.

면담자 : 그럼 가장 고맙거나 기억에 남는 분 있으세요?
구술자 : 와이프죠.

면담자 : 뭐가 제일 고마우세요?
구술자 : 저와 인생을 함께 해줬잖아요. 다리도 아픈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주고.

면담자 : 인생에서 가장 고마웠고 감사한 인연이 아내시군요.
구술자 : 그렇죠.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면담자 : 다리는 언제부터?
구술자 : 소아마비 걸렸었는데, 다리를 고쳐본다고 그랬다가 잘못됐지. 전에는 그냥 다녔었는데 지금은 저거를(목발) 짚고 다니니까 잘못된 거지. 결혼식장 갈 때도 저거 짚고 들어갔으니까. 장모님하고 첫 대면 했을 때 저를 보고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면담자 :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대표님 인상이 너무 착해 보여요. 미소가 정말 선해 보여요. 서정 시인이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구술자 : 고맙습니다.

면담자 :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고마운 사람만 있으신 거네요.
구술자 : 지금도 고마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70일 동안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그럼 저 혼자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 소문이 다 나서 사람들이 와서 나랑 저녁 같이 먹고 가고 그랬어요.

면담자 : 아내 없는 70일 동안요?
구술자 : 혼자 있으니까 김도 사다 주고, 같이 나가서 밥 먹자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면담자 : 함께 가려고 동인을 만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대표님과 함께 있었네요.
구술자 :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면담자 : 얘기하는 내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구술자 :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내가 좀 더 세상을 타이트하게 살지 못했구나. 그게 뭐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에서…처인구청 뒤쪽으로 가면서, 거기서 10년을 영업했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땅을 팔아서 오게 되고 그랬어요. 동인이 좋으니까, 사람들 오는 게 좋아서 그래도 그걸 끝까지 해보려고 한 2억 정도를 거기다 손해 보고 나온 거지. 시청에서 폐업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만뒀죠.

면담자 : 안타깝네요. 돈이 있었다면 좋아하는 걸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로군요.
구술자 : 잘 벌 때 그걸 좀 축적해놨으면 지금의 동인도 계속할 수 있었겠지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젊었을 때 가졌던 내 열정 같은 게 요즘에는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행복했었거든.

면담자 : 비싼 음향기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사모님이 싫은 소리 한번도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눈빛이라도 섭섭한 표현 안 하시나요?
구술자 :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이 뭘 하든 서로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존중해줘요. 그래서 그런지 집사람도 저에게 잔소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존중해 줘요.

면담자 : 그래도 '술 먹지 마라' 하는 것 정도의 잔소리가 있지 않나요?
구술자 : 저는 술을 먹지 않으니 그렇고, 담배는 좀 피니 그 소리는 좀 하지요. 더군다나 손녀딸이 나왔거든. 그러니 '담배 피지 마라' 그 정도의 말은 하지요.

면담자 : 유일한 잔소리가 그거군요. 정말 서정의 삶을 사시네요.
구술자 : 젊었을 때 소원이, 나이 먹으면 돋보기 쓰고 지금까지 봐온 책을 한 번씩 다시 보는 게 소원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책을 지금 돋보기 쓰고 보는데 피곤하더라구요. 옛날 책은 활자가 아주 작아서 보기가 어려워요. 큰 돋보기로 보는

데도 훅훅 넘어가지 않아 잘 읽히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버릴 건 버려야 하는데…

면담자 : 집에 책도 많으시겠어요. 책 욕심도 많으시고?
구술자 : 그렇죠.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우리 이번 주 뭐할까?' 하고 이야기해서 음악 고르고 틀어서 감상하고…

면담자 : 음악에 대해 해설을 해 주니 손님들이 더 좋아했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해설이 있는 음악회나 시와 음악과 해설이 있는 카페 이 정도 되겠어요.
구술자 : 예. 음악 해설해 줄 양반이 짬이 안나 못 오는 날은 내가 설명하고 했지. 내가 손님들에게 '제가 말을 더듬으니 이해해주세요' 하고 말하면 박수쳐주고 그랬지.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면담자 : 동인을 거쳐 간 시인이나 문인이 있을까요?
구술자 : 대표적으로 용인에서 활동하는 분이 김종경 씨, 그리고 계속 시 쓰고 있는 옥빈 씨. 손님 식으로 가끔 오셨던 송영[4] 선생님도 계시고.

면담자 : 동인을 그럼 몇 년까지 하신 거예요?
구술자 : 1985년부터 작년까지 한 거니까.

면담자 : 작년이 2021년입니다.
구술자 : 서류상으로는 2022년 1월까지네요. 용인시에서도 난리였었잖아요. 왜 관두냐고 만류했지만 이제 나이도 먹고 힘이 들어서 그만하기로 한 거죠.

임준규 대표 현재 모습

4) 송영(1940.3.15~2016. 10.14): 소설가. 1967년 단편소설 〈투계〉로 문단에 데뷔하였으며, 이후 〈선생과 황태자〉, 〈중앙선기차〉, 〈달빛 아래 어릿광대〉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소설 외에도 음악과 바둑에 조예가 깊었다.

면담자 : 처음 할 때처럼 무인 점포로 운영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구술자 : 요즘에는 그게 안 되죠. 옛날처럼 좋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면담자 : 1985년부터 2021년까지 36년 동안 동인을 이끌어 오면서 용인의 문학과 문화에 긍정적인 많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동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을 닫았다고 하니 다들 안타까워 하더라구요.
구술자 : 그렇죠. 옛날에는 용인에 가볼 만한 곳을 자연농원, 민속촌 그리고 동인이라고 하면서 동인은 꼭 가봐야 된다는 말을 했었어요. 용인이 굉장히 작은 데지만 그런 말이 있고 그랬어요.

면담자 :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구술자 : 예. 속으로 그랬었지요.

면담자 : 용인 문화의 산실이자 문인들의 성지였던 카페 동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는 용인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될 것입니다.
구술자 : 뭘요. 아직도 제가 그런 인물이 아닌듯하여 미안한걸요.

면담자 : 별말씀을요. 겸손이 지나치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술자 : 덕분에 젊은 날의 추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더듬이의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내내 감사했구요.

연극배우. 연출가. 극작가로 용인을 넘어 경기도 연극계를 이끄는 극단개벽 대표,

한원식(韓元植) 연출가

[학력 및 주요 경력]
용인초. 태성중. 안양예고.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
상명대 예술디자인 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문화예술경영)
상명대 일반대학원 공연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공연예술경영)
2008~2021 제4~8대 용인연극협회 지부장
현 제22대 경기도연극협회 지회장
현 극단개벽 대표

[수상]
2003년. 2005년 경기연극상 연출상
2009년 경기예술상 공로상(경기도지사상)
2011년 경기연극대상
2015년 용인시문화상(예술부문)
2020년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작품: 멈춰진시간) (대본.연출: 한원식) 대상. 연출상
2021년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작품: 침묵속 투명인간들) (대본.연출: 한원식) 은상, 희곡상

개요

- 구술자 : 한원식
- 면담자 : 이은성
- 1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8월 12일(금)
  - 장소 : 용인문화원 스토리텔링 사무실
- 2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 장소 : 용인문화원 스토리텔링 사무실
- 3차 인터뷰
  - 일시 : 2022년 11월 16일(수)
  - 장소 : 용인문화원 스토리텔링 사무실

요약정리

극단개벽의 대표이자 한국연극협회 제4~8대 용인지부장을 지냈던 한원식 선생은 오늘날 용인연극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둥지를 만들었던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올해 경기도연극협회 지회장을 맡으며 한 달을 하루처럼 살고 있다. 그의 연극에 대한 애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열정 그 지체이다. 그 열정은 타고났을까? 어린 시절 동네 천막 극장에서 보았던 연극으로 인해 연극에 대한 매력에 빠졌었고, 그렇게 시작된 호기심은 연극. 영화라면 무조건 가서 보고야 마는 적극성으로 이어졌다.

종내에는 담임선생님도 생소한 예술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했고 그의 바람 대로 안양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학교 여건은 그에게 약간의 실망을 안겨줬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가. 고뇌 속에 보낸 1년을 보상이라도 하듯 ‘ 남은 2년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자’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고, 더 열정적으로 연출까지 담당해가며 학창 시절을 마무리했다. 스승이었던 극단춘추의 문고헌 선생의 특별한 가르침인 ‘ 첫 회에 스토리가 다 읽히는 그런 작품은 하지 마라. 관객이 끝까지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마음졸이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을 하라’는 가르침은 지금도 명심하고 있는 단어이다.

배우. 극작가. 연출가로 능력을 발휘했던 군 생활. ‘ 구타금지’라는 주제로 썼던 대본으로 연극을 했었고 푸짐한 포상까지 받았던 그때의 추억은 지금 생각해도 뿌듯하단다. 제대 후 서울과 지방을 다니며 연극을 계속했던 그에게 고향 용인에서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우연히 보게 된 연극 포스터. 찾아가 그들의 열정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극단용인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용인에서의 연극 생활, 발에 불이 나도록 다니며 용인연극협회를 정회원 단체로 용인예총에 가입시켰고, 제4~8대 지부장을 거쳐 2022년에는 용인에서 최초로 경기도연극협회 지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러기까지 과정에서도 예술경영전공 석. 박사는 물론 2000년에는 극단개벽을 창단해 지금까지 20편이 넘는 극작과 600편 이상의 작품을 연출하며 용인의 연극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오늘도 한 달을 하루처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한원식 연출가는 용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연극인임에 틀림이 없다.

무작정 연극이 좋았던 어린 시절

면담자 :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은성이라고 합니다. 용인학연구소의 구술 생애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구술 생애사 인터뷰인 만큼 먼저 성함과 출생년도, 출생지를 먼저 여쭙니다.

구술자 : 보통 이하인 사람에게 이런 인터뷰를 청해주셔서 제가 도리어 감사를 드리고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한원식이고요 태어난 해는 1966년, 말띠입니다. 출생지를 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서 세 살 때 용인으로 이사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출생지인 보령은 기억이 안 나네요. 세 살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저의 머릿속에 용인이 계속 걸쳐져 있다는 건 그건 태어난 곳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담자 : 부모님께서 직장 때문에 용인에 이사 오신 건가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구술자 : 예전 부모님들을 보면 학력이라든가 이런 배움을 많이 받지를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제 부모님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개미처럼 일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어떤 사회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도달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엄청나게 상위에서 사셨을 분들이었는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자식들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예고까지 보내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희생하며 사셨던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과 저희 들은 많은 부딪힘이 있었죠.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달랐으나 그때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면담자 :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2남 2녀 중에서 장남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 동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위주로 모였었고 지금은 동생들이 형하고 오빠를 믿더라고요.

면담자 : 2남 2녀, 당시에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알맞은 가족 구성원이네요. 초등학교는

용인초등학교 다니셨고, 중학교는 태성중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용인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안 하셨군요?

구술자 : 태성중. 고등학교가 같은 캠퍼스 안에 있어서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약 60% 정도는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수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면담자 : 그런데 어떻게 예고로 진학할 생각을 하셨나요?

구술자 :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했었어요. 옛날에 안양예술고등학교가 원래는 석수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불이 나면서 안양 3동 쪽으로 이전하는 시점에 제가 입학했는데, 그때 석수동에 친척이 살고 계셨어요. 이종사촌이 학교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쪽의 얘기를 해줘서 '그런 학교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안양예고에 입학하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런 과정은 제가 알고 있었지요.

면담자 : 초등학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는 고학년이요?

구술자 : 그렇죠. 사실 연극을 하게 된 계기는 좀 더 어린 시절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동네에서 펼쳐졌던 천막 극장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들은 입장을 제한하여 몰래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공연 내용 중에 서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어린 마음에 화가 나서 그다음 날에는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다음 날도 개구멍을 통해 입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도 어제와 똑같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 하더라구요. 화가 나서 밖에서 기다리다 그 며느리한테 돌을 던지고 도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천막을 거두고 차가 떠나는 날 왜 이리 아쉽던지 먼지를 품으며 그 차를 한참 동 안 따라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훗날 생각하니 할아버지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배우 김희갑 선생님이셨구요. 안양예고 입학식 날 축사를 해 주셨죠. 이렇게 연극은 저에게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겠지요.

면담자 : 대단하세요. 그 시기에 저는 무슨 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구술자 :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연에 관심도 많았었던 것 같고

면담자 : 그러면 당시에도 어디서 연극을 한다고 그러면 많이 보러 다니고 그랬겠어요.

구술자 :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혜화동 대학로에서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차비를 가지고 티켓을 마련해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방송이나 영화 같은 것으로 충족했어요. 용인에도 극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살다시피 했죠.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들어갔다가.

면담자 : 집 가까이에 극장이 있었나 봐요?
구술자 : 지금도 극장 있는 자리 있어요.

면담자 : 김량장동 롯데 시네마 있는 곳 말하는 건가요?
구술자 : 네. 거기 자체가 그 건물이 극장이었었어요. 그 극장 이름이 뭐였냐면 '용인극장'

면담자 : 처음부터 용인극장이었어요?
구술자 : 그렇죠. 용인극장이었어요. 요즘은 영화에 15세 관람가도 나오고 12세 관람가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거 불문하고 갔던 것 같아요. 갔다가 쫓겨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면담자 : 그렇게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나이 제한에 걸리긴 하더라도 '이 영화는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본 영화가 있는지요.
구술자 : 영화를 그냥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상영하면 무조건 극장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면담자 : 혹시 용인극장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술자 : 아는 사람이 있다기보다 그냥 무조건 들어갔죠. 비록 5분을 보고 쫓겨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들어갔어요.

면담자 : 친구들하고 같이 갔나요?
구술자 : 친구들하고 같이는 못 가죠. 내가 내 세계에 빠져서 영화관에 자꾸 들어가는 게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거였지만요. 그때는 어린 나이라도 기본적으로 좀 불량하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친구들까지 가자고는 못 했죠.

면담자 : 들어는 갔는데 '이거는 내가 볼 영화가 아닌데'라는 영화도 물론 있었겠지요?
구술자 :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일단 새로운 영화를 상영하면 무조건 가서 봐야 한

다는 생각만 했었어요.

면담자 : 그때 영화관람료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구술자 : 하하 기억이 안 나네요.

면담자 : 영화관람료는 주로 어떻게 마련했어요?
구술자 : 용돈 좀 모으고 대목이 있어요. 추석하고 설날에 용돈 받으면 모아 놨다가..

드디어 안양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다

면담자 : 아~ 친척의 소개와 안내와 선생님의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거군요. 안양예고에서는 전공 분야가 어떻게 나뉘어있는 건가요?
구술자 : 저희 때는 연극영화과로 통합되어 있었고 그 연극영화과에 밴드 음악도 있었고 미술도 있었어요. 지금은 미술과. 연극과 등 해서 다섯 여섯 분야로 나누어졌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극영화과를 갔었던 거고요.

면담자 : 연극영화과 안에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나뉘어있다는 말씀이군요. 학창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술고등학교에서 어떤 연극 활동 등을 했는지요.
구술자 : 그때는 학교가 좀 과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힘겨운 과정을 겪었던 게, 그때 당시 최은희 교장 선생님하고 신상옥 이사장님께서 북한으로 납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석수동에 있었던 학교에 불이 나서 안양 3동으로 이전하게 됐고, 학교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입학을 한 거죠. 그렇게 입학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니까 고뇌가 좀 많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 하고요.

면담자 : 생각했던 부분과 동떨어졌다는 의미는 수업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술자 : 아무래도 좀 어수선했죠. 뭐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은 평생을 영화를 하시면서 애정을 가지고 학교

를 창립했지만, 갑자기 급조된 분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영리적으로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숫자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뇌 속에 1년 정도를 보낸 다음, 남은 2년은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멈춰져 있던 그 시간을 좀 더 활용하자는 생각으로 좀 더 악착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연기보다는 주로 학생 연출을 했었죠. 첫 연출이 뭐냐면 차범석 선생님의 '농부의 아들'이에요. 어떤 농촌의 이야기인데, 농촌 이야기는 성장하면서 계속 봐왔던 거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첫 작품이 됐던 거죠. 고2 때요.

면담자 : 동아리를 만들어 연극공연을 했는데 연기보다 연출에 더 관심이 있었나요?

구술자 : 아니 연출에 관심이 더 있었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가장 열정을 가진 사람이 끌고 가게 되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내가 꼭 연출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작품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연출의 시작이 된 거죠.

면담자 : 그러시면서 연출의 매력에 푹 빠지셨군요.

구술자 : 그 매력은 언제나 암흑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과 암흑을 동반한 매력', '희열'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상큼하게 끝나고 또 상큼하게 끝나고 그랬다면 조금 지루해서 중간에 멈췄을지도 모르죠. 이 연극이라는 것을. 그런데 언제나 힘들잖아요.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까지도 어렵고 힘들고, 또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면담자 : 거기서 느끼는 희열이라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구술자 : 그러니까 연극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 있잖아요. 틀이 있고 그냥 보편적으로 10사람이 연극을 만든다고 하면 약 70~80%는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같은 리듬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흐름으로 가져가는 어떤 기본적인 맥락 속에서 연극이라는 게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거기서 20~30%는 지금까지 누가 하지 않았던 거,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거, 그걸 시도해서 던졌을 때 작지만 객석에서 반응해서 온다는 거 그런 희열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면담자 : 예고에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스승님이 계실까요?

구술자 : 스승님은 연극계 언더그라운드에 계신 분들이라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재 작년에 돌아가신 극단 춘추의 문고헌 대표님이라고 계셨어요. 극단을 운영하시면

서 연극 실기를 가르치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대본을 읽을 때 어느 단계까지 도달해야 하냐면, 대본 분석이 열 장이 있으면 세 장 넘기고 다음 장을 못 봐야 돼. 전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봐. 그리고 다 한 번에 읽으면 아깝잖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막연하게 아! 그런 거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요즘처럼 5부작 했을 때 첫 회를 보면 뒤에 다 읽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면담자 : 관객이 끝까지 마음 졸이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구술자 : 네. ‘관객이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건 관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진행자는 작가나 연출이나 배우들이 표현하면서 다음 상황이 읽히는 작품을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이죠.

면담자 : 그분 말씀이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셨을 텐데요. 언제 깨달으셨어요?

구술자 : 하다 보면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 초창기에 네 것 첫 장면 보고 끝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문고헌 선생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면담자 : 그러시군요. 재밌었겠어요.

구술자 : 이게요. 안 해봐서 모르셔요. 재미는 있는데 과정이 진짜로 힘들어요. 성격이 예민한 작가들이나 연출가들은 공황장애가 와서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억지로 술을 많이 먹고 그러는 거예요.

면담자 : 집중해서 하니까 그러나 봐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연극과 연출에 집중하며 보내셨는데, 예고를 졸업한 이후에도 연극을 계속해서 하셨는지 궁금해요.

구술자 : 군대에서도 연극을 했는데요. 군대 안에서도 1년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연극만 했죠.

극작가. 연출가. 배우로 능력을 발휘했던 군 생활

면담자 :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로 가셨나요?

구술자 : 21살 끝부분에 갔어요. 졸업하면 20살이니까 2년 정도 고민 많이 했어요. 진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군대를 먼저 다녀올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군대 먼저 가기로 했어요. 어쨌거나 군대에서도 재밌게 활동했어요. 거의 1년은 연극만 했었으니까요. 군대에 사단, 군단이 있잖아요. 군단 시범을 보이면 군단이 다 와서 보는 거예요. 그때 육군단이 다 와서 보는 연극 작품을 했었어요. 군 생활 1년 남았을 때 '구타 금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본을 써서 연극을 할 수가 있냐고 묻길래 무조건 한다고 했죠. 일단 그걸 하면 저한테 몇 가지 보장되는 게 있었어요. 점호를 안 받고 혼자 따로 놀아도 돼요. 대본 쓰는 시간이 3개월인가 4개월이니까 그 기간은 혼자만의 완전한 자유 시간이에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게 '명랑한 병영생활'이라는 대본을 써서 3~4개월 연습하고, 또 3~ 4개월 동안 공연을 계속했던 거죠.

면담자 : 그러면 3개월 동안 대본 쓰고, 그 대본으로 연극을 연출하고 그랬던 거군요.

구술자 : 네. 연기도 했어요. 그때 만났던 배우가 설경구죠

면담자 : 그 설경구 배우요? 당시 설경구 배우는 연극을 하겠다고 지원을 한 건가요?

구술자 : 아니죠. 제가 얘기를 했죠. 전공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았는데, 한양대 나온 애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설경구였어요. 설경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 '학전'이라는 데서 활동했었고 아침 드라마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군 생활을 1년 동안 제가 풍부한 감성을 쌓는 데 국방부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면담자 : 그렇다면 연극 연출하고 해서 특별한 포상도 있었겠죠?

구술자 : 포상 많았죠. 휴가도 마음대로 나오고, 걸려서 연병장을 뛸 일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빼주고 그랬어요.

면담자 : 당시 군 복무기간은 몇 개월이었어요?

구술자 : 그때 제가 30개월이었는데 약 23일을 더 했어요. 88올림픽 때문에 계속 위부터

밀려서 23일 더 있어요. 특명이 안 떨어져서요. 그때 당시에 그랬잖아요. 자꾸 올림픽 때 북에서 넘어온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군대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대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구타금지를 주제로 한 〈명랑한 병영생활〉. 왼쪽이 설경구 배우/ 오른쪽이 한원식 연출가)

면담자 : 그렇게 해서 군 제대를 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활동하셨는지요.
구술자 : 제대 후에는 연극 하러 주로 지방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생각해보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 극단이 10개 내외였어요. 지금은 서울에 이제 극단이 몇천 개가 되지만요.

면담자 : 그렇다면 용인에는 어땠나요?
구술자 : 지방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나마 광역시 이런 데는 좀 있었죠.

면담자 : 서울에서는 활동은 안 하시고 지방으로 다니셨다는 말씀인가요?
구술자 : 아니요. 서울에서도 했었죠. 서울 같은 데도 신생 단체를 만들어서 고생해서 작품을 하나 하면 역시 그냥 무너지죠. 그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대표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세 대출받아서 작업하면 100팀이면 95팀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그분들도 무너질 게 뻔히 알면서도, 확률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제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자기 존재감과 살아가는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진짜 그렇게 돼요.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막 부딪쳐보고 궁리도 해보고, 풀도 베어 보고, 꼴도 베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어린 시절 정서에서 어떻게 보면 금지옥엽처럼 큰 사람들보다 또 다른 뭔가를 겪으며 성장하면서 커서 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금지옥엽으로 큰 사람들은 대본의 내용 자체를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왜 7살짜리가 동생을 업고 그래야 하는지 이해 못해요.

극단개벽을 창단하며 용인의 연극을 이끌어가다

면담자 : 서울과 지방에서 활동하셨는데 용인에서는 언제부터 활동하셨나요?

구술자 : 그게 1996년도인데요. 96년도에 김량장동 시내 중심가를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포스터가 하나가 보이더라구요. 연극을 한다는 동아리 포스터였는데, 그래서 지역의 연고를 떠나서 마음을 비우고 일단 한번 가 봤어요.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태어나서 연극을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공연을 위해서 몇 개월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열정을 보고 거기서 저도 단원으로 입단했어요.

면담자 : 그때 입단했던 연극단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구술자 : '극단용인'이요. 그때는 연극협회가 공식적 인준받기 전이니까 어찌 보면 동아리 단체라고 봐야겠죠. 제가 그 작품에 출연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연기자들이 대부분이라 옆에서 연기 지도라든가 그런 도움을 좀 줬어요. 그때는 연극공연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이라는 자체도 형성이 안 된 시기였어요. 그러다 1996년도에 용인 예총이 설립되었어요. 용인 예총이 설립되면서 이제 서서히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단체를 떠나서 지원이 없어도 모여서 3개월씩 4개월씩 연습했어요. 저는 돈도 없고 집에 들어가기에는 눈치도 보여서 어떤 때는 공원에서 노숙 비슷하게 하면서도 '야 이거 작품을 하나는 올려야 돼! 내가

살던 지역인데' 이런 생각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지 하여튼 작품을 하나 올리긴 했어요.

면담자 : 그때 올린 작품은요?
구술자 : 극단용인의 공연작품을 두 편 연출했어요. 1998년 진짜 신파극(홍원기 작, 한원식 연출)
1999년 칠수와 만수(오종우 작, 한원식 연출). 대본은 그때 당시에는 저작권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 때여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작품 중에서 골라서 했어요.

면담자 :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출은 선생님께서 하셨겠군요. 연기 지도를 다 해주셨나요?
구술자 : 그렇죠. 지도를 다 했어요. 출연자들이 연기를 해본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며 준비해서 공연하느라 힘들었죠.

면담자 : 그 당시 용인 연극의 최초 출범은 어느 단체였는지요. 좀 전에 용인에 오셔서 극단용인에 가입했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리고 그 당시 다른 단체도 있었는지요.
구술자 : 1996년 극단용인, 1998년 극단유리, 2000년 극단개벽, 창단년도입니다.

면담자 : 그러면 '극단용인'이 그 당시 용인에서는 최초의 연극단체라고 봐야 할까요?
구술자 : 네. 용인에서 최초가 '극단용인'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 동아리 단체 제외하면요.

면담자 : 이후에 생겨난 용인의 연극단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구술자 : 1995년인가 96년에 '극단용인'이 생겼고 조금 있다가 98년도에 '극단유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저희가 '극단개벽'을 창단했고요.

면담자 : 이 단체들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나요?
구술자 : 아니요. 현재 활동은 개벽만 하고 있어요. 극단용인은 지금 시흥 연극 연예협회장하는 박남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창단해서 활동하다가 시흥 쪽으로 가셨고 유경석씨라는 분이 이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극단이 사업자가 해체된 건 아니고 극단은 살아있는데 활동을 안 할 뿐이죠. 용인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극단용인은 용인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하고 가끔 협업도 하고 그랬어요. 극단유리는 김창율씨라는 분이 창단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연극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취직을 하신 거죠.

면담자 : 단체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없애지는 않았나 봐요?

구술자 : 없애지는 않았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용인연극협회 지부장을 했었으니까요. 이런 단체들이 계속 유지하려면 회비를 내야 해요. 회비를 3년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제명되니까 회비를 내 준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한국연극협회 정회원 단체로 유지하고 있고 또 언젠가 다시 와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회원 단체가 아니면 한국연극제에 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까지는 유지 시켜 놨던 거죠.

면담자 :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극단용인, 극단유리, 극단개벽이 정회원 단체로 한국연극제에 나갈 수 있었던 거군요? 현재는 용인에 몇 개 단체가 있나요?

구술자 : 그렇죠. 현재는 새로운 지부장이 생겼잖아요. 용인연극협회 김만제 지부장이라고. 그 신생 단체가 '인연'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아직은 경력 때문에 정회원 단체가 안 됐어요.

면담자 :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경력의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구술자 : 1년에 두 편, 2년에 네 편 이상 2년이 경과 돼야 하고, 교집합적으로 5명이 정회원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에요. 5명이 다 똑같은 조건을 가져야 해요. 5명 이상. 그렇게 조건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한국연극협회에서 심의해서 정회원 단체로 인준을 해주는 거죠. '인연'이 인준되면 용인에 정회원단체가 4개가 되요.

면담자 : 선생님께서 극단개벽을 2000년에 창단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극단용인에서만 활동하시다가 만드신 건가요?

구술자 : 극단유리는 대표께서 독립적으로 잘 끌어갔고, 저는 극단용인에서 작품 연출도 하고 다른 단체와 협업도 하면서 활동하다 개벽을 창단했어요.

면담자 : 창단 멤버는 몇 명이었나요?

구술사 : 처음에는 일곱 명 정도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창단 공연할 때는 용인시에서 지원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원받는 게 한계가 있었고, 2000년 2001년부터 극단개벽이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지원받았어요.

면담자 : 끊임없이 공모 사업에 지원해야 하는 거군요.

구술자 : 용인예총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만 몇천 안 돼요.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공모 사업을 해야 해요. 공모 사업은 경쟁이잖아요. 단체와 단체의 경쟁인데 결국은 거기서 이겨내서 공모 사업에 채택되어야 하다못해 자동차 기름이라도 넣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여기 용인 연극협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물론 초창기에는 문예회관 당직실에서 숙직들하고 같이 자면서 친해지기도 했고, 열정을 가지고 작품을 하는 거지 여기서 보수를 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쭉 같이해오다가 이제 한 2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결혼하신 분은 애들도 커가고 그러면서 연극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처럼 자유로운 사람만 계속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담자 : 지금은 처음의 창단 멤버가 몇 분 남아 계신 건가요? 단원을 영입도 하고 또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시기도 하고 그러겠죠?

구술자 : 초창기 멤버가..음 23년 전 일인데요. 가끔씩 와서 하긴 하는데 연속적으로 하는 식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이 친구들이 20대 초. 중반에 왔으면 벌써 40대 중반이 됐잖아요.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을 계속 영입해서 같이 작업하고, 또 빠져나가고 작업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면담자 : '개벽'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관련이 있을까요?

구술자 : 제가요. '새롭게 열자'라는 뜻으로 지은 거예요. 경기도인가 공모 사업에서도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종교 단체나 종교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거죠?"라고.

면담자 : 보통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가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어서 좋네요. 연극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계획인 거죠?

구술자 : 그렇죠

면담자 : 선생님의 연극공연 작품을 년도 별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구술자 : 우선 희곡을 년도 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1999년 : 학생님과 선생님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성장드라마)
2. 2002년 : 그날의 함성(처인성)(고려 무신정권당시 김윤후 승려와 민초들의 대몽항쟁 이야기)
3. 2005년 :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고려말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 이야기)
4. 2006년 : 좌전고개에 울린 메아리 (1919년 3월 21일 용인 좌전고개 대몽항쟁)
5. 2011년 : 불꽃남자 이종무 (조선 세종 재위 초기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 이야기)
6. 2013년 : 구름이 걷히면 (용인의 항일독립운동사)
7. 2017년 : 도미아랑 (폭군 개로왕에 의해 도미와 아랑의 비극적 사랑)
8. 2018년 : 낙송정의 두 얼굴 (욕심많은 형과 착한 동생의 고군분투기)
9. 2019년 : 뮤지컬 좌찬고개 321 (용인의 독립운동가 오의선과 백성들의 항일독립운동 뮤지컬드라마.)
10. 2020년 : 멈춰진 시간 (1980년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의 삼청교육대 잔혹사)
11. 2020년 : 최승희. 김자경 (반도의 무희 최승희와 오페라의 전설 김자경 스토리)
12. 2021년 : 침묵속 투명인간들 (국가로부터 억울하게 잡혀간 684부대 실미도 이야기)
13. 2021년 : 이원익의 군자불기(君子不器) (청렴의 상징 오리 이원익 선생의 민생활동 이야기)
14. 2021년 : 기형도의 청춘불패 (29세로 단명한 천재시인 기형도의 삶을 조명)
15. 2021년 : 그날의 함성 (하남의 독립운동가 이대헌 이야기)
16. 2021년 : 대암 이태준 (함안의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의 몽골에서의 업적을 그림.)
17. 2022년 : 황금밥과 백금반찬 (조선 숙종 재위시 당파싸움과 인현왕후와 장희빈 물고 물리는 암투속에서 청렴한 선비 유명화의 고군분투기)
18. 2022년 : 마당놀이– 환상짝꿍 런닝 메이트 세종대왕과 이순신 (다른 시대에 태어난 위대한 두 인물이 같은 방식으로 민생 챙기기)
19. 2022년 : 칼을 찬 선비 (독립운동가 오석 김혁장군 일대기)

등을 연출하고 공연했어요.

용인연극협회장을 역임하며 연극에 대한 열정을 불사르다

면담자 : 이번에는 용인연극협회에 관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용인예총이 1996년 12월에 생겼으면 예총에는 단체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하는가요?

구술자 : 일단 연극협회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협회가 정회원 협회가 되면 단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용인연극협회가 1999년 1월 14일에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1996년부터 하면 약 3년 정도 되잖아요. 제가 용인연극협회 지부를 인준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약 30번 이상 커트를 당했어요. 계속해서 보완하고 보완해서 결국 1999년 1월 14일 날 '용인연극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면담자 : 그러면 99년 1월 14일에 용인연극협회가 만들어져서 당당하게 용인예총에 단체 등록이 되었겠군요. 연극단체로는 처음 등록된거죠?

구술자 : 네. 우리 용인에서 연극으로는 처음이죠.

면담자 : 그 당시 용인연극협회 초대 회장은 어떤 분이셨어요? 초창기 얘기 좀 해주세요.

구술자 : 박남춘이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용인연극협회를 만들기 전에 예술인협의체를 구성 했던 것 같아요. 그 협의체가 구성된 상태에서 극단용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시흥연예인협회 지부장으로 가셨어요. 용인에서 살았었고 원래 발이 넓어요. 예전 90년대 초반에 kbs에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FD를 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을 에버랜드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용인에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술인들. 국악인들 등과 예총을 창단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들어왔고 그렇게 창단되었던 게 '극단용인'이에요. 용인에서는 최초의 극단이죠. 그러다 그분이 떠나시고 유경석 회장이 제2대 대표가 된 거죠.

면담자 : 이때 선생님께서는 사무장을 맡으셨군요. 초창기에는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서 역할도 중요하고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구술자 : 연극협회가 만들어지고 초창기 약 2~3년 동안은 예산이 없었어요.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협찬받고 조그맣게 공연하고 그랬어요. 기업 찾아다니며 영업은 박남춘 초대 대표가 했었고 저는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했었어요.

면담자 : 이때 회원은 몇 명 정도 되었었나요?

구술자 : 99년 1월 14일이 인준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극협회 정회원들이 약 25명 정도 되었는데 그전에는 많았어요. 단원이라고 하죠. 극단에서 활동하는 단원. 고등학생부터 연세 있으신 분 들까지 해서 40~5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96년부터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4년 동안 4편 이상이 되면서 그 자격을 갖춘 회원들이 25명 정도가 된 거죠. 이때는 정회원 단체나 비회원단체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그때는 최소 15명이 되어야 협회 인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5명이 되었던 거죠. 지금은 무소속으로 개인이 그 자격을 얻기도 하지만 단체로 들어가서 그 자격을 얻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인준받는 과정에서 한국연극협회에 정말 많이 다니며 만들었어요.

면담자 : 2대 유경석 회장님 2대~ 3대까지 하셨네요.

구술자 : 이분은 용인예총을 만들 때 간사였죠. 처음에 예술인협의체 만들 때 사무적인 업무를 보셨고, 박남춘 대표에 이어 극단용인을 두 번째로 맡았었고, 용인연극협회 회장도 두 번째로 맡았었던 분이에요.

면담자 : 이시기에도 사무장을 맡았었나요?

구술자 : 초창기에는 연극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 행정 업무도 보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많이 체계가 잡혀있어서 정상적으로 이사회. 총회 형식을 갖추지만, 그때는 예산도 별로 없어서.

면담자 : 유경석 회장에 이어 2008년부터 제4대. 5대. 6대. 7대. 8대 회장을 맡으셨군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술자 : 이 규정이 재작년에 바뀌어 지금은 지부들도 연임까지만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면담자 : 초창기에는 지원이 형편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연극을 보러오는 관객들은 어땠어요? 1번 공연할 때 찾아주는 관객들이 어느 정도였나요?

구술자 : 초창기에는 연극공연을 한다고 하면 각 지부의 미술. 국악하는 그분들이 절반 이상 오셨어요. 지금이야 서로들 스케쥴도 바쁘고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그렇지 않지만, 그때 똑같이 시작 단계에는 서로들 다 같이 가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랬어요.

면담자 : 저는 선생님께서 연출가로 알고 있었는데 극작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대본을 쓰셨는데, 매번 대본을 쓰시지는 않겠죠? 대표작품으로 어떤 연극이 있을까요?

구술사 : 제가 다 쓰지는 않지만 근래에는 제가 대본을 거의 쓰고 있어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정몽주 선생 이야기는 문화원하고 같이 90년대 중반에 썼어요. 그런데 주인공 인물도 중요하지만 주로 이름 없이 역사에 기록 한 줄도 못 남기고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 작품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중심적이에요. 예를 들어 처인성 하면 김윤후 승장이 주연이겠지만. 그 역사적 속에서 이름 없는 분들의 휴머니즘적인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한 작품은

직접 대본을 쓴 희곡 작품

처인성. 멈춰진 시간. 낙송정의 두얼굴. 도미아랑. 서라벌에 뜨는 태양. 불꽃남자 이종무. 김자경. 최승희. 침묵속 투명 인간들. 대암 이태준. 그날의 함성. 할미산성.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칼찬 선비

연출한 작품

처인성. 멈춰진 시간. 낙송정의 두얼굴. 도미아랑. 서라벌에 뜨는 태양. 불꽃남자 이종무. 김자경. 최승희. 침묵속 투명 인간들. 대암 이태준. 그날의 함성. 할미산성.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칼을 찬 선비 외 40여 편이 있어요.

면담자 : 90년대 중반이면 여기 지금 1996. 2천년대 중반에 많이 하셨네요. 곧 공연 계획인 〈칼을 찬 선비〉 포스터를 봤어요. 그 작품의 대본도 선생님께서 쓰신 거죠? 역사에 관심도 있겠지만 용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쓰신 것 같군요.

구술자 : 우리 용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썼어요. 지금 시대는 무한경쟁 속에서 누가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하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그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굳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기 인생을 걸고 한단 말이죠. 때로는 가족이 희생까지 당하는데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 행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쓰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죠.

면담자 : 선생님 작품을 살펴보니 용인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시나리오로 극작하신 것도 있고, 한국 근대 단편소설을 한 것도 있고, 또 살펴보니 마당놀이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장르의 확장이라고 할까요? 연극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공연된 〈칼을 찬 선비〉 (오석 김혁장군 이야기)

구술자 :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능한 일을 하는지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는지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보시는 분들이 평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최초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보면서 배우들하고 맞춰나갈 때 장르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판도가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호흡, 템포, 리듬 등을 장르마다 다르게 써야 하니까 상당히 힘들죠. 처음에는 어떤 목적이었느냐면 처음 오는 배우들이 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우들이 한 작품 한 작품 하다 보면 20 작품을 한 뒤에도 그 리듬이 나와요. 이전 작품에서 했던 인물의 소리, 맵시가 계속 다른 작품을 해도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걸 한번 타파해보자는 생각에서 15년 전 당시에 '리얼리즘이 끝나면 마당극을 한다'라고 복선을 깔았던 이유가 제 나름대로는 배우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계속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장르를 계속 가지고 가면 분명히 젖는다고요. 번역극을 하신 분들 윤석화나 이런 분들 보면 대사를 어떤 대사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타파하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

면담자 : 그렇군요.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선생님 의도는 그런 거였는데 배우들은 할 때 할 때마다 바뀌면 적응하고 연습해야 하니까 힘들 수는 있어요.

구술자 : 힘들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꼭 내 단체에서 하는 배우들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객원 배우들이 와서 극단도 만들고 작품도 같이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 그래서 자기도 연출하고 있지만 그런 걸 좀 접목하니까 배우들이 타성에 안 젖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은 좀 하더라고요.

면담자 : 거의 해마다 작품을 공연하셨는데, 지금까지 대략 몇 작품이나 되나요?
구술자 : 그건 안 세어 봤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희곡을 5편을 써서 공연했고요. 올해도 8월 30일까지 하면 4편을 쓰는 거예요. 용인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해마다 하남 연극협회에서 올리는 '설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설화 시리즈가 올해 7탄까지 나왔어요. 그중 5편을 제가 쓴 거죠. 하남 연극협회 후배 부탁으로 다섯 편을 쓰고 연출해서 올해도 7월달에 올렸어요. 또 광명에 '구름산 예술제'가 있어요. 구름산 예술제에 광명의 인물인 오리 이원익 선생, 강빈, 기형도 시인에 대한 옴니버스 대본을 만들어서 예술제에서 10월 9일에 공연해요. 그런 작품들하고 용인의 칼 찬 선비 준비하다 보니 1년이 그냥 지나가네요. 거의 절반은 외부의 작품들이에요. 작년에도 경남 함안의 이태준에 대해 대본하나 써 줬는데 함안의 역사 인물 시리즈 해달라고 하네요.

면담자 : 전국구이시군요. 1편의 연극은 대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구술자 : 1시간 30분에서 50분 사이로 하면 36쪽 정도 돼요.

면담자 :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구술자 :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희곡이라는 게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나열하잖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다 이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장면 장면 넘어갈 때 빼서는 안 될 장면이 있어요. 이걸 분량이나 장면으로 하는 것보다 장황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넣는 거죠. 약 20초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절대 공부하면 안 되고, 연기자도 공부는 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 하는 거죠. 대본 쓰는 것도 처음 한 두 번은 막연하게 자료 찾아보고 하다가 세 번 네 번 쓰다 보면 감이 좀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끔 남들이 안 쓰거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문장이 뭐 있을까 생각하면서 포인트로 그런 말도 넣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듯이 연구 논문 쓰듯이 하면 못하는 거죠.

면담자 : 단어 선택도 일상적이지 않을 텐데 문득 떠오르는 대사는 바로 적어놓나요?
구술자 :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적어 놓지는 않고 정서적 기억으로 담아놨다가 잊어버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사를 쓰다가 그전에 뭔가 생각했던 게 있는데 뭘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다시 이입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면담자 : 작품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창단하고 지금까지 이제 22년이 됐는데 그런 공연한 작품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 또는 이 작품은 '몇 번 공연 했는데 앞으로도 다시 리바이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특별히 애정 가는 작품들이 있을까요?

구술자 :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해왔잖아요. 현재나 미래에 관한 얘기는 제가 쓴 게 한 편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현재와 가까이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제가 쓴 게 있어요. 2020년도에 대한민국 연극제 경기도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경기도 스물두 개 팀이 경연대회를 했어요. 제가 출품했던 〈멈춰진 시간〉이라는 작품이 4개 부분에서 수상했어요.

면담자 : 4개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수상하신 건가요?

구술자 : 대상이죠. 1등이죠. 대상, 연출상, 무대 예술상, 연기대상

면담자 : 연기대상 누가 받은 거예요?

구술자 : 김대경이라고 이번에 〈칼을 찬 선비〉 에서도 연기하는 배우인데요. 어쨌든 〈멈춰진 시간〉, 이 작품을 다시 뮤지컬로 자체 기획하거나 안 되면 협찬받아서라도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면담자 : 이 작품이 연극인데 뮤지컬로 바꾸면 달라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 그렇죠. 공연의 러닝타임이 두 시간짜리인데, 노래를 약 1시간 정도하고 대사는 약 30~40분을 줄여야죠.

대상, 연출상, 무대 예술상, 연기상 수상 작품 – 〈멈춰진 시간〉(삼청교육대 이야기)

면담자 : 저희 세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생각하는 그런 삼청교육대 내용인 거죠?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구술자 : 그건 맞는데, 그때의 삼청교육대에서 훈련받고 전두환정권 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나쁜 사람들은 삼청교육대 작전 실무자들이 아니라 빚 안 갚으려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잡아넣은 경찰서장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극에 뮤지컬을 접목한 '퓨전 뮤지컬'의 첫 시도

면담자 : 기대됩니다. 선생님께서 예전부터 새로운 뮤지컬 연극에 도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퓨전 뮤지컬'은 연극에 뮤지컬을 접목한 새로운 장르인가요?

구술자 : 뮤지컬 연극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퓨전 뮤지컬'이라는 단어를 제가 새롭게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 방영했던 용의 눈물 정통사극 있죠. 예전에는 사극이라고 하면 정통사극인데, 요즘은 약간 현대적으로 퓨전 사극을 주로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20년 전에 이미 '퓨전'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고리타분하게 대사를 눌러서 두껍게 사용하지 않아요. 현대적으로 사용해요.

면담자 : 그런 단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참 대단합니다.

구술자 : 대단한 것보다도 경험인 것 같아요. 제 공연을 자주 관람하시는 선배님 왈 "남들이 하는 걸 왜 똑같이 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런 걸 좀 바꿔봐" 그러시더라고요. 대사를 꾹꾹 눌러쓰지 말라고. 결국은 이게 관객의 반응이죠. 똑같은 내용의 작품을 하더라도 좀 퓨전적으로 현대적으로 풀었을 때 느끼는 반응이 오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그걸 퓨전으로 가면 너무 가벼워지고 프로와 아마추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죠. 오묘하게

지회장으로 당선, 경기도연극의 활성화를 꽤 한다.

면담자 : 그러시군요. 이번에는 현재 역임하고 계신 직책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용인연극협회에서 사무장, 부회장 그리고 회장을 역임하셨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올라오신 듯해요. 그리고 올해는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경기도지회 제22대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 지회장 선거에서 3명이 출마했다고 들었는데, 지회장에 당선되기 되게 어렵고 힘든 거 아닌가요?

구술자 : 힘들죠.

면담자 : 그런데 힘들긴 하지만 추대보다는 경선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술자 : 다른 분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다들 의지를 갖고 도전했다가 이렇게 낙선을 하게 되면 그 상처가 있잖아요.

면담자 :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경선보다 추대를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구술자 : 그게 바람직한데 그런 구조가 되기가 쉽지는 않죠. 워낙 그 경기도가 치열해요. 아마도 서울보다도 더 치열할 거예요.

면담자 : 북부하고 남부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구술자 :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사이에 서울이 중간에 있어서 거리도 멀고 이동 거리도 멀어요. 북부의 특성을 보면 휴전선을 끼고 있어서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에 어떤 시. 군에서 거는 기대치나 어떤 지원 정책 같은 것도 상당히 모자라고 열악해요. 그런 부분을 이제 북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려고요. 그래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님과 국방부, 그리고 여러 기관과 같이 잘 조율해서 북부 지역 연합으로 공연도 만들어서 군부대 순회공연 등도 생각 중입니다. 어쨌거나 북부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면담자 : 이전에 지회장님들도 추진하셨던 부분인가요?

구술자 : 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커다란 뜻을 품고 있지만 지회장이 명예직이기도 하고 본인이 또 현장에서는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도 해야 하고, 그래야 생계를 유지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죠. 이전 지회장님들을 보니까 그래서 놓치고 가

는 부분도 있고, 접근은 하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었겠죠. 또 지원하는 기관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실패라기보다는 추진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면담자 : 추진이 안 되고 정체되었던 부분인데 이제 선생님의 임무가 막중하시네요. 경기도에 지부는 몇 곳 있나요? 31개 시. 군에 다 있나요?

구술자 : 경기도가 엄청 넓어서 여주를 제외하고 30개 지부가 있어요.

면담자 : 그런데 여주시는 왜 제외하는 건가요?

구술자 : 제 생각에 여주시는 지역색이 좀 강한 것 같아서요. 경기도연극협회 협회등록을 하려면 먼저 여주 출신들이 모여서 지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분야가 연극협회에요. 일단 아마추어 연극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식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2년에 4편 이상 정기적인 공연을 하고, 그렇게 2년 이상을 지속해야 하는데 여주는 없어요. 누군가 나서서 리더를 해야 하는데 이끄는 사람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못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려면 외부인이라도 누군가가 가서 여주시 지원받아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협회등록이 가능할 텐데 그런 구조가 안 되는 거죠.

면담자 :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경기도 지회장 당선은 용인에서 처음이죠?

구술자 : 도 단위 단체장은 30년 가까이 되는 용인에서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면담자 : 그렇다면 경기도 지회장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경기도 지회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구술자 : 지금 하는 공연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회장은 이제 실질적으로 지부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가서 독려도 하고, 사업 계획을 만들면 써포트 해 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국방부하고 MOU를 맺어서 군부대 순회공연도 하려고 기획서를 만들고 있어요. 여하튼 열악한 지부부터 살려야죠. 그리고 경기도 지회의 4대 행사가 있어요. 먼저 '대한민국연극제'에 경기도 대회를 개최해서 본선

진출하는 행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청소년연극제'인데 4개 권역에서 5팀씩 올라와서 20개 팀이 경선하고 4팀이 전국 대회에 나가는 행사에요. 세 번째는 '경기연극올림피아드'라고 경기도 31개 시군 각 지부의 동아리 단체들 경연대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문화연극제'가 있어요. 이렇게 4개 행사 중에서 3개는 마무리가 됐고 11월에 다문화연극제 행사만 남아 있어요.

면담자 : 다문화연극제는 다문화 가족들만 참여하는 연극제인가요?

구술자 : 물론 그걸 기본으로 하는데요. 다문화인과 같이 몇몇 외국인이 간혹 참여하기도 해요. 내용과 주제도 상관없습니다.

면담자 : 그런 거군요. 그래도 크게 네 개가 큰 행사가 있는데 1년이 너무 바쁠 것 같아요. 임기가 4년인가요? 연임은 할 수 있나요?

구술자 : 한 번은 연임할 수 있어요.

면담자 : 옛날부터 연극 하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전 배고픈 거죠? 옛날만큼은 배가 조금은 덜? 고픈가요?

구술자 : 아유 배고픈 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학교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단체 같은 수많은 사회단체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배우들도 연기자들도 자기 시간을 내서 연극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전보다는 아주 조금 사정이 나아진 거죠. 하지만 배우들이나 스텝들이 조금의 돈을 받기 시작한 게 91년이에요. 1991년에 연극회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지원을 좀 하기 시작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고 그 전에 상황은 암흑이었죠. 지자체에서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지원 체계가 있는데 그거 갖고는 일단은 배우들이 살아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술작업도 하고 또 경기도예술이나 예술사업도 하는 편인데도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나이만큼 수입도 좀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체계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문화예술 쪽에는 좀 너무 야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5세 기점으로 이제 갈등이 서서히 오죠. 초창기에는 라면 열정페이처럼 처음에 기반 다지고 이끌어 가야 하니까 그게 가능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면담자 : 용인의 공연장이 크게 세 군데 있나요?
구술자 : 크게 따지면 도 경기도 박물관에도 이제 공연장이 있으니까요. 거기는 도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공연장은 포은아트홀, 여성회관, 마루홀, 처인홀 이렇게 기본 네 군데고 도 단위까지 따지면 다섯 군데에요.

면담자 :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용인시 인구가 몇인데. 특례시가 되었는데 "용인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가까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과 작은 공연장들이 가까이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술자 : 그래서 저도 지금 고뇌하고 있어요. 내년에 무리해서라도 소극장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선배들이 자꾸 유혹해요. 선배들도 소극장이 있으니까. 소극장 지원 사업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잘해서 한번 해보자면서. 그런데 지회장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뇌가 있죠.

면담자 : 이 질문은 개인적인 성취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앞선 질문에서 안양공업전문대학교가 맞지 않아서 대학교를 그만두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석사에 이어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구술자 : 그러니까요. 하긴 해야 하는데 아직. 제가 25살에 집에서 기술을 배우라고 해서 안양 공전 진학했다가 항상 연극하고 살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박사 수료를 한 지 7. 8년 된 것 같고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되네요.

면담자 : 전공 분야를 무엇으로 하신 거예요?
구술자 : 예술 경영이요. 석사도 상명대 예술 경영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죠. 매년 때가 되면 계획은 잡고 있어요. 이제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면담자 : 그렇죠. 기한이 있나요? 지도 교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 논문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 제가 정확한 기한을 모르겠어요. 학교에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마 기한을 넘겼을 수도 있어요. 8년인가? 원래는 기한이 4년인데 제가 그 학교 1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8년을 넘기면 이제 한 학기 학비를 다시 내고 해야 하는 거죠. 조교 시켜서 문자 좀 해보라고 하시나 봐요. 올라간다고 해놓고 8년째 못 올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빨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면담자 : 조속한 시일 내에 논문도 마무리되고 선생님의 작품을 꾸준히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지회도 활성화 시켜야 하기에 많이 분주하시겠네요. 바쁘신 중에도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구술자 :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 총 괄
김태근(용인학연구소장)

■ 채록자
김도영(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정희(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지혜(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남기주(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박기정(언론인)
박숙현(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은성(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 기 획
이현구(용인문화원 주임)

용인 근 · 현대사 증언 구술생애 자료집 XII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용인의 예술인 편

발 행 : 2022년 12월 30일
발행처 :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발행인 : 심언택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화예술원 1층
전 화 : 031-324-9600
홈페이지 : http://www.ycc50.org
인 쇄 : 주식회사 광문당

비 매 품

• 본 책자는 용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용인문화원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및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